

2006년 설교

홍순관 목사

- [2006.01.01] 복판을 준비를 미리 해야! (신명기 8:11~20)
[2006.01.15] 벤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35:1~5)
[2006.01.25] 내가 너를 잊었다고? (이사야 49:14~50:3)
[2006.02.12] 하나님께서 주신 학자의 혀과 귀 (이사야 50:4~11)
[2006.02.22]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이사야 51:1~16)
[2006.02.26]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1:38~12:3)
[2006.03.08] 너나 잘 해! (이사야 51:17~52:2)
[2006.03.12] 네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1~11)
[2006.03.22] 까닭없이 잡혀간 내 백성? (이사야 52:3~12)
[2006.04.05] 하나님의 밀명(密命) (열왕기하 9:1~13)
[2006.04.09]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아들의 수고 (이사야 53:10~54:3)
[2006.04.19]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 (누가복음 24:13~35)
[2006.05.03] 살다보니 이런 날도? (이사야 54:1~10)
[2006.05.07] 황재한 여인들! (누가복음 24:1~12)
[2006.05.17]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사야 54:11~55:3)
[2006.05.31] 십일조했는데 또? (신명기 14:22~29)
[2006.06.14] 마, 그냥 살아! (고린도후서 12:1~13)
[2006.06.18] 아름다운 Tulip (이사야 55:1~13)
[2006.06.28] 이방인도, 고자도, 쫓겨난 자도! (이사야 56:1~8)
[2006.07.02]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신명기 20:1~9)
[2006.07.12] 교제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열왕기하 9:11~16)
[2006.07.16] 천 대의 복, 삼사 대의 화 (신명기 5:7~10)
[2006.07.26] 병어리 개와 눈 먼 양떼 (이사야 56:9~57:13)
[2006.07.30]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 1:1~11)
[2006.08.13] 야곱의 장자 (창세기 49:1~28, 역대상 5:1~2)
[2006.08.2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1~12)
[2006.08.27]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1~10)
[2006.09.06] 어휴, 입 냄새! (이사야 59:1~8)
[2006.09.10]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야고보서 2:14~26)
[2006.09.20]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시고 (이사야 59:9~21)
[2006.09.24] 너희가 이 맛을 아느냐? (갈라디아서 2:15~21)
[2006.10.04]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등장 (사도행전 13:1~12)
[2006.10.08]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 (야고보서 3:1~12)
[2006.10.18]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9)
[2006.10.22]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요한계시록 8:1~13)
[2006.11.01] 역전승! 다시는...! (이사야 60:10~22)
[2006.11.05] 나그네 인생아, 크게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1~12)
[2006.11.15] 재 대신 화관을! (이사야 61:1~9)
[2006.11.19] 드리고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6~7)
[2006.12.0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3:1~9)
[2006.12.13] 빨라라, 험시바라 하리라 (이사야 61:10~62:9)
[2006.12.17]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 3:8~15)
[2006.12.27] 여호와와의 동산같은 들을 버리고 (창세기 13:1~10)
[2006.12.31]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27:30~37)

복 받을 준비를 미리 해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끄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개역, 신명기 8:11~20]

쥐도 걱정, 안 쥐도 걱정

자 너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몸서리 나는 일입니까? 요즘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손자 손녀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원수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더러는 있어 보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몸서리 난다고.

저의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시면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저의 어머니 표현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보리 까끄래기...” 보리 이삭에는 까끌까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옷에 하나 붙어 있으면 그냥 못 있습니다. 하도 표현이 재미있고 실감나서 기억합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주우/주봉, 즉 바지’ 밑에 깔방이라는 말도 하시던데 바지 속, 그러니까 사타구니에 득실거리는 서캐/깔방니, 췌가리라는 뜻입니다. 손자가 얼마나 귀찮게 굴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말은 그러한테 표정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행복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최근에 나도는 말인데 신랑 비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 비위 맞추는 거랍니다. 신랑 비위를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 신랑 비위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신랑한테는 성질이 나면 할 말도 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속이 팍팍 썩어도 말도 못하고 끄꿍 앓아가면서 또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지요?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도 행복하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달라고 하는 것을 쥐도 걱정이고 안 쥐도 걱정입니다. 쥐도 걱정 안 쥐도 걱정, 그러면 대체로 주는 쪽이 많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걸 주기는 쥐야 되겠는데...’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걱정이 몹시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만 하도 걱정이 되니까 주시기 전에 훈련을 단단히 시키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마구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살이 부풀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살이 터질 것 같아서 건드리면 아프대요. 살이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있는데 때리면 안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 주었더니 살이 찌서 그런 겁니다. 살이 얼마나 찼는지 부풀어서 터질 것 같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인지 모릅니다. 능력에 맞추어서 누릴 만큼 상태를 보아 가면서 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은 독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꿀을 한 컵 주었습니다. 큰 컵에 생 꿀을 주면서 ‘속이 좀 쓰리겠지만 괜찮을 거다 먹어두라’ 했는데 보통은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 애가 좋다고 하니 억지로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

요. 다 토했다는 겁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속 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자기 위장이 받아줄 수 있도록 맞추어서 먹어야지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1.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여 쫓겨날 때 징계를 하시면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12, 13절을 봅시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한껏 늘어나며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메추라기와 만나, 똑같은 음식만을 먹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지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지겨워했을까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처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자꾸 먹다보면 처음에 감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하느냐고 불만스러워하는 거지요. 옷은 어때요? 그들이 입었던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서 40년 동안이나 신었습니다. 집은커녕 광야를 떠돌아 다니면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집이 주어질 것이고 배부른 음식, 소와 양이 많이 증식할 것이고 은 금, 즉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려고 작정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게 있지요? 왜 발가락이 닮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자지간이라면 어디가 닮은 데가 있지 않겠나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닮은 데가 없는데 분명히 무언가 닮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결국은 발가락이 닮았어요. ‘야 너 발가락이 딱 내 발가락하고 닮았네. 너 내 아들 맞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뻐서 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격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누가 답답하나요? 아이 엄마가 답답해하지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던 짓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데 나무랄 수가 없지요. 우리 집 사람은 나무랄 수 있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 딱 저 짓을 했는데 저 어린 것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내가 한 행동, 그 생각, 그 것들이 어떻게 내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닮았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닮았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한편으로는 이런 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복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

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느냐는 것을 회상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열조도 알지 못 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늘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야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결국은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 이렇게 돌보아 준 이유가 '결국은 네게 복을 주려고 그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종으로 부려 먹으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자녀로 선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니까 탈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로보트나 짐승처럼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더니 탈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리 걱정을 다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막 주고 먹여버리면 나쁜 부모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2. 염려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 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고 난 뒤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잘 먹고 잘 살 때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생각할까 걱정되는 겁니다. 18절 읽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두려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의 경우일 겁니다.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더니 3만2천명이 모였습니다. 상대방은 14만이 넘습니다. 옛날 전쟁은 순 백병전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왜 줄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왜 줄이라고 하시죠? 처음에 몇 명 모였습니까? 몇 명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최종 몇 명 남았습니까?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 숫자를 보고 많다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기고 난 뒤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 두려우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두려우니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결국 3백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3백명은 그러면 어떤 숫자죠? 죽어도 이길 수 없는 숫자! 이 숫자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절대로 싸워서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면서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자녀에게만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부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 나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염려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로 혹은 연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겠다고 나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더니 액수가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안 줘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큼니다.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 한때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큰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용돈 부족으로 사고를 친 겁니다. 한달 용돈을 몇 천만원씩 쓰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런 사고를 쳤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용돈이 부족해서 그랬대요. 집에서 용돈을 그렇게 준 겁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용돈은 남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용돈 중에서 얼마를 남겨서 저축하고 있으면 착한 아이인줄 아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보십시오.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주고 나면 탈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 걱정을 하면서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을 미리 주면 아들이 멀리 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 떼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주시는가? 싫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 주시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즉각 즉각 다 들어주신다고 하던데 만약 내게 그러하시다면 어떨까요?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참 험악해지겠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저도 싸움을 했거나 못된 말을 한번 들으면 고약한 상상을 좀 하는데 내게 생각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다행이다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기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무서워요.

저도 수양이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 지켜보면 압니다. 가끔 차를 같이 타면 "강도사님 욕 안 하시네요? 성질 안 내시네요?" 합니다. 운전할 때 성질 안 내고 욕 안 하면 수양이 좀 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보면 '뭇 똌구나' 싶을 때 많은 겁니다. 그런 내게 능력이 있다면 참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내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걱정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조금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복을 주시면 다들 그렇게 망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아직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것도 안 주시고 가난해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묘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잠언 30:8)** 누구입니까? 잠언 30장, 흔히 우리는 아굴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좀 다릅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서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도 결단코 그 큰 재물,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담대하고 큰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땅의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기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일찍이 4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작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훈련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도 처음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4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당하고, 5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빼주시려면 처음부터 빼주시지 중간부터 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조금은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앞에 내리던 재앙 때문에 몸서리를 쳐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십니다. 40년 동안 기적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뒷장에 보면 노래를 하나 가르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평소에 부르던 이 노래가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후손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훈련 시키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후일에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 너희들이 잘 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났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셨습니까?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 즉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약속도 누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합시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너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요 너희 능력이 대단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백합니

까?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면 이거 내 공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말 하세요. 역지로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철없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것 자꾸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사람이 대단합니다.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로 가고 저 먼 곳까지 우주선을 보냅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대단하다고 감탄하기 전에 천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짜여져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것이 만약에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복이 많아서 귀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빨라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연습하면 그렇게 되도록 손가락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 손이 아니고 만약에 원숭이 손처럼 생겨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사람의 손은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정말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걸 사람이 기계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연주자라고 감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진 손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 주세요.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좀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이었음을 알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었고 우리의 발로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안 주셨으면 아무리 다닌들 소용없습니다. 내 작은 고백, 내 작은 헌신 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먼저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사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도 알지 못했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만사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도 우리 자신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제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단순히 잊지 말라가 아니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 않았느냐?

4. 말씀을 지켜 행하자

이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조심해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을 잘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네게 복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많은 돈과 시간과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잘 참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좀 그래요. 저한테는 잘 못 참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어요. 저런 모습이 엄마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덕을 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참아가며 돈 써가며 시간들이며 속 끓이며 무슨 덕 보려고 그렇게 합니까? “시집가는 딸을 위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 쓰러 다니면 아깝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것이 그

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린도전서 15:10)'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열심히 크게 일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한 노력의 탓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애쓰고 했음에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후에도 '내가 이렇게 헌신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갔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굴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언제 실수합니까? 전쟁터를 뛰어 다니거나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그런 실수를 잘 안 합니다. 나라가 다 평정이 되고 난 후에 궁에서 편안히 쉴 때, 오후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에 문제가 터진 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 만한데도 여행을 절대 안 떠나십니다.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해도 '야, 야,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늙으막에 먹고 살만할 때 여행을 갔다가 죽는 꼴 많이 봤다. 나 억울해서 못 간다' 안 가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왜 실수를 합니까? 왜 이런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데요. 참, 사람이 이상하지요? 월급이 많아지면 자기 것이 많아지는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아진 것만 자꾸 아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십일조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올려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십일조 떼먹고 도둑놈 소리 안 듣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나님 월급이 너무 올라가서 내가 도저히 아까워서 십일조를 다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기꺼이 십일조를 할 수 있을 그 정도까지만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분은 글도 쓰고 책도 내고 하니까 교회 사례 이외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백만원까지는 1/10, 4백만원이 되면 1.5/10, 5백만원이 되면 2/10...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작심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복 받을 짓을 미리 하고 있는 분, 제목대로 하자면 복 받을 준비를 미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아닙니까?

비록 돈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며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니? 주일 학교 교사 몇 년 했니? 이걸 안 물을 것 같아요. 교회를 5-60년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안 물으시면 어떻하지요? 주일학교 20년 이상 했다고 표창을 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가서 몇 년 했느냐고 물으시면 '25년 했습니다' 하고 참 자랑스럽게 얘기 할 생각인데 그것 안 물으면 어떻하지요? 무얼 물으실 것 같으세요? 몇 년 했느냐를 안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어느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 성질 같으면 이럴 때 하나님 한판 얻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참았다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깝지만 내가 이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었는데요? 그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뀐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개역, 창세기 35:1~5]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막막할 때 성경을 펴 보면 성경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고 그런 때가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만 불행한 우리 이웃들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변심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하나님,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야단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기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인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 일에 신경을 써도 그렇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실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셔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 답이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꼭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꼭 자라’가 ‘가만히 있으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 내 방식, 내 머리, 내 능력, 모든 수단 찾아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1.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 이전의 34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건드릴 수 없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아마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식구도 많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가지 아니하고 숙곳이라는 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처에 세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그 성에 놀러 갔다가, 지금 식으로 말하면 시골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근처에 갔는데 서울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싶어서 마을구경을 간 겁니다. 가 보면 눈이 뒤집어질 만큼 화려한 곳이지요. 그곳에 구경하러 간 겁니다. 구경하러 갔다가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지요.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이고 최대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가나안 사람들은 흔히들 하는 말로 해롭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겔 성의 추장 아들이 이런

것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믿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주 건전하게, 성문제에 관한한 아주 엄격하게 고이고이 자라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 가면 바깥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처녀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곱게 키운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도 알아야 하지만 자신들을 잘 지켜갈 수 있을 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고 야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겔 성은 큰 성입니다. 자기 식구는 얼마 안됩니다. 일은 당했고 힘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서로 우리 혼인하고 사이 좋게 지내자고 하니 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과 우리가 혼인 할 수 없으니 너희 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다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니 그 성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한 여자 때문에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드러누워 있는 걸 야곱의 아들 둘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인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성읍들이 다 일어나면 몰살당할 형편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이제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깨끗이 멸망당할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걸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는 얘가지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단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벤엘에 가서 거기에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답변이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벤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벤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혈혈단신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몸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드린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요구했던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나요? 입을 것과 먹을 것 외에 많은 가족을 주셨고 엄청난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끌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했나요? 나갔다가 돌아오면 출필곡 반필면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돌아왔는데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벤엘로 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벤엘로 안 가고 숙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를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짐작하기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딸 디나가 어렸습니다. 태어난 순서를 이렇게 보면 디나가 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였던 디나가 세겔 성에서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만큼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10여년 이상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벤엘인데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야곱은 행복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올 때에 외삼촌이 추격해서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형님이 두려워서 밤새 천사와 씨름도 했습니다.

다. 형님 만나서 죽을까 싶어서 가족들을 쪼개고 쪼개어서 갔는데 형님을 만났더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난생 처음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10여년 이상을 걱정거리 없이 먹고 살기 참 좋으니 내가 가야 할 베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야콥의 이런 모습을 닮아있는 게 아닌지요? 자녀를 다 키워놓았습니다. 먹을 것도 걱정 없고 회사는 넘어질 염려 없고 이만하면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는 이런 안도감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나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곳이고 세겜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내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잠깐 봅시다. 12절부터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걱정이 딱 하나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에 혹시 하나님을 잊을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늘 걱정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잘 해놓고 잘 먹여 놓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었느냐? 아무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헌신했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헌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장로가 되니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변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보고 충성하던 분이 조금씩 하나님 외에 무얼 보는지 아세요? 사람을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언을 게 무엇이 있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아이들을 보고 하지요.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하면 슬금슬금 하나님 대신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 놓았는데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우리의 눈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일이 좀 잘 되어 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눈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나 자신을 쓰옥 쳐다보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옆의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위험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야콥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 후에, 정말 편한 한 세월을 10년 넘게 지내면서 베엘로 가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심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음을 다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엘이 야콥에게 있어서는 초심입니다. 엉뚱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야콥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무얼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베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야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은 '이놈 언제 오나?' 하고 베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아들 하나가 재산을 들고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놈 언제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집에 앉아 기다리실 겁니까, 찾으러 다니실 겁니까? 아들이 아무리 멀리 간들 아버지가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지는 않고 아들이 거지풀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하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완전범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찾아오지요. 알고 찾아옵니다. 얼마 만에 찾아오나요? 완전범죄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찢러대는 거지요. 얼마 만에 찾아옵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난 후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1년이 넘었지요. 거기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얼 기다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에게 아마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감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를 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벤엘에서 참 행복하게 살 동안 하나님은 그 쓸쓸한 벤엘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 만나기를 오랫동안 소원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답답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얼마나 불들과 매어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자기가 소원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 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문제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기다리는데 꼭 문제가 생긴 뒤에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빨리 엎드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생 덜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빠지고 일을 안 했다고 당장에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니지요? 별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별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도 당분간 잘 갑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일이 터지면 감당 못할 정도로 터진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일일이 매를 들고 나르면 못 견디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참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답답해하시고 반면에 야곱의 후예들은 천하태평으로 잘 지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가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이들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답답합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는 아이가 답답합니까, 밥상 차려놓은 부모가 답답합니까? 성질내면서 밥을 먹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부르고 초빙하고... 이것이 성경이더라는 겁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하나님은 어떡하시죠? 안되겠다. 오라고 하는 자들이 안 오니 놔두고 대신에 길거리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데려 오나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칫상을 다 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그 마음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뛰어와서 먹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내게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벤엘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먹살을 잡아 끌고오면 안되나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끌고오면 안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셔서 도대체 귀하게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귀하게 대하십시오. 조금 더 참으면 제 발로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참아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강제로 매로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벤엘로 가라, 거기에 단을 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야곱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차, 내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가자 우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면서 하는 행동들이 거의 불가사의에 가깝습니다.

3.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게 얼마인데 아직도 그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러하다 치고 우리는 어떠한가 보지요. 우리에게도 베엘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버리고 갔던 그 이방 신상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이 우선입니까?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런 요소가 많은 걸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 접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잔머리 굴릴 생각 안 하고 ‘예’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방신을 버리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날이 오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게 구약에서는 물 뿌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예식을 행합니다.

구약 시대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나 옷을 바꾸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은 것이나 피로 뿌린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옷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슨 옷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색 입니까? 흰색! 어디에서 세탁한 거지요? 어린 양의 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야곱이 정신이 확 들고난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베엘로 하나님을 찾아 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항상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4. 알아서 막아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켜 주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디나가 그런 일에 처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지켜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참 염치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나마 지금까지 탈 없이 살아온 거, 그나마 내가 지켜주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0년 이상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일이 터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적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스쳐지나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잠시 고개 돌리면 이런 문제가 터져 버립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두시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아픔, 이런 시련마저 없기를 바라서는 안됩니다. 고통이나 아픔 없이 그저 동화 속의 행복처럼 살기를 바라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학생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아예 없애주시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에서 시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런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갈 때에 시련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문제에 부닥쳐도 결정적인 파멸이나 완전한 끝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건드릴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지만 최후의 마지막 위험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고 가르쳐 주실망정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방이 경비도 적게 들고, 고생도 적고, 일도 쉽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엘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베엘로 감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야곱의 이런 시련을 되돌아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면, 아니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예방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그 말 안 하고 예방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공부 합시다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크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 학생들에게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안 한다고 야단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제가 방학을 몇 개 지냈는지 아십니까? 1년에 두 번씩 20년 하면... 그 긴긴 방학에 보따리 싸서 놀러 한번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방학 동안에 아이들 데리고 안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라나는 시절에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말씀이 평생의 예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왜 안합니까? 누가 잘 되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잘 살면 배가 아픕니까? 어느 나라 속담인지 참 고약한 속담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살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신실하게 마음을 먹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어라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답 아십니까? 너의 재주 너의 피부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요.

두 번째 답은 베엘로 가라는 겁니다. 베엘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내가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고 따져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삽시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눈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오랜 세월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끝.

내가 너를 잊었다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 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께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쩔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개역, 이사야 49:14~50:3]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 이들 키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미워!”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엄마가 왜 미운가를 물어보면 “때렸잖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왜 맞았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자기를 때렸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잘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기를 섬섭하게 한 것이나 야단친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아마 계모일 거야’, ‘아마 우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고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는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나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보기에는 냉랭한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지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여름 방학 때 집에 갔다가 방학이 끝나고 공부하러 간다고 짐을 싸서 떠나면 어머니가 마루에 자리를 깔아놓고 정좌해서 있으면 이 선배가 마당에 서서 큰 절을 합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그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아주 엄숙하게 “건강 잘 돌보고 공부 잘 하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 선배가 대문을 나서는 겁니다.

이 선배가 장난이 심한 편인데, 잠시 나갔다가 무얼 잊어버린 게 있는 것처럼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놀라서 눈물 흘리던 수건을 감추며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눈에 보인답니다. 집 떠나는 자식을 대청마루에 앉아서 아주 엄숙하게 한마디 해서 내어 보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을 이 아들이 아는 겁니다. 자식이 사립문을 벗어나고 나면 그만 어머니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아들이 뛰어 들어오니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이에 손수건 치우고 자세를 바로 잡는데 이 아들은 그걸 즐기는 겁니다.

계산 못하는 부모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정상 아닐까 싶어요.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이 아이들에게 무얼 바라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웁니까? 오늘 저희 집에 사촌형님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갓 돌 지난 손녀를 앓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손녀가 순 돈 덩어리랍니다. 애 하나를 보려고 어른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번 설에만 40만 원을 이 애가 까먹었고, 그리고 애기를 봐 주는데 한 달에 50만원, 그리고 애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소포로 날아온답니다. 분유만 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되었을 때는 뭘 먹이고 몇 개월 되었을 때는 뭘 먹이고 달 수 별로 먹이는 게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니까 순 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옛날에 태어난 우리가 불쌍하지요.”

부모가 무슨 덕을 볼 거라고 자식을 애지중지 키웁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키우실 겁니다. 혹시 노후 대책으로 키우십니까? 나중에 무언가를 바라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키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굳이 바라는 게 꼭 하나 있다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잘 살아주는 게 아닐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을 자녀가 알아주면, 그걸 알아서 말을 하거나 작은 성의를 표하면 한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지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며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1.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젖 먹는 자식일까요? 잊고 싶어도 애기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젖이 저절로 불어나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벤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놓고 가만히 놔두고 이 궤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할 때 조건을 몇 가지 답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이 소가 절대로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장치를 몇 가지 설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젖나는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딸린 소를 수레에 매어 끌게 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소가 새끼를 놔두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젖먹이가 딸린 암소 둘에 수레를 매어서 가나 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젖 먹는 새끼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

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았다

16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 더러 메모를 합니다. 손바닥에 적어 놓으면 거의 확실합니다만 더러는 손바닥에 적어놓고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수 하다 보면 지워지기도 하고 무엇을 만지다 보면 지워져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긴 하죠. 하나님은 손바닥에 적어놓고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매를 많이 들었죠. 작은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안되니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옥에 가둔 어미는 결코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한다

자녀를 가르치다 가르치다 안되면 결국은 경찰서로 끌고 가는 부모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넣고 나서 그 부모는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합니다. 방에 불을 넣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아니 자기 손으로 감옥에 넣어놓고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나 해서 눕지도 않고 방에 불도 넣지 않고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녀보다 그 아이를 감옥에 넣어놓은 어머니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만들었다기보다 하나님 스스로 이 고통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끝내지도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스스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아픔을 누리시면서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2.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두번째 답변은 17-26절까지인데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잊지 않았다고 15, 16절 두 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은 17-26절까지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① 단장한 신부 같다

회복시키시는 광경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모습이 단장한 신부 같다고 말합니다. 18절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주 예쁘게 치장한 신부 몸에 붙여 놓은 장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단장을 합니다. 거기에 노리개를 차든지 무얼 하나 붙여놓으면 얼마나 예쁘게 붙여 놓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결혼식에 갔었는데 저를 처음 보는 어느 신부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리 딸 예쁘지요?” 하는 겁니다. 조금 낯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낯수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 딸을 치장해서 앉혀놓고 그 딸을 잠깐 보러 온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럴까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곱게 치장한 신부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양복 입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구두 신어보신 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양복입고 구두 신은 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시선이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 어느 여자 선배가 앞에 앉아 있는데 자꾸 이마의 머리칼을 잡아 당겨요. 왜 그러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난생 처음 파마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기가 이상한지 자꾸만 앞머리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해서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런데 온 몸에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한 이 신부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당하도록 했지만 다시 회복시킬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모습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어째 이 모양이고 어째 이 꼴이냐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② 땅이 비좁다

19-20절을 봅시다.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두 번째 회복의 모습은 땅이 비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땅이 비좁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땅이 비좁을 거라고 말합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 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 이 땅에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없어지면 아주 기름진 땅, 멋진 과수원이 모두 질려와 형극이 나서 수목이 우거지고 그렇게 되면 짐승들이 우글거리게 되고 사람이 없으니 길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길이 모두 숲으로 우거지게 된 겁니다. 나가려면 반드시 활과 화살을 가지고만 나갈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워낙 우글거리니까요.

그런데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땅이 비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유하면 식구는 많고 집은 좁고 그래서 비좁은 집에서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고 그러고 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비좁은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큰 집을 준비할 테니 그리로 이사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원문의 뜻을 정확히 살펴보면 사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아들이 나타나서 “여기 거처가 너무 좁으니까 거처를 좀 옮깁시다.” 그런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큰 집으로 옮깁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갑고 기쁠 텐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 고생 그만하시고 큰 집으로 옮깁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무어라 말하든지 21을 봅시다.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거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우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지냈습니다. 재차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할 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울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지. 외로운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다 죽어가던 야곱 앞에 요셉이 살아난 겁니다. 그것도 애굽의 온갖 보물을 가득 보내면서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버지의 여생을 편히 모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또 장차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흩어지겠지만 결국은 이런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③ 자식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수 많은 아름다운 자녀를 거느리게 된 것과 같다

22-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 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에게 많은 자녀가 생겨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 자녀들을 기르는 양부와 유모가 있습니다. 이 양부와 유모가 전부 전직이 왕비라는 겁니다. 왕이고 왕비였던 사람이 내 자녀를 기르는 유모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만 이 놀라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나중에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민족과 나라를 구별함이 없이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낙망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혼서를 써 주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덧붙이신 것이 50장 1, 2,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배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다음 말과 뜻이 같습니다.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서도 없고 내가 너희를 판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내어 보낸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판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어미가 팔렸고 너희가 내어 보냄을 받았을지언정 나는 너희의 어미와 이혼한 적도 너희를 판 적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 주라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편이 와서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여자는 둘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혼증서는 그것을 막아주고 당당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유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반드시 이혼을 하면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써 준 이혼증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학자의 혀와 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들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던져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개역, 이사야 50:4~11]

말을 못 알아 들으면

영 어 선생님 30명이 영국에 한 달 정도 영어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들 중에도 읽고 가르치는 것은 잘 하는데 말이 자연스러운 분은 좀 드롭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한 달간 머물러 있는데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그 중에 몇 분이 파리 구경을 한다고 프랑스로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영어가 제일 안 통하는 동네가 파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양속지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 물으면 프랑스어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영국에서도 답답하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다행스럽게 그 선생님들 중에 불어를 전공한 분이 한 사람 끼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사수첩을 두들겨 가면서 길을 찾아가면 영어 선생님들이 줄을 서서 줄줄 따라 다닌 겁니다. 한번은 지하철을 잘못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전부 타 넘고 나왔으면서 웃고 떠드는 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즐거운 추억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영어가 갑자기 모국어 같다.” 프랑스 가기 전에 답답하던 영어가 프랑스를 갔다가 오니까 마치 모국어같이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영어 실력이 는 것은 아니고 프랑스에 가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여전히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조금이라도 통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외국 사람 만나서 말이 잘 안될 때 손짓 발짓하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사는 한마디 던졌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면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안됩니다. 말도 하기 싫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오래 있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니까 크게 답답지 않지만 한 식구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농담이라고 했는데 진담으로 듣고 진담으로 했는데 농담으로 듣고...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못생긴 사람하고는 살아도 머리 나쁜 사람하고는 못살겠다는 겁니다. 왜 머리 나쁜 사람하고는 못살니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만 하니 차라리 얼굴 못생긴 것이 낫지 머리 나쁜 사람하고는 못살겠다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에게

성경에 누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몹시 답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도 말씀하시고 수 없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징계가 임한다고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런데도 끝끝내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 가서 해야 할 말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서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놈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럴 텐데 그렇게 붙들려 가서 하는 얘기가 49장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 놓고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다가 매를 한번 들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러는 겁니다. 50장 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네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는 나는 네 어미를 버린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하는데 ‘그 증서를 한번 찾아봐, 없지 않느냐? 이는 내가 이혼하거나 내어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내어 보내었거나 내가 이혼을 했거나 내가 판 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팔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너희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려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음은 어쩔이뇨’ 내가 왔었고 내가 불렀음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 너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어 수 없이 경고하며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 둘 사이에 누가 더 답답합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차라리 편합니다. 속이 터지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에게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받은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두 가지로, 즉 혀로 하는 사역과 귀로 하는 사역으로 나누어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학자라고 다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학자의 혀라는 것은 잘 훈련되고 교육을 잘 받은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잘 도와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학자의 혀를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준다면 어떤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 하게 하는 법, 재산을 늘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세금 줄이는 방법 이게 다 지혜로운 재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메시아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 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 중의 지혜가 무엇

입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공리 너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게 정답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공부 안 하고 잘 해보려고 공리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공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걸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한 두 마디가 효험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 늘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별로 없습니다.

1. 예수님의 학자의 혀 사역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대단한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자의 혀를 가진 메시야가 전해주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전해주는 것이 메시야가 하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전부 입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얹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 하면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얹잡아 보았습니다. ‘목수 주제에 알면 얼마나 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성분이 대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배웠던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걸 파괴가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형식과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문구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식과 율법의 종교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느냐를 잘 보여준 것이죠. 엄한 아버지라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 안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사랑을 겉으로 완전히 드러내어 친구 같은 아버지로 나타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엄한 아버지로만 알려졌던, 너무나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이나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그렇게 짚어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고’에만 매어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하지 말고’ 쪽이 아니고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날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를 보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구약의 많은 율법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대로 따지면 먹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레위의 율법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면 먹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추어탕, 보신탕, 장어구이,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것들 다 먹지 못합니다. 먹는 문제가 그러하지요! 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너무 길고 힘들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후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돈이 있고 넉넉하면 소 한 마리를 끌고와서, 소 한 마리를 여러분 스스로 다 잡아야 합니다. 전부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전부 불살라야 합니다. 시간과 힘과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제사 대신에 여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혀로 하는 사역은 지혜로운 말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학자의 혀를 가진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죄인, 병든 자가 바로 궁핍한 자입니다. 이 어둠에 처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전부 학자의 혀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말로, 내 혀를 통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을 인생을 내 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학자의 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에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귀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이 나하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기쁜가? 기분 좋게 만났다가 다시는 만나기 싫다는 기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이 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는 형제를 세우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형제를 세우고 칭찬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2. 예수님의 귀 사역

이 사역이 가능한 것은 또 다른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학자의 귀 사역입니다. 귀 사역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학자의 혀를 가지신 예수님은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었기 때문에 나는 때리는 자에게서 피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피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럴까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메시야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 당대 관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실수입니까? 어떤 이단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러 왔느냐면서 성경구절을 제시합니다. 그 시대의 관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 관원들의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만한 자기를 나름대로의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닌데요.

메시야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들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 팔 일만에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런저런 찬양을 한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 아이를 보고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야를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고 고난을 받게 되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에 찢리는 듯 하리라’**고 시므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음을 이사야도 말했고 시므온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깨닫고 실천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지요.

말씀이 옹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옹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끝내 배반하고 말 유다를 왜 제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제자로 택합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옹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이 말라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옹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의 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를 참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면 선생님이 잘 안 보이셨어요. 찾아보면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저녁에도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겔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릴릴에서 날짜까지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분입니다. 도마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따라 왔습니다. 죽을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안 죽으려고 기도했다구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때에 죽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이번 유월절은 피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시려고 합니다. 죽으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 분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죽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도 기꺼이 순종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병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설령 내 병이 낫지 아니하고 내가 젊어서 죽는 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살려주실 테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면 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의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학자의 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학자의 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온갖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부식돌같이 굳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부식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차돌이 제일 딱딱하다고 말하는데 저쪽에서는 부식돌이 딱딱한 돌인 것 같습니다. 불을 일으키는 돌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견디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때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고3이 어떻게 교회에 가냐? 학교 나와!”라고 하는데 고3 아이 한명이 “선생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고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 말씀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매 맞을 수도 있고 욕 먹는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빠지면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벌을 받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보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정말 철판을 깔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의 귀를 가진 메시야는 얼굴을 부식돌같이 굳게 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치욕을 다 견디어 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사람이 어떤 비난과 어떤 수욕을 준다고 해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신 분으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 답답한 하나님의 속을 조금이라도 풀어 드리려면 우리의 입이 학자의 혀가 되고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서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픈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자녀들과 싸우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자식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이렇게 말하며 자녀들과 가끔 싸우시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것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시범을 보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갈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귀가 어떠해야 할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혀와 귀

여러분, 우리의 혀는 학자의 혀입니까, 바보의 혀입니까? 바보의 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잘 안된 혀입니다. 기분 좋으면 좋은 말을 했다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마음대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보의 혀가 아닐까요? 학자의 혀는 잘 훈련되고 잘 교육된 겁니다.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하는 혀가 학자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이런 말도 나가도 저런 말도 나가는 그런 혀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혀는 독사의 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만 떼면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혀는 훈련되지 아니한 바보의 혀가 아니라 잘 정리되고 절제되어서 성도들이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는 학자의 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무어라 하는지 맞추어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듣고 싶은대로 듣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하고 싸우는 엄마들을 보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라고 하면 아이들은 “전에 약속 했잖아?” 합니다. 누가 틀린지 아세요? 둘 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말을 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들었기 때문에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심하면 듣고싶은 것만 의도적으로 골라서 듣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지요?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되었건 싫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학자의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날 엉뚱한 얘기만 하길래 매를 좀 들었더니 턱없는 소리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분이 학자의 혀를 가졌고 학자의 귀를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점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철철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책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찢으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썩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흥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개역, 이사야 51:1~16]

이 사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가리켜서 간혹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쓰인 구약의 이사야가 마치 신약에 있는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면서, 오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의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똥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영똥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설령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또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네 어미를 내어 보낸 적도 이혼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네 어미가 스스로 집을 나갔고 범죄했지 내가 내어 보낸 적도 이혼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잊은 적도 내어 버린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똥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 너희 자신을 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처음에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본문에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합니다. '나를 들을지어다'를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다음 내용과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2절 중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본래는 저런 흠더미였었지

반석에 커다란 구멍이 우묵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땅에 우묵한 구덩이가 보이거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흠으로 이런 나를 만드셨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묵한 바위를 보면서 '저 단단한 바위에서 일부를 파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도 좀 단단한 사람이 있고 조금 무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 나는 반석에서 파낸 인간인가보다?' 혹은 '우리 집의 누구는 순물살인데? 아마 진흙 구덩이에서 만들어 내었나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묵한 곳을 보면서 '여기에 누워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어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흠이 땅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을 때에 무슨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흠덩이를 하나님은 이런 멋진 인생으로 만드셨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흠더미로 누워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를 몰아오거나 개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거나 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흠더미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움푹 팬 곳이 있거든 '저기가 내가 누웠던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좀 더 가다가 구덩이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건 우리 형님 자리고 저건 우리 사촌이 누웠던 자리고... '본래 인생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감격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 고아들을 주여다가 훌륭하게 키워 놓았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유명한 선수들도 무명시절 아무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자기를 맡아서 이렇게 키워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면 될수록 어릴 때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시절에 나를 키워준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땅에 움푹 팬 곳이 보이거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몸이나 다름 바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후손을 가졌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를 생산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흠구덩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이 많은 무리를 생산해 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가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나 여호와와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다시 자기 민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 죽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나 다름없던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끌어 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는 말씀은 바로 너 자신을 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니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 보이십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내 모습이 저런 구덩이였지 않느냐? 그런 구덩이에서 불러내어 이런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 냈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구덩이를 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너 자신을 보라는 얘기고 너 자신을 만들어 낸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자식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나가시다가 구덩이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영 형편이 없는 내 인생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속에서도, 한 민족이 포로로 살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건장한 민족으로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 자신의 모습을 보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던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뜻이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에덴동산같이 만들 것이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3절을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합니다. 황폐한 시온을 에덴같이 만들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흠구덩이에서 너를 멋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왜 어렵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절 뒷부분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은 슬픔밖에 없고 포로로 살아가는 절망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날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다가 좋은 날이 올 수가 있겠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폐하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에덴동산같이 바꾸어 버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감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흠구덩이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때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치던 분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혼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고비가 있었음에도 나중에 너무나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 옛날을 되돌아보면 아찔한 때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라도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에덴동산같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내게 귀를 기울이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4절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설명을 해 나갑니다. 두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깨끗하게 정돈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4-6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율법과 공의의 근원이기도 하고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는 자이시기도 합니다.

율법과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임할 구원과 심판도 전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6절 뒤편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공의도 영원합니다. 공의는 함부로 쓰기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요 구원이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랑을 거부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시험을 만들어 두었을 리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닙니다. 상줄 때에는 확실하게 상을 주면서도 벌을 주실 때에는 확실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을 주건 벌을 주건 하나님께서 한번 시행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니 맘대로?

반면에 인생은 무어라고 말하는지 6절을 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기 같은 것입니다. 또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닳아 없어진다는 얘가지요.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인생은 연기 같기도 하고 옷처럼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좀이 쏘고 벌레가 먹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12절에 보면 **‘풀같이 될 인자’**라고 말합니다.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실감이 잘 안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권세나 힘이 오래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로는 저 권세들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이나 그 인생의 찬란함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존재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을 건데? 간이 많이 부은 이야기지요. 그 때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그 누군가가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어떡할 거냐?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고 죽었는데 죽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이더라면? 아마도 기절초풍할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화장을 해서 깨끗이 없애버렸다고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다 살아납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은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부활시키겠습니까? 살려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든지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백년을 살다가 간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서 영생을 줄 것인지 영벌을 줄 것인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하다 치고 당장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이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를 압제하는 저 바벨론의 권세가 두려운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바벨론 나라를 때려 부숴버리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9, 10절을 봅시다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배어 구축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릴 때 내가 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내가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주무시나이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것은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러분, 이 깨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깨뜨린다는 표현도 있고, 잠에서 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깨소서라는 것이 깨뜨리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라는 표현일까요?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늘 이렇게 엉뚱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하는 데에도 답변을 참 잘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많이 행하셨지 않나요?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17절부터 5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참고 발언을 주신 것이 16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9절 뒤편에 보시면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민다는 것은 칼로 찌작 베어낸다는 표현이지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생 라합은 사람인데 사람을 저미시고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원어 상으로 보면 기생 라합과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글자가 다릅니다.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을 하나님께서 생선 회치듯이 찌작 저미시고 그 다음에 용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다 괴물과 용은 둘다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실 때에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과거에 애굽에 하셨던 것처럼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면 간접 경험이지만 우리 앞서 간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좀 배우시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교회사 그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님은 따로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사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펼쳐놓으면 그것이 멋진, 감동어린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이런 교회사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공부시간이나 설교시간에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결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시기 전에 내가 저 구덩이에 누워 있지 않았느냐? 저 흙구덩이에서 나를 불러 내셔서 이런 인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들이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혈혈단신으로 자식마저 갖기를 포기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사막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물도 없고 황폐하기 그지없는, 도무지 살아가기 힘든 그 사막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막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안개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 옷이 좀에 상하여 버려질 상황이 되었어도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르기 전에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만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개역, 히브리서 11:38~12:3]

계주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 이번 주에 텔레비전 좀 보셨습니까? 신문에 금메달을 몇 개 땀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땀나 싶어서 텔레비전을 좀 봤습니다. 녹화방송을 몇 번 봤는데, 이게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더군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봐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쇼트트랙 경기만은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정말 볼만 합니다. 실격도 많고, 여차하면 미끄러져 나가떨어지니까 경기 끝날 때까지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결과를 뻔히 알고 보는데도 그렇게 재미있던데요. 여자 3000m 릴레이 할 때 도대체 몇 바퀴를 도는가 했더니 27바퀴를 돈답니다. 그러다가 한 선수가 빠끗해서 미끄러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느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 한 명이 넘어져서 거의 한 바퀴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국엔 따라 붙은 것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발할 때 넘어지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2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25바퀴 돌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돌았던 25바퀴 다 헛일입니다. 그것만 헛일이 아니고, 이 시합을 위해서 그동안 피땀 흘려가며 했던 훈련들이 전부 허사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빠끗하면 그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경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봐도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경기장에 있던 코치나, 선수들은 어떻게겠습니까? 금메달을 많이 따냈으니 기쁘기도 합니다마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경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계주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려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왜 히브리서라고 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할 독자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박해를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제국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중으로 박해를 받을 그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왔는지 설명을 하는데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읽어봐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도 쉬운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한 후에 그 조상들에 대해서 무엇이냐 말합니까? 38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다른 말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4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케 되지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선조들이라고 했으면서 왜 그 선조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부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계주의 앞선 주자들

12장 1-3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의 밑바탕에 달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위대한 조상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바톤을 우리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선조들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선조들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조상 선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주에 비유에 보면 히브리 기자의 눈에는 쇼트 트랙보다 더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앞서 뛰어갔던 우리의 선조들은 경주에서 자기의 몫을 다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선조들이 보고 ‘제발 실수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바톤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잘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거나 바톤을 놓아버리면 우리 선조들이 달려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까지 실수하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방법

그래서 12장은 달리기를 잘 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설명합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리기를 잘 하려면 우선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뛰면 별 훈련을 안 해도 아이가 잘 뛸니다. 엄마 아빠가 못 뛰면 훈련을 해도 잘 안됩니다. 달리기는 좀 타고나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증인의 본래 의미는 관람자입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관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관중을 의식하자

달리기 뿐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 월드컵 축구 경기 때에 한국은 12명의 선수가 뛰었다고 합니다. 축구의 정원이 11명인데 한국의 추가된 한 명은 관중들을 가리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놀랐지만 한국 사람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뛰었으면 그렇게 잘 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관중들이 이러니 없는 힘도 생겨서 열심히 뛰게 되더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 선조들이 자기들의 경기를 끝내놓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잘 뛰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수한 관중이 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이 관람자가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도 잊어서는 안될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뛰었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예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때까지는 한국이 유일한 경우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어 공부에 많이 투자하나요? 그렇게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나요? 좋은 교재와 선생님께 10년 정도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교재가 있습니까? 문법이 있습니까? 우리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한국 사람에게 우리말 배워가면서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낸 겁니다. 외국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역해서 만든 성경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까 책을 풀어서 꼬아, 노끈을 만들어 피나리봇짐에 엮어서 들여 왔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백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그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단기선교를 간다고 티벳, 위구르 등지를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도 가고 그 어렵다고 하는 의대도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부모님께 와서 소말리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야! 정말 장하다’ 하고 보내시겠습니까?

백년 전에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진 나라에 우수한 두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때 복음을 받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쫓겨나고, 매 맞고, 족보에서 파내어지는 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 20년 전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저의 은사예요. 60넘은 노인네가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편하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넘은 노인의 주변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도망쳐 나와서 일가족이 교회 사택에서 한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들이 남은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라노라’고 용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주일 오후에 외국인 성경공부에 나왔던 공산권 출신 친구가 지난 주 졸업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교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대학교 교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 1년 정도 지내면서 거의 예수쟁이가 다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채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좋다고 하는 대학 교수직까지 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준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 뛰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 관중들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2. 몸이 가벼워야 한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몸이 가

벼워야지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옷을 많이 입고 잘 달릴 수 없습니다.

고대 올림픽에는 여자들이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가벗고 했거든요. 그 때에는 요즘같이 얇고 좋은 옷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옷을 벗어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좋아졌습시다만 한 때 수영선수들은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물의 저항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수영복도 몸에 꼭 달라붙는 것을 입고 시합을 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처럼 머리를 길러서 달릴 때 머리카락이 풀풀 날리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까지 다 뒤집어쓰고 달리는 것은 머리카락이 풀풀 날리는 것을 막고 빨리 달리려고 하는 거지요.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신는 신발 한 켤레가 우리의 아파트 값보다 더 비쌉니다.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다 없앤 값이지요.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려고 하면 죄를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뛰어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미 용서된 죄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짐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함으로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를 죄까지 기본적으로 용서가 다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옛날의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깐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옛날의 그 죄가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고 하길래 찾아보면 회개할 게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스러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거나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버림받거나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깨끗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예배에 빠지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날 재림하신다고 하지요? 비오는 수요일 밤이라고 부흥회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교회 갈려고 하니 비도 부슬부슬 오고해서 예배를 빠지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다고들 했습니다. 만약에 그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비가 온다고 집에 누워 있던 사람은 천국 못갑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천국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한 것을 마음 한 구석에 넣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셨다고 합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로 짝 발라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치 않는 사실을 새벽마다 일깨워드릴 필요가 없지요. 며칠 전 새벽에 딸의 책상에 보니까 조그마한 빵이 몇 개 있었어요. 이것 하나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지 싫은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낮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아빠 먹었어?' 잊어버리고 있는데 얘기하면 생각이 나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먹지 마세요' 하는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을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지요. 이런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3. 인내해야 한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또 뭐가 있나요? 1절 끝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고 건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참고 건디는 것이 필수입니다. 숨이 차다고 쉴 수도, 힘들다고 멈출 수도 없고 허리가 아파도 가야 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과정을 거쳤는지 아시면 그 경기가 더욱 감동스러울 겁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혹독한 과정을 건디어 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선수들의 이런 훈련을 가리켜서 지옥훈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자 선수는 시집가서 잘 산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웬만큼 험한 말을 하고 큰 소리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훈련 받을 때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두들겨 맞고, 더구나 혼자 잘 해도 안되고 옆의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하는 이런 훈련을 몇 년간 받은 선수들은 어지간히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하는 훈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메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이번 주에 특집방송 나오면 보세요.

사형수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 점점 커져버린 겁니다. ‘그 때 내가 한번만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형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잘 했더라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잠시만 자제하고 참았더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한 순간을 참지 못하여 사형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들 하는데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고 화가 나고 정말 원수 갚을 말을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4.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달리기를 잘 하는데 중요한 것 중의 또 하나는 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 목표를 보고 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있는데 영어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 시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예수께 고정을 시키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결승 테이프를 보고 뛴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승 테이프를 보고 뛰는 사람은 잘 뛴 수는 있지만 아주 뛰어난 선수는 뛴 수 없습니다. 결승 테이프를 보고 뛰면 테이프 가까이 가면 다 왔다는 생각에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진짜 선수는 테이프를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뛴다. 결승점 너머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뛰어야 끝까지 잘 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뛰면 시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집에 가서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고 한 발로 서 있어 보세요. 똑바로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흔들 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는 균형을 아무리 잘 잡으려고 해도 흔들거립니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점에 시선을 고정해 놓고 그대로 달려가야 더 빠릅니다. 혹시 누가 뒤에 오나 해서 뒤로 휩 둘러보는 사람 가운데에는 1등으로 가다가 2등이 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ROTC훈련 하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요, 훈련 장소에 들어가는 1년차 학생들을 그냥 안 들여보내고 고생을 시킵니다. 한번은 2년차 선배들이 ‘저 앞에 있는 여학생 돌고 오라’고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훈련생들이 여학생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가던 여학생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제발 좀 서주세요’ 하며 불러도 어떤 여학생은 영문을 모르고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한번쯤 당해본 여학생들은 제자리에 서 주는데 정신없는 여학생이 걸리면 애를 먹습니다.

흔들리는 목표는 뛰는 선수를 얼마나 애 먹이는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가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에 주는 주인 주(主)입니다만 원문의 '주'는 주인 주가 아니고 근원을 의미하거나 창조자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NT가 잘 되어있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되는 혹은 믿음의 창조주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출발이요 또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얼 바라보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간에 여러분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낯선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심각한 얼굴은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심각해 보이고 말을 붙이기가 힘든 인상을 주면 곤란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인상을 쓰고 근엄하게 다니시더라도 여기에 들어오시면 생글생글 웃고 다니세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서 나왔을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만 보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야 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열심히 하는 것도 잘 하는 일이고, 십년 뒤를 내다보고 오늘 참을 것 참고, 준비할 것 준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년이나 20년 뒤를 바라보고 산다면 저렇게 농땡이를 안칩니다. 요즈음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약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해도 헛일입니다. 이 땅에서 기껏 잘해야 30년을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30년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기를 똑같이 해도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설정해서 잘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마가 어디 있나?' 아니면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이것 저것을 보면서 갑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연수를 갔는데 거의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에서 외국 아이들을 받아서 영어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다 챙겨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아이들 15명만 모아서 연수하는 곳으로 데려오면 인솔자 한 사람은 무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학교에 광고해서 연수할 학생 15명을 모으면 자기는 공짜로 한 달간 영국 갔다가 옵니다. 똑같이 한 달간 갔다가 왔는데 똑같이 간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목표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이 작은 고난 때문에 선조들이 전해준 고난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 잘 참고 이기며 끝까지 이 경기를 온전히 마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준 앞선 주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의 그 놀라운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진 이 믿음의 계주를 저 사람들보다 흐리멍텅하게 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어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믿음의 훌륭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나 잘 해!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라 네 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갈게, 거리 갈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개역, 이사야 51:17~52:2]

지국어: 억양은 경상도 글자는 서울

우 리나라도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방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이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릅니다. 경상도 안에서도 포항쪽 말이 다르고 안동쪽 말이 아주 다릅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지국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 지국에 사는 아이들이 시내에 가면 시내 아이들이 말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안답니다. 그래서 지국어라고 한답니다. 지국어의 특징은 억양은 경상도 억양인데 글자는 서울 글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나 잘 해' 이것을 경상도어로 표현하자면 '니나 잘 해'입니다. 지국동 아이들이 시내에 가서 '니나 잘 해' 이러면 별 이상이 없는데 '니'를 '너'로 사용하니 아이들이 '지국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니나 잘 해' 이러면 저도 편한데 표준말로 쓴다고 해서 '너나 잘 해' 했더니 제가 어색하군요.

이스라엘의 엉뚱한 소리

너나 잘 해!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친구하면 해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나 잘 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 하라'고 하십니다.

어제 목사 고시 마지막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고시부 목사님들 중에는 평소에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만 목사고시에 면접을 보러 들어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분들이야 이런 저런 편한 얘기를 하셔도 저는 농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장소도 그리 만만한 장소가 못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입 안 다무나!'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서도 여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들어주시며 웃으시며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이 앞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복습삼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훗날 포로로 전부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젓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젓먹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 그 아이를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번에 말씀 드린대로 '길을 가다가 진흙구덩이가 움푹 팬 것이 보이거나 움푹 패인 반석이 보이면 너희가 어디에서 나와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구덩이를 보면 '그래 우리가 저 진흙이었지. 진흙덩이였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닌가.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진흙덩이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같으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너희를 왜 인도해내지 못하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장 1절에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 니나 정신 차려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제발 깨어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절대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17절, '여호와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일어설지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제발 일어나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예루살렘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입니다. 이 답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연결시켜 보면 '잠에서 깨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장도식으로 하면 '니나 깨!'라는 겁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주무시고 계신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항을 했던 너희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어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셨다가 중간에 보면 '일어설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큰 잔을 마셔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빨리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형편이 지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부축을 해주면 좋겠지요.

18절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를 부축해줄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옛날 신문에 자주 나오는 기사 중에 꺾치기가 있었습니다. 꺾치기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꺾치고 쓰러지면 주머니 뒤져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에 예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리랑치기인데 비슷한 겁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몸도 못 가누고 있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술취한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령, 술에 떡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린 채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일지는 모르지만 '너부터 정신 좀 차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너부터 정신 좀 차려라, 너를 도와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신없이 휘청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라' 내가 지금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앞쪽에 있는 술 취한 것과 자식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뒤쪽에 있는 황

폐와 멸망하고 기근과 칼입니다. 짝을 지어보면 황폐와 기근은 같은 것이고 멸망과 칼도 같은 의미입니다. 황폐와 멸망이 이르렀고 기근과 칼이 이르렀다는 것은 기근으로 황폐해졌고 칼로 멸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곧 '황폐해지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20절을 봅시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권책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서 아들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후원자인데 그들이 전부 그물에 걸린 영양 같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퉁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성경을 찾아보면 *head*, 즉 머리라고 합니다. 거리의 모든 머리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거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길은 성문에서 성안으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에서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맥을 못추고 뒹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멀리서 왔는데 성문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이튿날 성문이 열릴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성문 밖에 발이 묶인 채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꿈쩍 못하고 있는 신세가 되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있은들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지요.

21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했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걸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먹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아무 도움이 안되고 힘이 안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들이 부모님을 든든히 받쳐주는 재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받쳐주기는 커녕 거꾸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들들이 재산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평소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얼 믿고 사세요? 노후생활을 자식에게 기대하십니까? 믿는 게 이것저것 있을 것입니다만 제일 힘이 있는 게 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무얼 믿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노후를 행복하게 꿈꾸며 살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믿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리라, 날 보고 깨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가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나 여호와가 아니요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되리라는 거지요.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해서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쉽게 찾아집니다. 대부분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밖에서 찾으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밖에서 잘 찾는 답은 '재수가 없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재수'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잘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보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하지 아니하고 욕심만 잔뜩 내서 원서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 해결이 빠릅니다.

우리 집안이 늘 시끄럽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내 속에서 답을 찾으면 해결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럽고 이 모양일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 설령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닐지라도 내 속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면 해답이 빠릅니다.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속에서 답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성질 같아서 한 판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이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해서 하나님 찾고 재수 찾고 운수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네가 잘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

23절을 봅시다.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찌기 네게 이르기를 앞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면 너희가 당했던 이 잔을 너희 원수들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땅에 앞드리게 하고 넘어가던 자들입니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하라’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념고 다니면서 하던 말입니다. 몸을 웅크리기라도 하면 이 원수들이 ‘똑바로 안 펴?’라고 하면서 발로 밟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땅 같게 거리 같게 밟고 다녔던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2장 1절 중간쯤에 보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움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민족들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줄을 감고 끌고 갔던 그 자들에게 원수를 다 갚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약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해서 끝없이 사랑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이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못난 자녀에게 이렇게 달래가면서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에게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못나도 자녀는 자녀

얼마나 잘난 자녀냐 못난 자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난 자녀만 자녀고 못난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매일 칭찬 받는 아들 딸만 자녀이고 매일 잔소리 듣는 아들 딸은 자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못하면 못한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다 해도 그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편애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데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자부심을 버리

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야단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애를 쓰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잘난 자식만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힘을 내라

못난 자식도 분명히 자식입니다. 그 못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 자녀를 끝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진노의 잔을 너희의 압제자에게, 너희를 괴롭히던 자에게 다 쏟아 붓겠다고 하시면서 또 '깨라'고 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에서 '힘을 입을지어다'라는 것은 '힘 내라'는 겁니다. 51장 17절에서의 '깨어라 깨어라'는 '정신 차리라 이 놈아' 하는 말이지만 52장에 와서 '깰지어다'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 깨소서' 했더니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깨어라 깨어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다'의 의미가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그리 주무십니까 깨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나 깨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놈들이 정신 차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깨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왜 힘을 내야 합니까? 힘을 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끝내고 이제 힘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 왔던 외적의 침입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회복된 후에도 그 곳에 온전히 독립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요 외적의 침입을 여전히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50~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면서 각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했던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써 내려간 책들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지 이 땅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5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 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라는 것은 왕이 되라는 겁니다.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의 왕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왕으로 행세할 날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될 것이며 거기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슬프기 그지없는 고난의 이야기가 53장에 끝 납니다. 그렇게 고난 받는 종이 이 땅에 와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54장 1절을 보시면 '임래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여 서러움을 당해보지 못한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수치로 여기던 그 시절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 여자를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시절이 지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임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에 빛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

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65장 24-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52장에 곧 이어서 고난 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보좌에 앉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런 세상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틀거리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정신 차려라, 힘내라,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시는 겁니다. 전쟁영화를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더러 나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형하고 동생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은 만이이기 때문에 동생이 죽기를 각오하고 형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형, 내가 죽더라도 형은 살아서 돌아가야지. 힘 내!" 영화에서는 형이 죽습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힘 내! 정신 차려!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힘내서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데리고 돌아오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아 또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고 힘내 정신 차려 가자' 이 문맥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의 뒤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힘들어 하실 때가 가끔 있을 줄 압니다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던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만 힘들어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참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힘쓰며 마음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한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힘든 삶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시며 힘내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많은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말을 잘 하지는 않았습시다. 틀린 말만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은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도 책망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답변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잘 하면 좋지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스라엘보다 더 바보 같은 소리하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혹시 내 기도대신에 다른 응답을 주셔서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되십니까? 괜스레 기도하러 갔다가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무섭게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유만만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참 여유로운 답변입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니면 왜 이 모양입니까?” “너나 잘 해. 너나 정신 차려서 잘 해, 날 탓하지 말고, 이놈아!” 얼마나 여유로운 답변입니까? 한 주먹으로 날려버리지 않고 ‘정신 차려 일어나 가야지’ 이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하면 좋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하든 못 하든 하십시오. 잘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들을 것이고 못 하면 못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엉뚱한 소리에 그렇게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펼지니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법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개역, 신명기 15:1~1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 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부속품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지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살펴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

1절을 봅시다.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면제하라는 말씀과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면제년 한 해 동안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 해 동안에는 형제에게 꾸어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면제년 동안에는 빚 애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빚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나 교회에서 구제에 더 신경을 쓰고 더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구제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어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좀 더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제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겁니까?

형제만 구제하라? 이방인은 구제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해야지요. 그 중의 하나가 구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좀 주의

를 하셔야 합니다.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것 같으면 왜 형제의 빛은 독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에게는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3절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함께 사는 이방인도 같이 취급해야지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네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항상 면제시켜 주지 왜 하필이면 면제년, 안식년에 면제하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는 빌려주었다가 그 빛을 갚으라고 말해도 좋으나 안식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년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됩니다. 그러나 네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년에는 빛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 안식년은 일을 하지 않는 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일하지 말지니라’**고 말할 때 **‘이 날은 여호와와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 나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과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표하는 날을 왜 공휴일로 지정합니까? 공휴일로 지정해 놓아야 직장 쉬고 나와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레위기 23장의 **‘일하지 말라’**와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대회날이니라가 늘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서 만나면 손을 줌 봐야겠다?

안식일, 혹은 안식년이 단순히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 혹은 그 해에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골목에서 붙들고 빛 갚으라고 따진다면 그 형제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고 돈 빌려 가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 편하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년에 빛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부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네가 빌려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따질 일이 있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때에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거든 줌 따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만나 해결하고 주일에는 하나님만 기억하며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모두가 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혹 빛을 내놓으라고 조르면 일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에게는 빛을 독촉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이해가 금방 가실 겁니다.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합니다. 안식년이라도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빛을 독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민족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네 형제에게는 안식일, 혹은 안식년에 빛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뻗뻗하기는?

여러분, 돈을 많이 대여해 놓았는데 주일에는 빛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주일이 이 분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빛 얘기해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형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혹시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낫설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신자 또는 전도 받아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싶어서 살금살금 와보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낯선 교인이 왔거나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가 왔으면 옆에서 온갖 편의를 다 봐 주고 온갖 아양과 아부를 다 떨어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안식년에 빛도 받지 말라는 것은 예배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새신자가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근엄하고 분위기가 딱딱하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점잖고 체면 차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옆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체면도 지위도 잠시 벗어두고 푼 수잇 하면서 사람을 편하게 해 주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빛 받을 돈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빛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주일에는 빛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것하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웃으며 인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는 것이 잘 안됩니다만 빛을 갚으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도 포기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의 체면이나 권위를 잠시 접어놓고 낯선 형제에게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험한 말인지 모르지만 새신자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거나 무심한 얼굴을 해서 새신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새신자만이 아니고 날 쳐다보면 힘들어하는 형제를 불편하게 하면 그건 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엄숙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지 몰래 지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 모습이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온갖 미소를 다 띠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쩡그린 인상입니까? 웃으며 기도하면 안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다보니 인상을 쩡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지하고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엎드리십시오. 일어나서 형제를 대할 때에는 표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표정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여기에서 빛 얘기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편안하게 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을 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밥 먹다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왜 복이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가는 복은 얼마 안될 겁니다. 하지만 옆 형제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지 않는 행위는 정말 복을 차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데려다 놓았는데 내가 표정을 딱딱하게, 혹은 무심하게, 또는 실수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빛 얘기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찾아가서 화나고 속상한 것을 다 참아가면서 좋은 말로 달래기를 몇 번쯤 하면 교회에 나오니까? 쉬운 분도 있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십 번 찾아가서 온갖 화나는 것 다 참으며 달래서 한 생명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을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데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우리가 조심조심해도 우리 본의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내 성질과 체면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 사귀고 어울리는데 항상 좋을 수 없고 신경이 쓰이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마디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는 형제를 이렇게 대하라 했으니 꿇어오르는 속을 누르고 웃고 형제를 대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 개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형제를 위해서 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싸움도 별로 안 하고 착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격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착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물면 잘 놓지 않습니다. 고약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싸울 일이 생겨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따지러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기면 뭘 할 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저 분이 나한테 사과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고는, 따지러 갔다가 그냥 놀다가 온 겁니다.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성질을 죽일 수 있고 녹일 수 있다면 잘 하는 겁니다. 목사고시 치는 날 저녁에 차를 몰고 잠깐 어디를 갔다가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 성질나게 해서 차 문을 열고 소리를 좀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목사고시 치는 날인데 그것도 못 참고 화를 낸 것을 생각해보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교회 마당이나 교회 안에서 생겼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성질은 접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 형제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는 아들을 포기했는데 너는 그것 포기하지 않을래?’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포기했는데 너는 너의 성질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나?’ 이리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 성질 포기하고 자존심 포기하고 체면 포기하고 평소의 그 엄숙한 얼굴은 회사에 가서 하고 교회 와서는 포기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5절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4절, 5절로 가르치 않고 왜 붙여놓았는가 하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른데 이 긴 문장을 반으로 딱 자르면 영어에서 앞에 있는 것이 우리말에서는 뒤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 원문은 영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순서를 뒤집지 않기 위해서 4, 5절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세 토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 토막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토막이 되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세 번째 토막이 됩니다. 이 본문이 원문성경과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보려면 원문을 보기가 어려우면 킹 제임스 번역을 보시면 됩니다. 킹 제임스 역본은 원문과 순서를 거의 맞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토막에 있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가 맨 앞에 나와야 하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3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번역해보면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때만 예외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빚을 면제하라는 뜻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다른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가 없어지거든 그때에는 빚을 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안식년에 반드시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평년에는 넉넉히 빌려주라

그럼 안식년이 아닌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7-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퍽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독촉하지 않고 그냥 넘어 줬는데 그 다음 해에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돈을 좀 꾸어 주세요’ 그럴 때 하

나눔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넉넉히 꾸어주라고 합니다.

일 년 내내 빗 독촉도 하지 않고 면제도 해 주었는데 또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넉넉히 꾸어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돈을 향해 있으면 돈을 가질수록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질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라고 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못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돈을 빌려주면 내년에 받지 못하는데 하면서 눈을 흘기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책임을 네게 묻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돈에만 머물러 있다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돈 가진 티를 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시달려서 못 산답니다. 기부금을 좀 내라고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게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 줄 테니 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넉넉하게 꾸어주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받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면제년이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악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꾸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악념은 다른 이웃들에게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여기서의 악념은 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 꼭 하필이면 이럴 때에 돈을 빌리러 오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념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고 안식년이 되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즉 살 수 있게 해 주고 하나님 섬길 때는 섬길 수 있게 해 주라는 겁니다. 단순한 구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3.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라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5절의 중간부분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법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줄려니 '가진 게 있어야 도와주지요, 부자가 되어야 도와 주지요?'라고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방학이라는 것을 세어보면 한 달 넘는 방학을 40번 넘게 했습니다. 이번 방학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시작한 것 중에 해 놓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취미가 이것저것 좀 많은데 신대원을 가면서 다 끊었습니다. 오로지 성경공부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취미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가지고 있던 재주들이 방학 때에 배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방학 때에 배운 게 아니라 근무하면서 찝찝이 연습한 것들입니다. 한 때는 리코더를 열심히 분 적이 있었는데 근무시간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차에 앉아서 차 문을 닫아놓고 연습을 하곤 했

습니다. 무슨 애기인가 하면 시간이 없을 때 쪼개 가면서 무언가 한 것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이루었지 방학해서 한 달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안되더라는 애기입니다.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면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돕지 못하면 여유 있을때 돕는다는 것이 잘 안됩니다. '교회 봉사를 좀 하시지요?' 하니까 아이들 좀 키워놓고 하지요라고 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봉사는 아이를 업고 들고 뛰면서 봉사하는 그 분이 끝까지 봉사하지 아이를 좀 키워놓고 하려고 하면 끝내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어려운 가운데 형제를 돕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것 독촉하지 않고, 면제하고, 넉넉히 주면 정말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복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내가 돈을 따라 가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이 나를 따라 와야 그게 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는지에 대해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복이든 돈이든 그건 내 노력과 관계없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라야 그게 진짜이지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세술에 어둡습니다. 손을 비빌 줄도 모르고 아부할 줄도 잘 모르고 뇌물을 쓸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낙오자가 되었습니까? 잘 사는 곳에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높고 좋은 학교 일수록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컨닝을 많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학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컨닝이 아주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책상을 일 년마다 갈아야 할 정도입니다. 책상 위에 컨닝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빼곡히 너무 많아서 일 년마다 갈아야 합니다. 벽도 일 년마다 도색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김영길 총장님께서 학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을 믿자 그래서 감독을 들어가지 말고 한번 쳐보자하고 믿었더니 아이들이 컨닝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정직한 심성이 자라나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졸업한 아이가 어느 우수한 회사에 들어가서 연수중에 중요한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도 다른 이들은 컨닝을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본인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컨닝의 유혹을 뿌리치고 백지를 그냥 제출했답니다. 감독관들이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답을 적었는데 왜 백지를 내었는지 물었습니다. '몰라서 백지를 내었다'고 하니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진 정식 시험이 아니고 그냥 과정에 없는 시험을 한번 내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 백지를 내는 것이 정상이고 제출한 답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컨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그 회사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았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이리 저리, 다 뜯기고 어떻게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서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빌려주고 저기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빌려준 돈은 궁핍한 형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목숨과 관계된 돈입니다. 다만 투자를 하거나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빌려주는 돈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혹시 내 돈 때문에 장애가 되겠다 싶거든 그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데 혹시 내 자존심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타고난 그 뻔뻔함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권위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형제의 예배를 돕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 체면을 좀 버릴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면 버려야지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개성도 뚜렷하고 능력도 확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내 뜻을 굽히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대체로 이기적이어서 하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도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의 아이들하고 낮은 학과의 아이들하고 시험을 붙이면 커트라인이 낮은 아이들이 항상 이겨요. 머리 좋은 애들은 하나가 잘 안돼요.

여러분, 우리교회 성도들이 다들 능력이 있고 개성도 다양하고 주관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잠시 접고 형제를 돌보겠느냐고 물으시면 내 생각 다 접고 형제를 돌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독생자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뭘 포기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라고 하시면 우리가 뭘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뭘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11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형제 네 형제의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움켜잡지 말고 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을 열지니라’**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내 형제를 위해서 마음을 열 수 있나?’**라는 뜻으로 그 말씀으로 읽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까닭없이 잡혀간 내 백성?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축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을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개역, 이사야 52:3~12]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나이

제가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600만 불의 사나이였습니다. 600만 달러가 얼마나 되죠?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 60억이네요. 이 정도면 엄청난 몸값이지요. 박찬호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 더 나갈까요? 1년에, 1년에 1000만 달러랍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 울고 갈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를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몸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값없이, 돈없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세가 없는 걸까요?

이사야 메시지의 이중성

이 메시지가 속한 문맥을 한번 더 짚어 봅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다간 큰 일이 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가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무십니까?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면 “깨어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힘내라, 일어나라, 고향으로 가야지!”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친히 데리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임할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노래하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해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해방보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야의 오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과 바로 뒤이은 종의 노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포로 해방을 넘어서 이 땅에 메시야가 오셔서 모든 주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3절에 ‘이스라엘은 값없이 팔렸으므로 돈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값없이 팔려갔어도 종을 소유한 주인이 돈없이 해방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민족이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투쟁 덕분입니다, 아니면 일본과 싸운 연합군 덕분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일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투쟁 덕분에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피 값을 지불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도 그렇고, 소련의 무자비한 군대에 짓밟혔던 프라하의 봄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민족간의 치열한 싸움들도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포로에서 저절로 해방된다?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올 것이란 말씀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 해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무런 독립투쟁이나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해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풀려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온 지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던 백성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이나 열왕기의 기록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야단을 맞았는지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모조리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42명의 왕 중에 겨우 5명이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와 구원을 수없이 겪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군에 간 아들이 휴가를 와서 '가기 싫다'고 앙양거려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킁킁대며 나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 마음이 몹시 괴롭지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군복무를 해주겠어요, 공부를 대신 해주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댓가를 치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을 다 배워야 천국 갑니까? 아니, 몇 권이나 해야 갈 수 있나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를 보세요. 천국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거창한 노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는 곳입니다. 값없이, 돈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강도가 부러우세요? 그런데 왜 성경공부 하자고 이 난리를 칩니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길, 값없이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속하였다는 뜻으로 속량이라고 하거나, 혹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속하였다는 뜻으로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천국가는 방법이 쉽다구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돈없이 풀려나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잠깐, 앗수르를 혼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그런데 이 놈들, 내 백성을 괴롭힌 앗수르를 어떻게 하지?”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우거하였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거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던 때를 기억하십니다. “애굽에 잠시 머물러 있는 백성을 불러낼 때에 이것을 거역하던 애굽이 혼이 났었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앗수르는 어떻게 할까? 애굽에 살고 있던 내 백성을 내가 불러다 가나안에 정착시켰는데 앗수르인들이 까닭없이 잡아갔어? 더군다나 압제를 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앗수르인들이 공연히(?) 내 백성을 건드렸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내 백성을 까닭없이 잡아가고, 떠들며 나를 욕보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앗수르 군대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절한 아픔을 깨끗하게 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정말 까닭없는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유가 있지만 애굽이나 앗수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이나 앗수르가 한 것은 까닭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음에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까닭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거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베소서 2:1)**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탄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과를 깨끗이 도말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것을 자꾸 깨우쳐 드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징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이나 앗수르가 그렇게 해야 할 ‘까닭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사실은 용서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도 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알리라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은 잊어버리시고, 그 백성을 압제한 앗수르의 행위만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할꼬?’**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탄식조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뜻이 다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탄식이겠지만 능력 있는 분이 이럴 때는 **‘내가 개입해야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모독해도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잠잠히 계셨지만 이제 그 이름값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에게도 치욕스런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지만 이제 그 이름값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생한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앗수르는 대단히 강성했지만 곧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도 명이 길지 않았습니니다. 겨우 70년 만에 바사에

게, 그것도 하룻밤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바사는 200년 이상 유지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살지만 성도를 괴롭히는 상사는 명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서울로 이사 가셨는지 아시지요? “신앙으로 살려는 우리 남편을 고의로 괴롭힌 사람치고 현재까지 포철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까닭없이(?)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환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7절 이하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
의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
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축하셨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산을 넘는 자의 발, 파수꾼의 소리, 백성들의 노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 석방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발에 때가 묻었던 무좀발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쁨 뿐입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느라고 그 먼 길을 달려온 병사의 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려온 병사가 성문에서 고함을 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또 고함을 지릅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소리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감격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한 때는 우리를 버리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감격입니다. 고대에 왕이 궁을 떠나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백성들이 환영하는 마음이 그랬을까요? 광복을 맞아 “야, 해방이다” “일제가 항복을 했단다.” 6.25 동란 중에 공산치하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UN군이 인천에 상륙했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감격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이었습니다. 훨씬 더 감격스런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롬 10:15에서 인용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곧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산을 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축하는 사건이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열방’과 ‘모든 땅 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구경거리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든지, 이 소식을 전달받은 파수꾼이 되든지, 그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백성이 되든지 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좌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날마다 스트레스에 눌려 지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에 무좀이 있는지, 때가 끼였는지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산을 뛰어 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수꾼은 목이 쉬도록 외칩니다. 그래도 피곤하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정결케 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친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습니까?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을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정결케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무엇으로 마감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막 진군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원이 물살을 당할 위험스런 곳에서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명령입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정결케 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백성이 돌아온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단순한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만 정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목사, 장로만 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소리 질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53장에 고난 받는 종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분의 수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밀명(密命)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너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서 성들 위 곧 예후의 밀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개역, 열왕기하 9:1~13]

열왕기와 왕비열전

여 인열전이나 조선왕조실록 또는 왕비열전,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니까? 분량이 많은 편인데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읽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미는 있지만 영양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배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나 자기 욕심을 이루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찌면 험난한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양가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는 왜 읽어야 할까요? 왕비열전을 위시하여 왕들에 대한 책이 참으로 많은데 열왕기는 그런 책들과 좀 다릅니까? 왕비열전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열왕기는 영양가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징계를 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랐지만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얘기가 열왕기입니다.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더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해본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난 자식을 사랑해서 가슴 아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야단치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런 백성을 상대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니까 재미있을 것 같지요? 잘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못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지 않았으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망해버린 역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노력,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 열왕기를 읽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가 아합왕 때였지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여호와 신앙이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마을마다 레위 자손들이 하던 일들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천명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 것으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버르는 바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득세하고 아합이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을 적국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목표는 아합의 집안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의 겸비함 때문에 아합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밭에서 선고하신지 20년이 지나서 이세벨과 그 아들들에 대한 징계를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겼던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엘리사가 키운 이웃나라의 왕 하사엘이 몹시 괴롭힙니다. 백성들은 이 하사엘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엘리사, 하사엘, 예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1.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과 왕들을 징계하기 위해 예후를 찾습니다. 징계를 가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들만 골라서 때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혼자서 징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명령은 20년 전에 주어진 명령인데 예후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그 일을 감당해낼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약 65km 떨어진 변방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원래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다가 아람에 빼앗겼습니다. 이걸 되찾기 위해서 아합과 여호사밋이, 이스라엘 남북이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합이 피를 내어 왕복 대신 사병 복장을 하고 여호사밋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밋은 무사하고 피를 쓴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 대에 와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여호사밋의 손자가 되는 아하시야가 힘을 합쳐서 또 싸우러 간 겁니다. 그 때의 아람 왕이 하사엘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사엘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서 싸우는 도중에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후송되어 가니까 함께 갔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위문겸 따라갑니다. 그러면 적군과 싸우는 전쟁터의 총사령관은 예후입니다. 왕이 자리를 다 비운 전쟁터에서 예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전선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으로 있는 예후가 마음만 먹으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치려합니다. 아합의 집안을 치기 위하여 이웃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두 나라가 싸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결국은 군대장관인 예후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바로 이런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 아합의 집을 치는 걸 보면 과단성도 있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이루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집을 치기 위한 좋은 장점을 예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후를 찾아서 선지자의 생도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겁니다.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모세를 준비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건져내다'라고 붙이게 한 것에서 벌써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광야로 망명 갔다가 80세에 백성을 이끌어 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선교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셨는지 보세요. 양쪽 문화에 통달한 사람을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익히게 한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 하실 때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농땡이나 치고 느긋하게 누워서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게 여기기보다는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5-26절을 보시면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벌써 2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는 것을 예후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귀한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고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병을 움켜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만 하고 장로와 집사들은 하지 않는 겁니까? 사역의 분야가 다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전도대상자인 불신자들을 누가 더 쉽게 만납

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며 함께 어울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목사가 언제 불신자와 사귀면서 전도할 여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안 믿는 애들하고 친구하면 아이를 버린다고 사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반항 기질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과 어울려서 물드는 게 아니고 내가 물들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못 가는 데 없이 다 다녔습니다. 포항에는 강패 비슷하고 결렁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잘 사귀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은 나쁜 아이다 해서 다 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물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 믿는 이웃들과 사귀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적절하게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 가면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장이나 반장 할 기회가 있거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가셨던 이선옥 집사님에게 “반장만 하지 말고 통장을 좀 하라.”고 했더니 통장하면 전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본인도 하고 싶대요. 그런데 말뚝 통장이 있어서 통장직을 내어놓지 않는대요. 그 분도 시내 큰 교회의 권사님이시랍니다. 여러분, 통장, 반장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면 반대로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쉬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장, 반장을 시키면 길으로는 못이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좋아라 하고 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후가 장관으로서 전쟁에 몰두하고 있고 왕이 후송되어 가고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가만히 불러내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고는 그냥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예후의 몫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결단은 예후의 몫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예후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세요. 그 결단은 예후가 해야 한다는 뜻에서 골방에서 이러는 겁니다.

경우를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골방이 아닌 전 장수들이 다 모인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예후가 결단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하 장수들이 그것이 옳다고 한 두 사람이 나서면 예후는 꿈쩍없이 부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성경쟁이라고 합니다. 충성경쟁이 시작되면 예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왕이 되어야 하고 떠밀려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내가 나서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예후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으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를 불러서 골방에다 넣어 놓고 그 명령을 전하고 선지자는 가부를 묻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는 가운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6-7절을 보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혼자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넘어가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그런데 사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고독한 결단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들은 사울이 이런 결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런 결단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전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리저리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갈까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교하러 갈건지 말건지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단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에 놓아두고 나를 돕도록 하고 싶으나 이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 보내는 것은 너의 선함이 역지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면 내가 다시 나에게로 돌려 보내줄 것을 내가 확실한데 그런데도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오고 가는 위험과 시간, 그 동안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를 보내는 것은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면서도 너의 선함이 역지가 되지 않도록’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역지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예후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드디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려고 움직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게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예후가 모든 사람을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고 합니다.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갚는 겁니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예후가 치는데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멸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아합의 집안을 찢니까? 치기는 하나님이 하는데 **‘예후 네가 나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가 구해 냅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내십니다. ‘에스더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개가 한 말은 **‘내가 가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가서 드러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헌신하고 사라지라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왜 급하게 도망쳐 버립니까? 안중근 의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쏘아 죽이고도 당당했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치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냥 깨끗이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전쟁터에까지 찾아와서 내게 기쁨부어준 그 선지자에게 감사해서 한 자리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라지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심부름을 할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이 명령만 전하고는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모세가 무슨 보답을 얻었습니까? 모세의 아들들과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했는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헌신하고 깨끗이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세례를 베풀었던 목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소식을 몰랐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크게 일구어 놓았던 교회와는 영 동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교회는 한 번씩 가 보는지 여쭙어 보았더니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않는답니다. 오는 전화는 받지만 전화도 하지 않으시고 연락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젊음을 다 바쳐 일구어 놓은 교회인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깨끗하게 물려주고 멀리 떠나와서 혼자 따로 계신 거예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임무만 다 하고서 깨끗이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해 오기까지 고생하고 제일 헌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때까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 깨끗이 잊으십시오. 기득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때까지 일 해 왔으면 일 하는 것으로만 감사하고 발언권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몇 십년간 헌신했던 분하고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분하고 누가 발언권이 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처음 교회에 나온 이 분이 나보다 발언권이 더 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 현금을 많이 했던 분이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돈을 얼마나 현금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고 깨끗이 사라지는 이런 자세가 선지자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덕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나라는 그 감격에 그 분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천국의 언어로 보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감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성경말씀으로 왔든 설교를 통해서 왔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밀명은 비밀스러운 명령이란 말이지만 조금 더 부연하자면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왕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습니

까? 아무래도 안되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진짜 왕을, 제대로 된 진짜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이래서는 안되겠다 제대로 된 왕을 보낼테니 한번 해 보라고 보내신 제대로 된 왕,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일으켜서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제대로 된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신 것이 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아들의 수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 같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져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죄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개역, 이사야 53:10~54:3]

현 충일이 뭐하는 날이에요? 아이들처럼 ‘노는 날’ 하다가는 큰 일 날 수도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아들이나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현충일이 되면 먼저 가신 그 분들을 기억하며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의미는 잊어버리고 ‘노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잘못하면 아직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단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현충일이 그런 날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을 용감하게 전쟁터에 보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민족을 위해 죽으라고 하신 분도 더러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잘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화랑 관창의 경우도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린 아들이 용감무쌍하게 죽음으로 해서 신라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죽으러 가라는 아버지가 체 정신입니까? 민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을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런 분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꺼이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던졌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충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분들을 기억하면서 조기도 달고 엄숙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현충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충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충일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현충일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 분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엄숙하게, 그들을 묵상하며 지내야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현충일보다 우리에게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날은 오늘 아니겠어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날을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로서는 현충일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벚꽃도 한창이라는데... 어디 맛있는 것 사 먹으러 가려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참자’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은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주간입니다. 우리가 벚꽃 구경 좀 못 가고 맛있는 것 좀 못 사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뭐 하려고 이 고난주간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죠?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로 질고를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함, 질고, 정도가 아니라 12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들을 죽을 장소로 내보내기를 원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소원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종종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잦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내가 또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그 일을 또 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 자주 하고 한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 아녜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한탄하셨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참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독생자까지 희생을 시키셨느냐? 이걸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에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그걸 무능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에 보냈는데 아들이 죽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보낼 건데?’ 이런 후회라면 이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중팔구 죽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보내는 것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에스더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갑니다. 무능한 겁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집가실 때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갔는데 가서 며칠 안 지나고 보니까 아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할 걸! 꼴에 저것도 남자라고... 누군 성질 없나?’ 이건 무능한 겁니까. 아니 남자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무능한 겁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갈고 닦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결혼해야지, 결혼만 하면 아름다운, 께가 쏟아지는 생이 있을 것이라고요? 바보입니다.

남자들은 장가만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장가갔는데 정말 행복하네? 그건 복이 엄청나게 쏟아진 것으로 알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부인은 속을 얼마나 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부인이 그렇게 속 끓이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정말 멋지네? 인생 너무 즐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을 많이 받은 셈이지만 현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결혼하고 났더니 ‘속았네?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사람인줄 몰랐는데?’ 그것도 무능한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암전한 병아리인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완전 싸움닭이네? 여러분, 영어로 공처가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암탉에게 찌힌 수탉이 공처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참 보드라운 병아리인줄 알았는데...?’ 날마다 찌힐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간되라고 이런 사람 붙여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결혼입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갔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걸 무능이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도 기어코 결혼해서 고생고생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 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고생길로 들어가서 때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집에 시집오나 바라’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며 결국은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 그 길로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후회한다 후회한다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화 로보캅 있죠? 로봇을 만들 때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하게 만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주인이 악당 노릇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내 말은 무조건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로봇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아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 순종하면 안되겠구나’ 하면 그 로봇이 나중에는 악한 주인에게 대항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이 없는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서 잘 키워 놔도 이들이 살찌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 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7, 800년 후에 포로로 잡혀 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긴 노래를 가르친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로 들어가시고 결국은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52장 끝에 한번 보세요.

5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열왕들이 놀라서 입을 다뭍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니...’ 왕이 입을 봉해 버렸다는 겁니다. 열왕들이요. 여기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라는 것은 난외주에 보시면 ‘열방에 뿌릴 것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피를 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열왕들이 놀라서 입을 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들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열왕들이 입을 봉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중계방송에 매달려서 예배도 빼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희생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천사들도 또 그 소리를 들은 열왕들도 입을 봉하고 할 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절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더라는 애깁니다.

12절 중간쯤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아들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것은 범죄자로 인정되어서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이 그

것을 따라 갔다는 뜻입니다.

10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상함 받고 질고를 당하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부채에 대한 상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저질러 버린 그 빛을 상환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 해도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죽으라는 걸 순종합니까? 죽으러 가라는 아버지 말에 기꺼이 죽으러 가는 것이 제 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 순종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도 사랑의 결과였다면 아들의 순종도 여전히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이삭이 스물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스물이면 아버지는 120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물이 없네요?” 아버지가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너다’ 그런데 차마 말 못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먼저 묶었을까요? 다리를 먼저 묶었을까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삭아 저기 보라!” 하고 뒤돌아 볼 때 뒤통수를 딱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묶었다고 그러대요. 손을 먼저 묶었겠어요? 발을 먼저 묶었겠어요? 정답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묶었거든요. 되는지 안되는지 집에 가서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시범해 보세요. 손을 묶는 게 쉬울지 발을 묶는 게 쉬울지. 안 묶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묶여서 단 위에 놓였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이삭이 반항하면 묶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랬을 때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삭 보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본 좀 보라’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런 명령에, 그런 부탁에 이삭이 순순히 묶여 졌느냐 말이에요. 평소에 아버지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잠깐 정신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지만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또 그런 아버지 앞에 순순히 묶여서 누웠는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주신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꽤 오래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요. 통일교에서 신문 한 면 전체를 통일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때 타이틀이 ‘누가 예수를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는가?’ 였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의 관원들이 그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고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구절 바로 뒤 구절을 읽어보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다,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 일을 마무리 하러 왔노라’ 하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수 하러 온 분이 누구예요? 문 모씨!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의로 죽으러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뚜벅뚜

벽 걸어가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순종해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와 분깃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냥 죽어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없어질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실패라면 그 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54장 1절 보십시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다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래하라는 겁니다. 언제 노래해요? 이게 무슨 노래겠어요? 누구에게 노래하라고 합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그 조금 뒤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적도 아이를 낳는 수고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노래 부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노래겠어요? 감격에 겨운 노래입니다.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래 제목이 ‘와 이래 좋노?’ 아닐까요?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뭘 때문에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릅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이 여인에게 많은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뭐라고 그러나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집 좀 넓힙시다. 큰 집으로 이사 가십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러죠. ‘휘장을 널리 펴라’고 그러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던 나에게 많은 자녀가 생겨서 ‘이런 좁은 집에 어떻게 삽니까? 집 넓힙시다.’ 마음껏 넓혀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남편도 없는데 생겨난 수 많은 자녀, 바로 이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알았다 한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능력도 없는데 자식만 많아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장막과 휘장에 관한 이야기이고 거할 성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많은 자녀를 줄 것이며 장막터를 넓게 잡고 거처를 넓게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와 성읍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잉태한 적도 없고 구로치 못한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노래하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요? ‘와 이리 좋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나?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현충일도 함부로 노는 날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기억하며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낼까를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고 저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한 주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날 도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우리와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신 이 하나님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그 아들이다 그죠? 그 말도 안되는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도 생각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갚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부러 먹으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열한 사도와 밋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개역, 누가복음 24:13~35]

책

을 내면서 흔히 하는 말이, ‘책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스러운데 또 한 권을 보았으니 독자들에게 어느 것을 읽어야 할지 머리만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 입니다. 어제 임직식을 치루고 드디어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한편으로는 ‘많고 많은 게 목사인데 다 읽은 목사를 한 사람 더 보텐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대원 면접 때도 그랬고, 강도사 면접 때도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고 물었습니다. 대충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죽으려고 오신 예수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을 의식한 생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미리 수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으니 살아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부활을 믿고 갔던가요? 아닙니다. 단지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작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이 가리운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서도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못 알아보다니...

16절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와서 동행을 해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가리웠으니 보아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들 무엇 합니까? 못 알아보는데...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예고를 했고, 심지어 살아났더라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눈이 가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술래의 눈을 가리고, 술래는 박수 소리만 듣고 다른 아이를 잡는 놀이와 비슷합니다. 훌쩍 뛰면 잠을텐데 살짝 살짝 손을 뻗으면 만날 술래밖에 못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힐 각오를 하고라도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각종 훈련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계시면 만날 술래나 하는 거지요.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도전은? 바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슬픈 자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픈 겁니다(17절). 최고의 기쁨을 옆에 두고도, 놀라 기절할 만한 기쁨이 옆에 있는데도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닐까요? 마치 하갈이 사막을 방황하면서 샘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죽는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발견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창 21:19). 우리 인생의 슬픔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밖에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눈이 가려져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이유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오년째 참석하고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공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줄 몰랐다." "신명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 이런 탄성을 지르는데 그런 성경책을 옆에 끼고 뭐 하세요? 슬퍼요?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게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야단맞기 전에, 성경을 펴세요,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간 큰 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면 간이 커집니다. 18절 보세요. 되레 예수님을 보고 딱하다는 뜻이 '그것도 모르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을 혼자서 모른단 말입니까?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 '가로되 나 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도대체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아닙니까? 눈이 작으면 간이 크답니다. 보이는 게 없어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도대체 뭘 보는 겁니까? 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눈을 뻗히 뜨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 최고의 복을 받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그 유명한 사건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나사렛 예수의 일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글로바에게 우리 같으면 "니 지금 누구 보고 그 따위 소리하고 있는지 아나?" "에라, 이 놈아!" 하면서 글로바의 뒷통수를 한 대 탁! 때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속도 좋습니다. 어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도 시치미 뚝 떼고 듣고 계시는가요?

성경이 뭐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미련 콧등이 같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고 부드럽게 차근차근 전체 성경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27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글은 율법서를,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모든 성경은 성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위대하며 누가 위대한 일을 하였으며...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일의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눈은 어두워도

그래도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는 짐짓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눈은 어두워도 손님 대접하는 예의는 있네요. 예수님은 짐짓 탄척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대접이라도 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 작은 감사가 결국은 예수를 알게 해 줍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30-31)'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깨닫고는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날이 저물어 자려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즉시 밤길을 더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열한 사도와 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도 할 말이 있잖아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도 신이 나서 떠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야단맞은 얘기는 했을까요? 한참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신 이야기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즐겁게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말씀과 기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기도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말씀을 풀어주어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뜨뜻해지기는 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고 난 후에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6-7, 26-27, 44).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리워진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의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나 전도에만 열심을 내는 이상한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굳이 목사가 돼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타 전문이었습니다. 몸으로 떼워야 하는 일든지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뺑뺑이하면 웬만한 구멍은 메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았는데 굳이 목사가 되어야 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잘 하는 목사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 보기에 이 부분에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떤 선배가 “넌 왜 졸지 않니? 다들 졸고 있는데 너만 눈이 또록또록 한 게 몹시 밍더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저녁에는 잘 조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신앙 문제는 인생 문제든 간에 도무지 왜 흔들리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도 하는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하나님을 안 이후 한 번도 의심이나 번민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앞으로 가다가 뒤로도 간다는데 제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선 근처 산 위에서 토치가 공사를 할 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자갈을 나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자갈 하나 흘리지 않고 열심히 날랐답니다. 그때 과로해서 늑막염을 앓았고, 결국은 후송 가서 의병제대를 했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했을까요? 칭찬할 사람도 상줄 사람도 없는 데?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보았는데 몇 명 있더군요. 공통점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배웠고,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잘 배웠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저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절 보고 장가 잘 갔다고 하시는데, 잘 갔다고 말하지 않아도 잘 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대충 짚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인 줄 아세요? 잘 골라서 그런 거라면 그런 재주를 배울 생각을 하셔야지요. 제가 믿기로는 대학 다닐 때 고등학생들 잘 가르쳤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쳤거든요. 또 그럴만한 짓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의 예방약입니다.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게 만병예방약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오래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영육간에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7년째 접어들니다. 전도사, 강도사, 드디어 부목사로... 왜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더 큰 교회로 가서 경험을 쌓으라고 충고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꿈쩍을 않는 걸까요? 집이 가까워서 그럴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집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대원 가기 전에 그렇게 해둔 겁니다. 후일에, 아무래도 나는 목회에 바쁠테니 혹시 집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아야 할 상황이 되면 집사람이 쉽게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해둔 겁니다. 저 집은 언제든지 팔아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도사에게 매 주 설교할 기회를 주고 은혜롭게 경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아마도 제가 가장 감사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의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성경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

들을 집사님들이 잘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몇몇 분들은 성경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요즈음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사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경 쓰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 때문에 굳이 목사가 되었으니...

눈이 가려진 술래가 어떻게 다른 아이를 잡지요? 넘어지거나 부딪힐 각오를 하고서라도 훌쩍 뛰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슬픈 인생이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이야 교회에 각종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이에?’ 슬프고 외롭게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요.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도전은 우선 성경공부에 뛰어드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굳이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보니 이런 날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임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너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죄수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 같이 너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같이 너 [개역, 이사야 54:1-10]

옛날 어렵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도무지 살 방법도 없어서 약을 먹고 죽어 버리려고 했더니 코흘리개 아이들이 생각나서 약을 못 먹겠더라. 아이들 다 버려두고 도망을 쳐버리려니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가 도망가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교회 욕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도망도 못가겠더라.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았다는 얘지요.

도저히 안 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송도 바닷가에 갔었답니다. 겨울예요. 그런데 도무지 추워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어렵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당당한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러다보니 옛말 하면서 걱정 없이 살게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옆에서 장단을 맞추죠? '다 세월이 약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무슨 별 뽕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던 과부에게 수 많은 자식이 생깁니다. 또 최고의 남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꿈같은 날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불쌍한 과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1절에 보시면, '임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라고 말합니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이 키우는 수고를 해 보지 못한 홀로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복장 편하지?' 이런 세월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것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우리에게 아이만 낳게 해 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본문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참혹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식만 낳게 해 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어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4절 중간쯤에, '내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합니다. 청년 때의 수치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의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청년 때의 수치라는 것은 한창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배부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잘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적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되고 먹고 살만 하면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청년 때의 수치입니다.

힘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청년 때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젊은 때에 열심히 바람피우고 제멋대로 살던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본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부인에게 듣는 말이 있죠? ‘한창 때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왜 찾아왔느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하는 청년 때의 수치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한 것이 ‘과부 때의 치욕’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신실치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치욕스럽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민족으로부터 고통스런 압제를 많이 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6절 뒤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 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싯적에 버림 받은 아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싯적에 아내된 이스라엘을 왜 버렸을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소싯적에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을 버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사고 뭉치입니다. 그 사고뭉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뒤통수습하기에 바빴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월을 얼마나 지냈습니까?

사사시대가 400년이 조금 넘고 왕정시대도 400년을 조금 넘어갑니다. 그 긴긴 세월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던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제대로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픈 과거를 치료하고 다시 그들을 불러내겠다고 합니다. 소싯적에 아내 되었던 그 여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남편을 만나서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부정함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절대 안 버리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까? 정상적이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집 나간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 방탕해 버린 그 아들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뭣 하러 왔어요? 취직하러 오는 겁니다. 도무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젠 아들로서는 못할지라도 종노릇이라도

하면 거기서는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데 취직하는 것보다 여기 취직하는 것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옛 정이라도 안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는 취직도 안되고 그나마 이곳은 취직하기에 유리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왔더니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밥이라도 얻어먹고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찾아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귀하게 세워버린 것입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자고 찾아온 거지를 아버지가 아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손 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과의사는 암에 안 걸리지요? 어느 내과 의사의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줄 아십니까? "네가 의사냐?" 그래요. "네 마누라 하나 못 챙기는 네가 무슨 의사냐?"는 겁니다. 본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 못하는 수도 생깁니다. 괜히 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웃으며 살면 암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인상 험악한 분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세요. 웬만하거든 웃고 사세요. 왜 그렇게 험악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시장 근처에 오래 있었습니다. 재미있대요. 지나가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이 웃고 즐겁게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유독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왜 저렇게 인상 쓰고 길 가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웃으며 사는 분에게는 병도 훨씬 적게 걸립니다.

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의사도 손 못 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지만 때로는 건드리기만 해도 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만세 부르고 있는 아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고는 끝에 **여호와와 말이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1절 끝에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래 놓고 **여호와와 말이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어떻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 보실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를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끝에 보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끝에 늘 붙여 놓는 말이 **여호와와 말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제법 있긴 합니다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결정적인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분이 그 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끝에 붙이는 말씀이 **여호와와 말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보니,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월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지난날의 그 치욕과 수치를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보고 뭘 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책임지고 다 하신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수치를 그냥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린다는 말입니까? 54장을 읽을 때에 주의하셔야 할 것은 53장에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얼마만한 고난을 받을 것이냐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바로 뒤에 해 놓은 이야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신 당한 그 고난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건 몰랐건 자신들이 저야 할 죄값을 대신 저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뒤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각종 제사는 예수님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고 제사 때 드렸던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형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천사도 일종의 귀신이니까 붉은 것을 보면 겁을 낸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도 없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에 피를 바른 것과 동지에 팔죽을 썬서 붉은 죽을 뿌려 악을 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지에 팔죽을 썬고 뿌리는 것이 정말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에 그 집을 넘어간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았든 몰랐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수치와 치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잊어버리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종의 희생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 자식들이 ‘어머니, 우리 집이 좁습니다. 좀 넓히시다.’ 그래요. 장막 터를 쪽쪽 넓혀 나가는 겁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살던 때와 비교해 보면 도대체 이 많은 자식들이 어디서 났는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낳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또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던 이 여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야말로 꿈같은 복이지요. 그러면서 남편마저 찾아옵니다. 홀로 된 이 여인에게 남편이, 그것도 최고의 남편이 생기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남편이 생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그가 네 남편이시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던 여인에게 수 많은 자식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분이 남편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실 때는 정말 크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참 손이 큰 분입니다. 정말 큼니다. 7절 보실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지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갇으실 때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라고 말하면 ‘그것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갇으실 때는 얼마나 큰 것으로 갇겠느냐는 말씀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운 겁니다. 갇으실 때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잠깐이지만 회복시키실 때는 정말 크게 갇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실 때는 본심을 잘 안 드러내야 하는데 징계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9절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 위를 침몰치 않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노를 발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들이 개과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심판을 했다가는 씨도 안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한다고 해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면서도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번 한번은 징계를 했다가는 다시는 징계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해결책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징계를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산이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 하면 자꾸 산을 옮깁니까? 왜 자꾸 산을 옮겨가고 산을 바다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이진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해도, 말하자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절대 없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이나 산이 옮겨진다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회복을 노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가기 한참 전에 너희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이런 일을 당해서 포로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실컷 혼나고 돌아서지 말고 미리 돌이키라는 뜻 아니겠어요? 매 맞고 고생 실컷 하고 그렇게 회복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이런 저런 고생을 한다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 말 듣고 돌이키는 아이는 복된 아이입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데 꼭 스스로 경험해 보고 그때 가서 안되면 그만 두지요? 괜한 고생 꼭 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그런 고생 다 겪고 난 다음에 늦게 깨닫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선지자는 애절한 마음으로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미리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저 밤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돌아왔던 그 아들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이 고난을 다 겪고 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이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약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받게 되리라고 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시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 안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더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게 해 주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절로 알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희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그들을 통해서 받았습시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써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먼 훗날 그들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 왔느냐?’고 감격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흔히 하는 말처럼 살다보면 이런 날이 또 오는 거지요?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약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날도 왔구나’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날도 올 줄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혹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나온 것도 없고 어떻게 본다면 그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원한 그 나라가 예약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현찰이 좀 들어있으면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덜 고파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데 한 끼 굶으면 훨씬 더 곱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머니에 현찰을 두둑히 넣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불신자들은

주머니가 박박 말라버려서 지금 먹고 있는 것 저것 하나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불쌍한 처지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복도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걸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재한 여인들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푸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역, 누가복음 24:1~12]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왔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일 큰 소원이 무덤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뛰어가긴 갔지만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만 해도 다행이겠다 싶어서 뛰어 갔는데 정작 시체는 못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황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그렇게 표현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죽은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남편이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큰 황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를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기쁜 일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신경 썼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자기 재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돈 써 가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죠.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서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실 때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여자들이 따라가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극 정성으로 가르쳤고, 그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런 저런 당부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미리 귀띔했음에도 이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그 때에 이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고통도,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이 혼자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때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기억하면서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마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새벽 일찍이 향품과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벽이 아니라 낮이라도 무덤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누구라도 새벽에 무덤을 찾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가면서 이 여자들 생각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저 무덤문을 어떻게 열지? 더구나 로마병정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가 봤자 문 못 열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 아니 생각은 그런데도 안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을 열 방법도 없지만 어쨌든 가 보자 그래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대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여자들이 가 봐도 별 수 없을 터인데 가게 만든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니깐 '잘 안 되겠다' 해서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해서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입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생각보다는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까?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머리보다 가슴이 더 뜨거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찌면 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뛰어갔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만큼 용감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 형을 끝까지 눈으로 다 보았던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무서웠던 로마병정들조차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자들을 보통 여자들이 아닌 특별한 여자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나요? 반대로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 없던 놀라운 힘이 생겨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얌전하고 약해 보인다고 그렇게 약한 줄 여기지 마세요. 남편이 못 받아온 빛을 부인이 가서 받아오더라구요. 겉으로 약해 보인다고 그렇게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자들 보세요. 간이 커도 보통 큰 겁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잠하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린 남자들 말고 이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교회 건설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장에서도 여자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자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약해 보이고 뭐 잘하는 게 있을까 싶어도 열심 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해치웁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힘이 없어서 큰일인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만 있어도 힘이 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만들어 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키워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별 힘을 못 쓰는데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힘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평소에 없던 힘도 나는 남편이 되라고 아마 서로를 갈라놓지 않았나 싶어요.

남자들이 여들도 제 몫을 감당하는 자들로 키워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인이 아마 초보운전 때문이 봐요. 초보운전 시절에 차를 끌고 나가서 남의 집 담벼락을 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소식을 듣고 뛰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얘기 같으면 제가 소개를 안 드리는데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와서 한 얘기가 '다시 타라, 그리고 당신이 운전해서 빼내라.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손 놓아 버리면 당신 평생 운전 못한다. 타라, 빼내라.' 그래서 부인이 다시 올라가서 빼냈습니다. '만약에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 분은 연약하게만 보이는 부인을 강하게 키워가는 남편입니다.

제가 아는 참 훌륭한 남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부인은 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내가 수습을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 없으면 시내도 못 나간대요. 원래부터 그랬느냐니까 아니래요. 모든 일을 남편이 다 하고 부인에게 하나도 넘기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보니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어설픈 사랑의 결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힘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슈퍼우먼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새벽에 로마병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덤문을 뚫길 힘도 없는 이 여자들이 새벽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은 제가 보기에 참 어설픈 사랑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억을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뛰어났더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느냐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본문 5절 뒤편부터 찬찬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천사들이 야단을 치니 그제서야 ‘아 맞다 그때 그러셨지’ 그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이 여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대로 사랑하노라고 뛰어간 겁니다. 말을 바꾸면 헛일 하러 간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의 사랑도 참 그런 방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듭니다.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손들어 보세요. 이거 별로 안 듭니다. 분명히 남편은 사랑을 보냈는데 부인은 사랑을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새어버렸습니까? 어디로 빠져 나갔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할 바만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어야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직장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오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봉급 타면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집사람 통장으로 짹 짹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넣는데 부인이 뭘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밥만 먹고 사나?’ 아니 남편은 남편대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인이 받고 싶은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남편은 나름대로 사랑을 줬는데 부인은 받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했음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꼭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

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의 사랑이 좀 어설픈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왜 무덤에 찾아갑니까?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왜 시체에 바를 향유, 비싼 기름을 준비해서 뛰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조차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그 분이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리저리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결국은 실수하는 거죠. 말씀에 신경 쓰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그들이 정작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시체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쓸데없이 예수님의 시체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정작 본질적인 요소를 놓쳐 버리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아파하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열심을 낼 때도 본질적인 요소를 제쳐놓고 절차상의 문제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 거기에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저 헛일이 되고 맙니다.

바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서 주는 밥 먹고 그냥 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일찍 포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누릴 복이 아닙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땀이 흐를 만큼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무슨 일에 바쁘지는 꼭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 계시는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일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빠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은 일꾼들에게 맡겨 놓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테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요소에 정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여자들의 탓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 한 애긴데 이 말을 정확하게 듣고 기억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도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 듯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마 정신착란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라고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놔두고 그래도 열심히 품었던 이 여자들마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엉뚱한 열심을 어떻게 갚아주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셨나요? 아뇨 귀하게, 정말 귀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이 여자들이 받은 복이 뭐니까? 한마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첫 증인 혹은 첫 발견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사람을 해아릴 때 여자는 안 넣었잖아요. 여자들이 봤다고 증언을 해도 인정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여자들이었다고 복음서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 광고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등은 영원히 기억되지만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마는 어쩔니까? 사람들 사회가 그런 걸요. 최초의 발견은 유명하지만 똑같은 사항을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첫 증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대접이냐는 겁니다.

큰 도시에 대형예식장을 지으면 잘 보아두었다가 ‘저기서 제1호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 하고 가보시면 잘 안됩니다. 모 예식장은 누가 결혼했던 곳이라는 소문을 냅니다. 1호라는 것 아무나 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대단한 사람을 불러다가 돈 쥐가면서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제가 여기서 먼저 하면 안될까요?’ 안 시켜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고 증인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던 그 시절에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사건에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대접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향품이나 향유는 그 자체로는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던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귀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제대로 사랑하기란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섬기거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 이것을 황재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모세는 그냥 산에 불구경 갔던 겁니다. ‘이상하다 저기 붙은 불이 왜 꺼지지 않지?’ 그래서 주섬주섬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구경 갔던 모세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의 일을 감당을 해 낸 겁니다.

재산의 삼분의 일을 들고 나가서 다 털어 먹어 버렸던 탕자가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집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재산 다 들고 이젠 우리 집 아니야 하고 가 버렸기 때문에 이젠 자기 집 아닙니다. 뭣 하러 돌아왔습니까?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고 취직이라도 하려니까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더라! 이게 황재 아닙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틀림없이 이 분은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거란 말이야’ 이려고 따라 다녔습니다. 정말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재 아닙니까?

여리고의 기성 라합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 쳤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라합이 받은 복이 뭐니까?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것 아니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황재 아닙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던 도중에 있던 그 수넴 여자요? 지나가는 선지자를 그냥 대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니까 묵어도 가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필요하면 방도 내어 드리고 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랬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걸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가서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이런 저런 일을 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작은 정성, 그 다음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흉내를 내고 앓았어도 하나님께서 참 큰 것으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어설뿐 사랑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면 참 어설뿐 사랑이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혹시 이중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저 체면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끌려 가지고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도대체 교회에서 뭐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숙 내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받은 분이야 별 감동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체면치레로라도 예배 드리러 온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횡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횡재의 뜻이 뭔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가 참 재미있는 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횡재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 다 나쁜 단어들입니다. 횡재 근처에 무슨 단어가 있었겠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횡령, 횡포, 횡사, 횡설... 좌우간 그 근처에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횡재라는 단어 이것 하나만 괜찮은 단어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이 이겁니다. '별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횡재가 되는데 한 발만 빼앗하면 횡령, 횡사, 횡설...' 이런 거구나 그런 애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정성을 쏟고 관심을 쏟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는 모실 분을 바르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노라면서 이 새벽에 뛰어다니는 여자들을 보세요.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하지 사랑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사랑해서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숲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개역, 이사야 54:11~55:3]

여러분, 폭풍에 요동치는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배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는 어릴 때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면 안에 선실이 있고 좌석이 있으려니 했더니 그런 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배를 타면 바닥 전체가 평평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자리를 잡고 신문지 깔아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대요.

그렇게 가다가 파도가 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다들 잠잠하고 체면을 차릴 줄 알지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속이 매스꺼워지기 시작하고 더 크게 흔들리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때쯤 되면 사람이 체면도 뭐도 없답니다. 때로는 잘못 미끄러지면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거의 아수라장같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요동치면 어쩌까 생각만 해도 배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하거든요.

저렇게 끔찍한 배를 어떻게 타나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마치 광풍에 몰려 배를 탄 자와 같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체면 차릴 겨를도 없고 무슨 소망도 전혀 없는 암담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묘사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사는 과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요동치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암울한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남편도 자녀도 없는 그 과부에게 수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남편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과부에게 최고의 남편이 생겼고 수 많은 아이들이 생겼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죠. 수 많은 자녀들이 생겼으니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이 있어야 되겠고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고의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남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것이며 안전하게 거할 성읍까지 줄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그 성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읍을 주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스테인드글라스라는 것 있지요? 창문을 채색한 유리를 쇠붙이로 붙여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한 것인데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더

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에 테두리를 둘러서 이것을 전부 연결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돌에 채색한 테두리를 둘러서 연결해서 쌓았겠습니까? 아름다운 채색을 두른 것은 보석이어야 격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그러니까 기초는 청옥입니다.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홍보석은 제가 알기로는 에메랄드인데 어떤 보석인지 잘 모릅니다. 이름만 압니다. 좌우간 빨간 보석입니다. 이걸로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듭니다.

기초도 보석, 기둥도 보석, 문도 보석, 그럼 벽은요?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을 더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보석으로 지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가서 제 집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살던 그 백성들에게 이런 집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 과부같이 살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수 많은 자녀와 최고의 남편을 주되 그들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읍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너희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집도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렇게 좋은 집에서 평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학대도 없고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치면 너를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건드리는 자가 망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복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오래 전에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숭사하는 자는 도리어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유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자기 힘을 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 덤비는 사람을 피하면서 오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나자빠지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밀면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당기면 앞으로 나가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그 성읍에서 대적으로부터 아무런 침입을 받지 않은 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13절을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평강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살았더라면 그 고생 안했을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평강을 누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

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열심히 봉사하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내 시험에 들어 버립니다.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보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져 버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하노라 하는 것이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무슨 뜻입니까? 기계를 만드는 그 기술자도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장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하지 않으면 그가 기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너희를 함부로 파괴하고 진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계를 들고 설쳐도 그것이 날카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창조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장인들이 노력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들고 온다 해도 그 기계가 날카로울 수 있는 것, 그 장인이 만들 수 있는 것 다 내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내가 창조한 것이니 내가 못하게 하면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무리 모일지라도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 고약한 이웃이 있어서 쳐다만 봐도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질 고약한 이웃도 내가 창조한 것이니라. 저런 인간이?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월해집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직급만 높아 가지고 저것도 상사라고? 참 짜증납니까? 그 무능한 상사도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저 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가 무얼 두려워 할 것이며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할 것이냐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이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용감하게 잘 하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이 ‘이 놈들이 원래 공부한 적도 없고 무식한 자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별로 할 말이 없으니 그저 위협하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해봐라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위협하고 보냅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하고 그냥 갑니다.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 되었다 그렇게들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다른 이유를 또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소리를 내어 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한번만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대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말은 저 뒤에 나옵니다. 안 꺼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기도를 요!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령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위협하는 관원들은 체쳐놓고 뭐 얘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양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 저 원수들이 저렇게 위협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렇게 위협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강한 것이 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이스라엘은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짱이 참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고 좋은 남편이 있어도 평강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광풍으로 요동하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비해 놓고 주겠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 달려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흔히 하는 말로 뭇도 모르고 와 봤는데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더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이 큰 복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뭇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고 예수 믿었습니까? 알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복을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성읍에 대한 얘기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끝에 보시면 이와 아주 흡사한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무런 염려없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성읍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라’ 하시는 거죠. 55장 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2절 중간쯤에 보시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아오라, 와서 사라,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나아와 들으라.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시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아름다운 성읍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값 줄 것도 없는 사람도 오란 말이에요. 와서 사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사요? 거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저 준다고 그러지 왜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료급식소라는 곳이 더러 있죠. 그런데 어떤 무료급식소는 100원내지 200원을 받는대요. 그 100원, 200원이 모여서 몇 억이 되어서 좋은 데 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무료로 주면 됐지? 100원을 왜 받아요? 뭐에 쓸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밥 준다고 갔더니 100원 200원을 받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체면을 위해서입니다. 그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내고 먹으라는 겁니다. 목적은 돈이 아니고 오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서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오너라 공짜로 줄게’ 이러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거저 주면서 말씀은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참 온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입장인가?

이스라엘은 목은 마른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2절을 따르다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값을 주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은 마른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목은 마른데 돈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 아닌 것을 값 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양식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몰랐고 그 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주의 주인 되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린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에 ‘짠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포도주와 젖은 싸구려 입니까? 아니요, 그게 본래 값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53장과 관련을 지으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의 고난을 말해 놓고 여기 와서 이 놀라운 축복을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그 젖과 포도주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희생해서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2절 중간쯤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아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게 되면 갈증 해소는 물론이지만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3절 꼬트머리 보세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합니다. 젖과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영혼을 다 살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고 부르셨는데 가보니까 젖과 포도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간 것은 젖과 포도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단히 큰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얘깁니다. 단순하게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병을 고치러 찾아왔습니다. 병 고치러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병도 낫고 그보다 더 큰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만이 소원이었던 삭개오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불러다가 종으로 부려 먹으려고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2절 끝이 정답 아닌가 싶어요.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혼이 살리라’ 이것하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소여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즐거움이 얼굴에 늘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서 사 먹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두려우십니까? 곧 나타나서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골치 아픈 일 시킬 것 같아서 그냥 피해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위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분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와서 이거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말입니다. 다 사 먹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이리로 오면 영혼이 살 것이라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영혼이 살리라는 말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목마른 사람은 ‘당장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영혼은 무슨 영혼?’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는 물 줄 테니까 오라 해 놓고 물 쥐가면서 영혼을 살려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물을 들고 목마른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물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살려 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옵니까? 그냥 끌려서도 와보고 체면 때문에도 와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람 사귄다고 와 보기도 하죠. 어떤 이유에서건 물 한잔 먹으러 온 겁니다. 그 물 한잔 먹으러 온 사람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물론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적시는 물을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 왔습니다. 경상도 사람 원래 입이 뻗뻗해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걸지만 물 한잔 먹으러 온 나그네구나 싶으면 어떻게든지 말을 붙여서 물 한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를 덧붙여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보이거든 물 한잔 플러스 영혼을 살리는 사랑 한잔 보태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마른 자는 오라고 불러 놓고 결국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영혼의 즐거움이 없으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성읍을 지어놓고 평강을 주리라고 하지만 영혼이 즐겁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이웃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의 사소한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풍에 밀려 요동치는 배를 타고 소망도 없이 떠돌던 것이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먹고 즐겁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을 다들 누리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 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요동치는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 집집마다 사람마다 속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병들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했는데 또?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개역, 신명기 14:22~29]

우 리나라 옛날 선비들은 돈을 좀 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아랫것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계산하고 돈을 다루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비는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선비란 열심히 책을 읽고 학문만 닦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봐서 돈을 천하게 여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어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 유능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에 대해서 좀 무능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돈에 대해서 무능하면 그래도 좀 신령해 보이고 돈에 대해서 너무 밝으면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옛날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을 완전히 떨쳐 버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국 초기에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돈과 관련된 조항들을 크게 안 따졌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선비답지 못하다고 해서 대강 얼버무리고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적잖게 보았답니다. 외국과의 협상이나 통상조약에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따지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요.

반면에 돈이라면 형제고 이웃이고 심지어 부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 최고의 목표죠.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저 돈이라면 눈이 빨개져서 설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보다야 차라리 선비들의 그런 태도가 훨씬 낫지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반성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없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제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도 한 번씩 내려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시궁창인지 진흙 구덩이인지 보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세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현실도 조금씩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이 정말 좋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하늘만 쳐다봅니다. 발밑은 전혀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때로는 기초가 없는, 하늘에 붕 뜬 신앙이 되어서 때로는 힘을 잃어버릴 때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아주 좋은 곳에 회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박수를 많이 받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으려다가 형제간의 우애를 다 상해 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돈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겪지 않아도 될

영똥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세 종류의 십일조가 나옵니다. 십일조 외에 또 다른 십일조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라고 말합니다. 이건 먹는 십일조입니다. 22절은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고 23절은 십일조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는 십일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먹는 십일조는 구체적으로 24절, 25절, 26절까지 계속됩니다.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소산을 전부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가서 25절, '그 돈을 써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하나 보세요.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것저것 사 가지고 26절 끝에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라고 하죠. 십일조를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써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22절의 십일조에 대한 것은 민수기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에서 레위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는 대신에 레위 지파의 생계는 다른 지파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십일조입니다.

23절의 '먹는 십일조'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기는 것입니다. 축제 비용으로 쓴 셈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걸 흔히 제2의 십일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십일조를 드렸고 또 한 번은 자기와 가족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축제를 하는데 또 십일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십의 이조가 되는데, 또 다른 십일조가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매 삼년 끝에 그의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배어' 29절, '너희 중에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교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구제하는 데에 또 십일조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 3의 십일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일조는 '매 삼년 끝에'라고 말하죠? 삼년마다 한번 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십일조와 제3의 십일조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로 치면 세 가지인데 실제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두 번입니다. 두 종류의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가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 재산을 교회에 전부 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다미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교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서 직장도 버리고 있는 것 다 바쳐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일 수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은혜가 넘칠 때에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범죄한 인생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바쳐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특별하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유대인들의 두 종류의 십일조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소득의 80%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20% 중에 10%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 썼고 나머지 10%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데에,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데 썼습니다.

물론 그 10% 속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일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소득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90%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사용할 10%를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10% 말하자면 제 2의 십일조 안에 여러 가지 헌금, 구제, 선교, 성도간의 교제, 전도를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십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저런 생각 없이 함부로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른 채 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되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때로는 아이들 과외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수가 있겠고 어떤 집은 자동차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을 사고 유지하는데 무리할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당장의 현실보다는 장차 큰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소득 중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지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2의 십일조는 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줄어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제2의 십일조를 미리 확보해 두자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쓸려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각종 헌금도 많고, 선교비, 구제비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 믿지 않는 형제들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쓰다보면 돈은 항상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만날 모자라는데 돈이 있어야 될 하긴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면 많은 적든 이런 비율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소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항상 모자라기 마련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을 바르게 잘 사용하려면 중요한 원칙 하나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공짜는 절대 바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젓물이 어릴 때 들긴 들었습니다마는 뭘지 몰랐습니다. 양젓물이 뭐예요? 양젓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지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걸려듭니다. 공짜를 전혀 바라지 않으면 사기에 잘 걸려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기꾼들에게 잘 걸리는 사람은 자기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과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책을 빌려 봅니까? 왜 못 빌려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한권 쓴다면 그걸 얼마나 어려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은 한 사람의 평생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책 한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을 어떻게 공짜로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은 제 값을 주고 산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가끔 어디 가다보면 좋은 책 보지 않습니까? 남의 책이라도 정말 좋은 책을 보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가 그냥 꽂아 놓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노래 부른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쨌든 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공부할 때에 가령 오페라 같은 것을 공짜로 보러 갈 기회가 더러 있었습니다.

오페라 공짜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저녁 몇 시에 공연하게 되면 틀림없이 오후 몇 시간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할 때 정문은 다 닫혀 있지만 옆문은 트여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 트여 있거든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옆문으로 쓱 들어가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거기 앉아서 보고 있으면 실제보다 더 재미있는 장면도 참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저 수고를 어떻게 공짜로 보고 있냐. 그래서 표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까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가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책이 나오기 이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중에 가령 '파장에 물건 사지 마라' 여러분, 파장에 물건 사면 이점이 많지요? 흔히 말하면 떨어 아닙니까? 털고 가야죠. 싸다는 거죠. 그런데 파장에 물건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살 물건이 있으면 일찍이 가서 제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홍년에 땅 사지 마라'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경주 최부자라는 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주려고 애를 썼다는 얘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였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아끼면서도 쓸데는 쓸 줄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 있죠? 쓸데는 안 쓰고 안 쓸데는 평평 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라고 칩시다. 우리 얘기 합시다. 교회에서 재정을 타올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거나 사람을 불렀을 때 아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도 다른 교회지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말은 안 하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적지 않게 합니다.

교회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정말 아껴야 합니다. 어떤 돈인데요?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이걸 함부로 쓸 수는 없죠. 소중한 돈이지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은 후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학교 쥐와 교회 쥐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왜요?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기가 쥐가 교회 쫓아와 봐야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쥐가 없어서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쥐는 없는데 대신에 고양이도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고양이 빠쩍 말랐습니까? 포동포동 살이 찼습니까? 포동포동이 아니고 피둥피둥 찼더라고요.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고 지불을 해야 할 때에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것은 충분하게 지불해야 한다. 공짜나 거저를 너무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아껴야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잘 써야 합니다. 마땅히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합니다. 잘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지출할 돈은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용돈, 때로는 형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돈 주고 받으면서 이자 꼭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장모님 돈 빌려가지고 이자 갚아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장모님 돈은 원금까지도 잘 안 갚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의 원금도 꼭 갚으세요. 이자까지 갚으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이렇게 비율을 잘 나눠서 쓰리라고 작정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원칙에서 공짜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충분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아끼고 안 쓰는 게 잘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잘 지출하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뭐예요? 재산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재산 많은 사람 중에 부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부자 있지요?

부동산 부자는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쓸 돈이 없어요. 부동산 중에 돈이 좀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재산은 엄청나게 많지만 늘 가난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못 내서 남에게 빌려다 다니거나 한쪽 귀통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부동산 부자는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따로 있겠지요? 써야 하는 곳에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찌 하다보니까 타자 교육을 두 달 받으러 갔습니다. 타자교육을 열심히 시키면서 무슨 재주를 또 하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나중에 자대에 가서 근무하다가 어디 하루쯤 휴가 받아서 나가고 싶거든 타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 쪽에 있는 핀 하나 이렇게 밀어버려라' 그러면 타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한대요. 그래서 타자기 수리하러 간다고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요런 피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동차 정비 배우고 온 친구가 그래요. 그 때만 해도 차가 그리 많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인데 그 친구도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운전하고 다니다가도 나가고 싶으면 은근 슬쩍 안 움직이게 해놓고 고친다고 핑계대고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리했다가 그런 재주 알고 있는 장교 만나면 군대 말로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잔재주, 피부리는 것, 이런 걸 가르치는 동네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잔피 부리며 사는 것을 서로서로 가르쳐 주고 그걸 무슨 재주인양 여깁니다.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잘 버는지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용하는 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큰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배시간이나 설교시간에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이 그렇게 나쁘다면 예수님께서 뭣 때문에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그 나쁜 것을 왜 하늘에 쌓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재물, 돈 자체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돈이 나쁘다면 땀 열심히 흘려서 소득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지요? 돈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되지요? 그렇게 땀 흘려 얻은 것을 나쁜 돈으로 바꾸면 안 되지요?

우리 생활에서 돈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정말 땀 흘린 수고의 결과라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돈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의 종이 된다는 것은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고 부모형제도 버리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서 돈에 대해서 무능해서도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게 뭘니까?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겁니다. 돈 못 벌면 어떻게 해요? 처자식 뭘 먹여 살려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잘 벌어서 잘 써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 얘기를 하시면서 24절 끝예쯤 보시면,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다는 겁니다. 풍부히 주시고 거기에서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고 또 2의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항상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쓰면 29절 중간쯤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잘 쓰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돈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덜 쪼들리고 돈이 적다고 해서 그만큼 더

쫓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잘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잘 쓰고 있느냐? 이것이 복이라는 애깁니다.

오늘 오후에 바닷가에 잠시 다녀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성자 집사님하고 한 차에 타고는 열심히 하던 얘기를 그대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던 것을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부치면서 제 이름으로 부쳤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통장이라는 게 잘 없어서 우편환으로 보냈습니다. 우체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한 날짜에 꼬박꼬박 배달을 하면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구니까?” “포항에 있는 우리 막내 사위입니다.” 그 우체부가 칭찬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집사람 표현을 빌리면 “우체부 생활 20년을 했지만 사위가 매달 이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체부가 동네에 사랑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체부가 온 동네 다니며 소문을 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 뿐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처갓집에서 점수를 많이 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까다마는 제가 처가에 가서 전도를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위낙 교회하고는 담쌓은 집안이니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처가가 교회하고 철저하게 담 쌓은 집안인데 그 다음 세대에 가니까 믿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생기거나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의 보살이라고 불렸던 처형이 어느 날 “우리 집에도 하나 들어온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집에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니 “어쨌든, 지그들 좋다는데 놔두지 뭐” 그래서 보살 집에 예수쟁이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제게는 처조카 며느리인 셈이죠.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집 들어오고 두 집 들어오고 집집마다 다 생겼대요.

한세대 밑에서는 완전히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녀이남의 끝에 돌이만 교회 다닙니다. 어쨌거나 이 끝의 돌이 점수를 많이 땀 결과로 다른 집안에 예수 믿는 아이가 생기거나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안 막더라는 애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가 식구 중에는 평생에 예배당 두 번 나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두 번인지 아십니까? 한번은 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 교회에서 드리니까 와야지 어쨌겠습니까? 그로부터 이십 수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왔습니다. 지난번 임직식 때요. 그 외에는 교회 들어가 본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난번 임직식 때 은혜를 별로 못 받았나 봐요. 무슨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있나 싶어서 눈여겨 봤는데 좀 없는 것 같아서 자기들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더라요. 딱 한마디 남긴 게 뭐냐 하면 “노래는 잘 하더라” 무슨 노래요? 아이노스 찬양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날 수고한 아이노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평생에 두 번 온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그렇게 믿는 식구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믿는 식구들이 생겨나고 또 그 아이들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용돈을 보냈으면 목돈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매달 부치는 거요? 그거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그 돈이 근 20년을 이어갔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쓸 것을 쓰면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성자 집사님이 반주로 붙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십만원 쓸 것 이십만원 쓰면 깜빡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조할 때 십만원 쓸 것 이십만원 쓰면 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접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저게 잘 하네” 이거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큰일입니다. 써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외에 또 다른 십일조를 우리 스스로 정해 놓고 이걸 이렇게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야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장래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도 들어놓고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해 나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2, 제3의 십일조를 준비해 놓고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득을 무조건 퍼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양을 써야 합니다. 그걸 충분히 비율로 쳐서 그 양을 분명히 써야 합니다라는 그것 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고 정해 두고 쓰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짜잔한 선물하는데 생각해 보면 참 아까울지 모르지만 쓰기 시작하면 그게 큰돈이 아닙니다. 이걸 쓰겠다고 정해 놓은 상태에서 써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닌 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듣고 전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 그냥 살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 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개역, 고린도후서 12:1~13]

두 아이가 모여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사 준다!” 옆에 있던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느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일까요? 먼저 자랑하고 있는 아이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겁니다. 옆의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한 번 안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사준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이겠지요?

자식들끼리는 이러하겠지만 아이들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 달라는 것은 다 사준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자랑이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욕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돈 좀 있다고 애 버려 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안되는 것도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기를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간해서 가르쳐 가면서 아이가 점점 커 가면 점점 점점 선택권을 확대해서 나중에는 제 스스로 결정하게 해 줘야 합니다라는 기울 때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삼아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나 찾으려고 열심히 돌렸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뭘 사 내라고 때를 놓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돼!’ 하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왜 안 되지요? 아이는 사 내라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엄마는 ‘안돼!’ 하는 그 광고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제 엄마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것만 먹여야 할 엄마라는 거예요. 풀무원 식품 광고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엄마가 ‘이것은 먹어서 이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아무리 울더라도 사줄 수 없다’라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 줄 수 없어, 맘만 울어도 못 사줘. 난 엄마니까, 널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엄마니까’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는 거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면 모든 것을 자식의 뜻대로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울지를 판단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 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기도를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벽한 지혜를 가졌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안 좋은 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안 된다고 하시더라, 안 들어 주시더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와 응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축구 본다고 정신없는 때에 그래도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믿고 이런 말씀을 안심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던데?'라고 믿는 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안 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은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이 되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저런 추정을 합니다. 심한 눈병이나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이 두 가지 쪽으로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서 바울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만난 것을 듭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병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멸시할 만한 육체의 약함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주어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나요? 창이라고 그러나요? 눈이 총명하고 또렷하면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멍덩하거나 무슨 병이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 있죠? 그런데 그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언니를 왜 좋아하지 않았지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했더라고 합니다. 안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좀 이상했더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눈빛이 좀 이상하면 사람이 영 시원치 않게 보입니다. 그나마 눈에 무슨 병이 있어서 눈곱이 자주 끼고 눈에 뭐가 줄줄 흐르고 그러면 정말 목회하거나 말씀 전하는데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느 선생님 별명이 깜빡이입니다. 깜빡이가 뭐죠? 자동차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상하게 눈을 자주 깜빡거리요. 쉴 새 없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좋은 별명 같습니까? 아니면 놀림감이 되는 겁니까? 좋은 별명 아닙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조차도 흠이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못준다면 늘 사람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바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었겠습니까?

간질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주변에 그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예배도중이나 아니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 하고 있다가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면 예배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누구 병을 고치겠다고 안수를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기 병이나 먼저 고치지?’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무지 말 발이 서지 않는 심각한 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런 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하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저 아가씨에게 병이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병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답을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요. 더군다나 유전되는 병이라고 그러네요. 심각한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기도를 한 거죠.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면 새벽기도 세 번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세 번 하고 바울의 세 번 하고 아마 격이 다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이라고 말하면 적어도 백일기도를 세 번 했다거나 아니면 40일 금식기도를 세 번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세 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8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더 구하지 말라, 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마, 됐으니까 그냥 살라라’ 이런 말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이걸 고쳐야 사역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냥 살아,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안 고치는 것이 네게 유익이니까 그냥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 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큰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는지 말하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았습시다. 천국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감히 사람이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보고 왔는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 우리가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 해서 못 참습시다. 14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결국은 또 안 합니다.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엔가 우리가 영천에서 수련회 할 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좀 싸야 된다’고 ‘어쨌든 말을 많이 하자’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접근하기 위해서 별 의미 없는 말이라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무게만 잡고 있으면 반 본전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심히 떼어야 합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열심히 해야 하는 말 중에 1호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옆에 서 있는 사람하고 입 꼭 다물고 계서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 한마디 하세요.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은 가급적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멍뚱멍뚱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말은 열심히 하고 잘 해야 합니다. 체면 접어놓고 열심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14년 동안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와서도 갔다 왔다고 한 적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소문이 나지 않아야 할 말들이 나는 경우가 더러 보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회에서 의논된 것이 그 이튿날 다른 데서 나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당부를 하나 드렸습니다. 교회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됩니다. 현금 정리하다가 알게 된 것을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혹시나 덕을 세우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말은 철저히 입을 다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알고 보니까 재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내만 알고 전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서 14년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그것도 마치 남의 얘기처럼 끄집어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자랑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돼야 자랑하지 않겠느냐?'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쑥 꺼냈다가 그만뒀 버렸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꺼내긴 왜 꺼내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11장 4절에, 무슨 화인지 여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니라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니라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무슨 화가 났고 무슨 자랑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온갖 정성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해 놓았더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사도임을 의심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거짓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정말 자랑 한번 해 볼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랑 꺼내다가 말아버리죠.

사도 바울이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가끔은 절없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조차도 참 힘듭니다. 그냥 상상만 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누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목사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인지 짐작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목사에게는 참 힘들고 가슴 아플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고 말줄임표 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부분이지요. 제가 목사 된지 얼마 되었다고 무슨 심정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애깁니다. 왜 그가 그 놀라운 자랑거리를 말하려다가 말아 버리느냐 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애깁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혹은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썽을 보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감히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보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겠다는 애깁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와서 말 못하겠다고 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천국 갔더니 어떻게더라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글을 읽었거나 들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보고 싶거나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하도 집적거리면서 보라고 그러길래 대충 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은 바에 의하면 천국은 한옥이 많습니까? 고층아파트가 많습니까? 한국 사람이 갔다 온 천국은 한옥이 나오고 서양 신부가 갔다 온 천국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서양인이 갔다 온 천국은 현대 도시같고 한국인이 갔다 온 천국은 한옥이 나오고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천국 가서 넓은 평수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평수 넓은 집 얻어야지요? 좌우간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중국 가서 부동산 투기붐 일으키고 미국 가서도 부동산 값 올려놓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군요. 소련 가서는 과의 열풍을 일으켜 버렸습시다. 이런 한국 사람이 천국 가서도 투기붐을 일으킬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도 재산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모자는 왜 써요? 햇빛이 너무 센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겠노라고 입을 다물어버린 천국 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전해준 그 이상의 것을 전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름깨나 날리던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서 그렇게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종하게 되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고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버린 겁니다.

계시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도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리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가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계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마, 그대로 살아라 하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이 다 든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할 때 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그러니

까?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쓰고 달라는 것을 안 주려고 버티는 것이 부모로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졸라대면 부모가 질 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말 귀 알아듣는 자녀에게는 부모님도 안심하고 내놓고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귀 못 알아듣고 막무가내로 때쓰는 아들에게는, 안된다고 하면 빠져서 몇 날 며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자식들에게는 달라는 대로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기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식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 됐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 자신만 변해버린 겁니다.

그 약함을,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라고 했던 그 귀찮고 골치 아픈 것을 감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왜 자랑합니까?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점이나 핸디캡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송명희 시인 있지요? 어떻게 본다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팽개쳐질 만한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릿합니다마는 여러분 한쪽 발이 짧고 한쪽 발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한쪽 발은 절반밖에 없고 양팔이 없는 분이 있었잖아요? 애기 낳고 잘 살아요. 한국에 두 번이나 왔었나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초대교회에서 박해받고 살던 그런 성도들도 이 땅에서 본다면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호강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감사가 더 많은지 불만이 더 많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 놓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게 되니 의사가 충고하나 하더랍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친구 하나 사귀 썸 치고 같이 사세요." 참 괜찮은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고쳐지는 거니까요. 귀찮은 친구, 불편하지만 친구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그것보다 한수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이 들고서야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졌답니다. 병들기 전에는 세상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내가 건강하니까 나밖에 안 보였습시다. 그런데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병든 이웃들이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보세요. 아니 힘들어서 고통을 어느 정도 겪어 보면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이 아픔이 오히려 내가 인생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는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겠지요.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철없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만 쏟아놓고, 내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시록 5장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내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향내 나는 금그릇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리워 가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날 보자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느냐?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되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아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보자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때때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욕이 그런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욕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욕이 나중에 이걸 다 알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또 자기에게 시련이 닥쳐온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또 내 자랑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시련을 잘 이기고 난 후에 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욕이 훗날 그에게 또 시련이 닥쳐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랬을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보자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도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또 날 자랑하신 모양이구나' 이것도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힘들 때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셨습니다.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잘 듣고 바울에게 가장 유익한 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에게 이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픔을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 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숙한 아들과 같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좀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 됐다! 그냥 살아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요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Tulip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이사야 55:1~13]

옛날 살기 힘든 시절에 행실이 좋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과부가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과부에게 수 많은 자녀와 최고의 남편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쁘게 수놓아진 집과 안전한 성읍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4장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55장에 들어오면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3절 중간쯤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살 소망이 없던 그에게 수 많은 자녀와 멋진 남편과 멋진 성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튼튼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게 침입을 당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시대를 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라를 세워주고 그 왕위가 변함없이 이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튼튼한 나라를 이제 세우겠노라, 이제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이 왕위가 오래도록 유지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영원한 나라는 후일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분이 만민의 지도자가 되며 명령자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때가 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곧 달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여진 이 복음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

에게도 퍼져나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때 그렇게 비참했던 과부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차적으로는 후일에, 온 세상의 부귀를 다 누리게 되는 이 여인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리는 온갖 부귀가 우리 것이라니 좋긴한데 그럼 우리가 언제 버림받은 과부요 남편도 없는 그런 처량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처량한 모습이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던 과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계획을 잘 표현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아름다운 꽃 튜립(Tulip)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튜립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하죠.

첫 글자 ‘T’는 *Total depravity*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전적부패’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합니다. 목은 마른데 돈도 없고 값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노력은 안하겠습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노력합니다. 먹을 것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양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배부르게 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무능력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셨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부자가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여러분이 다 부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12-13)고 하셨습니다. 의인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죄인이 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도 돈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돈 없으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박사님이 재미난 일화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어느 환자가 병은 나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 돈 없는 환자를 몰래 도망치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환자를 도망가도록 길 안내해 주는 그 의사를 이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돈 없는 자, 값없는 자도 오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부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원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튜립의 두 번째 글자 'U'입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조건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조건을 내걸면 전부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죠? 공짜입니까, 돈 받으니까? 공짜로 주는 데가 많은데 어디서는 값을 받았답니다. 100원 내래요. 왜 100원을 받았을까요? 거저먹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100원이라도 내고 한 끼씩 줬답니다. 100원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는 거죠. 거저 와서 먹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100원을 내고 밥을 먹게 했는데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몇 억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불러서 '얻어 먹으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값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와서 주는 것 그냥 먹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사라'고 그럽니다. 누굴 생각해서요? 없는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원 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게 1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게 왜 100원입니까?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값을 냈기 때문에 그게 100원이지 결단코 값어치가 100원짜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출석 하지 않았느냐 내 공로 아니냐고요? 어렵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100원짜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혹 정신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요. 한 끼에 100원 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돈 내고 사먹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 있으면 나쁜 놈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100원 내는 것도 아니고 값도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이게 질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최상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지만 우리 대신 누군가가 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분이 값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저라는 거저 질이 나쁜거나 시원찮아서 거저가 아닙니다. 무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똑마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기가 막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볼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 하러 왔었죠? 물 먹으러 왔습니다. 물 먹으러 왔는데 영혼이 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놀라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러 왔더니 영혼을 살려 놓으신 일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밥 안 먹으려는 아이에게 자꾸 밥 먹으라고 하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밥 먹어주는 게 인심 쓰는 겁니다. 사정사정하는 엄마에게 큰 인심 한번 씁니다. '좋다 먹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얼마나 싱거운 자랑, 부끄러운 자랑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점, 잘하는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튜립의 세 번째 글자가 'L'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입니다. 무능력자를 조건 없이 부르셔서

구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부르시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동사를 조심해서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동사만 골라서 본다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하고 찾을 때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만날만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열려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일단 문이 닫히면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을 비유컨대 믿음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을 써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죽을병이 걸린 사람이 억지로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약을 삼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나? 그것도 자랑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지 않았느냐?'고 말한다면 이건 마치 약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거 삼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느냐고 자랑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찾는 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튜립의 네 번째 글자가 'I'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우리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능력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기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피합니까? 비 사이로 막 가면 되지 않습니까? 못피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었으니 결국은 튜립의 마지막 글자 'P' *Perseverance of Saints* 우리는 흔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만 성도의 인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평안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 만물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박수치며 맞이합니다.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

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참고 인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저도 예전에는 자동차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차 견인해 가듯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은혜스럽더라구요. 나중에 한자를 찾아보니 좀 달라요. 굳게 잡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낚거나 열심히 더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도 이때까지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모두 다 합쳐서 100원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합쳐서 목구멍으로 약 삼킨 노력입니다. 병은 약이 고쳤습니다. 그 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약 털어내고 물 삼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게 자랑할 요인이 못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표가 어딘지 13절을 보세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화석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아주 좋은 나무죠. 이 푸른 나무가 짙레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면 그 날에는 가시나무도 짙레도 사라지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등장하여 박수치며 환호하며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은혜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의 5대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왜 이해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차원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길로 알고 아멘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뇨(로마서 11:34-35)'라고 말합니다. 그럴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버림받아서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 늙은 과부에게 정말 꿈같은 날이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놓여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차적으로는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라도 어떻게 해 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치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치료 다 해주고 나중에 생활비까지 다 대어준 꼴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고 있는 환자를 병원 뒷문으로 안내해서 도망가게 해 준 그 의사가 여러분의 의사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그 의사를 찾아 그 병원을 갔더니 자기

를 도망시켜 준 그 의사가 치료비를 대신 다 갚았더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그런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간단하게 줄여서 틀림이라고 합시다라는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요약한 말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격합니다.

이방인도, 고자도, 쫓겨난 자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개역, 이사야 56:1~8]

어릴 적에 혹시 집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몹시 서러웠겠지만 지나고나면 그냥 즐거운 추억일 겁니다. 제 친구 하나는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서 하숙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잠깐 이긴 하지만 집을 친구 하숙집에 맡겨놓고 역에 가서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이 집, 저 집 그것도 하숙집 찾아다니면서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일인데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에 가끔 강원도에 있는데 처자식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것 자체로 참 감격스러워요. '저 친구 대학 다닐 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도 돌아보면 그게 젊을 때에 큰 약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나, 젊을 때는 그래도 좀 나운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책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책상을 치워버렸는데도 깨끗하게 몇 년을 버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책상을 치워버렸는데도 깨끗하게 출근하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IMF가 한창일 때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도시락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하루 종일 산을 헤매다가 퇴근 시간 맞추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는 집에 부득부득 우기고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얼마 안 되어서 보따리 싸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보따리는 싼다고 용감하게 썼는데 갈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지만 친정에는 못갑니다. 그렇게 말리는데 우기고 우겨서 갔는데 어떻게 그런 꼴로 돌아가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의 상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종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더 이상 서러움도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외치며 의를 행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데 회개하면? 멀리 있다는 것은 천국 문이 꼭 닫혔다는 뜻이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회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가까이에 갖다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라고 합니다. 마치 '주려고 할 때 받아라'는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구원과 의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간의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이

공평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비유컨대 지하수를 찾는 사람이 땅을 열심히 파니다.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파도 그 밑에 물이 없으면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땅 파는 이 열심이 우리의 회개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 속에 있는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분들이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정한 법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칙을 먼저 알아내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로켓트를 쏘아 올려서 달나라도 가고 먼 별에까지 로켓을 띄워 보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의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사람의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잘 만들어 주신 그 분에 대한 경외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우린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회개가 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평을 행하고 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날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쉬 나타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용서하면 안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게 안됩니다. 한번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쉬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곧 나타날 건데 굳이 이스라엘이 공평과 의를 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곁에 다가 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고백과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꼭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 통해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곁에 갖다 놓으시고도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순종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조건부처럼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를 테니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내가 공평과 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식사 한 끼에 백 원씩 내라. 왜요? 밥값으로 100원 내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 끼에 100원이 밥값이나 말입니다. 그걸 밥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100원은 밥값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저먹는 것이 좀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체면상 밥값을 내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밥값이라기보다는 체면 유지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는 공평과 의는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는 사람의 체면에 문제가 좀 있을 듯 하니 체면상 100원 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공평과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고 믿지 않았느냐고 할 때 이게 전부 체면상 내는 1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받아야 됩니까? 돈 되지도 않을 것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건 마지막 자존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면서 “너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 놓으라” 그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서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너희의 이 행함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줬노라고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 하나 요구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평과 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곁에 갖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 곁에 갖다 놓으시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놓으신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혹시 예쁜 사람만 오라? 아니면 돈 많은 사람만 오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천국을 여기까지 갖다 놔 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고 오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めの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도, ‘자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잘 생기고,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악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아무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세요.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도저히 포함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6절 뒤편에도 보시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절 뒤편에 ‘고자도 나는 마른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 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의를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저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경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방인, 고자, 쫓겨난 자들을 다 불러 오라고 하십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나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놓고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야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방인, 고자, 쫓겨난 자들의 공통점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석녀라고 합니다. 그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를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전부 여자 책임이었지 남자 책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은 아기 못 낳는 남자를 가리켜서 마른나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른나무 같은 고자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하실까요?

신명기 23장 1절에 '신앙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유대인 남자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갔습니다. 성소나 제단의 뜰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깥쪽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성전에 이런 비문이 있었답니다. '타국인은 성전 둘레의 난간과 경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체포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며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경주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공군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대 담벼락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나면서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빨간 딱지에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웬지 기분이 안 좋대요. 지나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길가의 담벼락인데 거기에 무슨 '접근하면 발포함'? 제가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담 타 넘을 일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웬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성전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사형이다' 이렇게 써 붙여 놓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처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없다는 딱지가 담벼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나 고자나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이들을 다 불러들이겠다는 애깁니다. 예수님 시대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얼마나 많이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전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걸 잘 아시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겁을 한 겁니다. 거기에 평소 같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소경, 저는 자,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던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번 실현시킨 셈이지요. 물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 사건은 이 예언을 실현시켜 준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이 유명한 구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그'는 앞에 나왔던 고자들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만민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애깁니다. 이전 같으면 도저히 성전에 나아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 고자들도 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치를 때는 기도하는 집에 초점

을 맞추셨습니다마는 여기 이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자에게 만약에 선물이 있다면, 아마 자식이 없는 고자에게 선물이라면 자식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식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자녀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이방인과 성전에 나아오지 못했던 이들의 제물과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단 말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몇 백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고자가 누구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방인이요 고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처지가 그랬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자는 뜻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면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그때에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처지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말고 삼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온 백성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 허준의 이야기가 나올 때 텔레비전 열심히 보셨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고생고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의술을 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았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그 분들은 드라마를 열심히 본 사람들인데, 묻는 저는 책을 보았거든요. '면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허준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힘든 걸 다 참아나가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면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서자의 자식이니까 천민이죠. 그 천민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말, 면천, 이 한마디에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드라마에 그 단어가 안 나온 모양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한 신분을 면하고 양반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했겠느냐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천한 신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나 그 말입니다. 이 감격을 누리고 있으면 온갖 어려움과 아픔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아무나 다 부르셔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불러오라고 했지만 불러온 그 사람들이 전원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온 사람 중에서도 거부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고자를 이야기하면서 반복

되는 말씀 중에 유심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며'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이라는 말은 '이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이란 뜻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에도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6절 보세요.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모은다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 중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냐 말이에요. 구약시대 같으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이레 되던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일 안하고 가만히 쉬었다?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누가 그래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특별히 그 중심에 사람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요? 레위기에 일하지 말라는 말과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대가 되면 회년이 됩니다. 회년의 '회' 자가 기쁨 '회' 자입니다. 전국에서 나팔을 불며 기쁨이 넘쳐서 환호하는 해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전부 놓여납니다. 팔아먹었던 땅이 전부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날 그날이 회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굳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전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이들을 다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길을 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감격보다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성령께 우리를 맡기며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개역, 신명기 20:1~9]

표 현이 좀 안 좋습니다마는 뚱개도 제 집 앞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답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홈경기의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니하지만 자기 고향 경기장에서 혹은 자기 나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그렇게 이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나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응원단이 훨씬 많아질 테고 열심을 더 내고 그렇겠지요?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는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뒤에 형이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집가서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어느 분이 내게 만약 오빠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남편에게 서러움을 안 당했을텐데... 형이 있고 다른 집에 사는 오빠만 있어도 든든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뭐니까? 짓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하도 어이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새로 지은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다 돌려보내면 또 겁나는 사람도 돌아가라 이러면, 아니 그래서 다 돌아가 버리면 전쟁은 누가 해요?

군에 안 가려고 얼마나 피를 많이 부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얘깁니다. 어떤 분이 군에 안 갈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죽어라고 안 뺐답니다. 잡아 당겨도 안 펴고 조사를 해도 안 펴고 "못 펴니다" 하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어떤 군의관이 그 앞에 서서 뺐다 오르렸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돼?" 하니까 무심코 따라 해버린 겁니다. 실수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잡혀갔다는 것 아닙니까?

귀 어두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너 정말 안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운동장을 엄청나게 돌렸답니다. 하루 종일 돌린 거죠. 실제로 귀는 어두운데 이제라도 그만 뛰라고 하나 싶어서 뛰면서 부대장 입만 쳐다보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그만" 하니까 그만 뛰고 들어온 겁니다. "거봐 분명히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입만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그 길로 엄청나게 혼나고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독한 사람 중에 군대 안 가려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안 갑니까? 군에 안 가는 것은 고사하고 형무소에 가야 합니다. 군에 안 갈 목적으로 자해하는 것은 전부 법에 걸립니다.

군에 안 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는데 장가간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 새 집 지은 사람 돌아가고 포도원 새로 지은 사람 돌아가고 약혼하고 식 안 올린 사람 돌아가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전쟁은 머리수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심지어 두려워 떠는 사람도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겁나거든 돌아가고 사정이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군대를 통솔합니까? 1절부터 9절 중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장관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럼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군대를 장군이 통솔해야 제대로 하지 제사장한테 맡겨놓으니까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전쟁은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용기를 내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한다면야 좋지요. 그런데 왜 돌려보내느냐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정말 간 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형님이 버티고 있으면 조그마한 아우라도 자기보다 훨씬 큰 놈한테 간 크게 덤빉니다.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의 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예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누가 야단을 맞았지요? 바로가 죽을 뻔한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른 데에 가서 또 그랬습니다. 이번엔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야단은 바로와 아비멜렉이 맞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은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배가 출항하려고 하는데 웬 녀석이 혈레벌떡 뛰어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탔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느닷없이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선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배에 짐을 싣고 가던 선주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전 재산을 싣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누구 때문예요?

요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다 참다 안 되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렸더니 바다가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친 것은 요나입니다. 그 요나 때문에 죽을 고생 한 것은 누구인데요?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입니다. 아니 같이 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저 놈이 혈레벌떡 올라오더니 그 덕분에 우리만 고생 하지 않았느냐? 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나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왕궁에서 왕자가 사고를 치면 누가 혼나지요? 군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자가 와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공갈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하고 살짝 내 보냈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똑바로 왕자 못 모시겠냐?" 어찌란 말입니까? 왕자가 사고 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지 왕자는 별일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고 치면 누가 죽어나는지 아십니까? 사고 한 번도 안쳐 봤어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무슨 사고 말입니까? 좀 좋은 사고 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거나 요나처럼 가라 하는데도 안 가는 이런 사고 말고 좀 괜찮은 사고를 치세요. 전쟁을 앞두고도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일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낸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용기를 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더라.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고 쳤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나더라.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구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안 쳤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겠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신랑 그렇게 괴롭힌 상사치고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사고 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일을 저질러 왔더니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웃고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던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고생을 하더라,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네가 나가 대적과 싸움을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건 뭐니까?

1절 잘 보세요. '말과 병거와 민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군사들보다 적의 군사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걸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과거의 사실들을 얘기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요? 싸우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 출애굽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온한 날을 지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튼튼한 신앙입니다. 배워서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고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체험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께서 좀 더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전적인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군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도 군사를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는 일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좋은 예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사와 그 사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 아람군대가 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깨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 아람군대보다 우리 군사가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환이 둘러보니까 우리 군대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사의 눈과 그저 사람만 살피고 있는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열두 명 보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열두 명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이 못 본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열 명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두 사람은 저 아름답고 강한 저것들은 전부 밥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름

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입시, 입학, 승진 점수 따는 것 누구한테 달린 문제입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맞는 말입니다. 채점하고 점수주고 시험하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맞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적의 말과 병거와 군인들이 다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사, 승진, 입학 점수가 사람 손에 달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계심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중간쯤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한 칸 건너뛰어서 ‘놀라지 말며’ 모든 일이 상사의 손에 달렸더라도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겁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겁이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간이 굵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간이 굵어지면 복된 일입니다. 75년도에 공부를 하러 대구에 나갔습니다. 대구에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을 때, 지금은 포항 대구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굉장히 먼 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먼 길을 간 겁니다. 버스비 500원이 아까워서 버스 못 탔습니다. 정말 먼 곳을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마침 직장을 대구로 옮겨가는 분이 있어서 애 좀 봐 주면서 있으라고 해서 몇 달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항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 나왔으니까 애 공부를 주 일에도 좀 봐 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은행시험 포기하고 대학 갔는데 주일에 아이 공부 좀 가르쳐 주라?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달만 기다려 주실랍니까?” 집 나가겠다는 애입니다. 갈 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겁 많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때 그 집을 무작정 나와서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멋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 큰 짓을 몇 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신학교 간 겁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신학교를 저는 얼마나 망설이고 망설였던 일인지 모릅니다. 저로서는 정말 간 큰 짓을 또 한번 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간 큰 짓을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적어도 내 생애에 몇 번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용기 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 될는지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길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적군이 눈에 다 보여요. 적군이 나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이 더 중요합니다. 군대장관보다 제사장이 왜 먼저 나섭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은 장군이 인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장군이 인솔하기 이전에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장군이 인솔합니다. 장사하려면 장사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지를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제사장입니까? 군대장관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것은 군대장관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싸울까요?”라고 묻지 마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시오’ 이게 제사장의 몫입니다. 어떻게 싸울까는 군대장관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투시라는 것 있죠? “당신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잘 됩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가는 그 방면에 실력을 갖추었거나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점쟁이 찾듯이 묻는 것은 조

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업 수단을 가르치거나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은 군대장관입니다. 더 중요한 분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신앙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목사님이 잘 모르실 거다. 그 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사업수단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목사님께 의논하는 게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인하고 신앙을 다지는 이 일은 군대장관보다 제사장이 먼저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왜 군대장관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일인데? 두려워 떨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낸다는 것은 이런 저런 생각으로 나누이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혼해 놓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 우리 색시 어떻게 되지? 고생해 가면서 집을 다 지어 놓았는데 내가 죽으면 저 집 어떻게 되지? 전쟁터에 앉아서 집 생각, 포도원 걱정, 새댁 걱정 이러고 있으면 전쟁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질 바에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러 나갔으면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철저히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찾아가 보면 툭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릅니다. 아니 신경 안 쓰면 누가 밥 먹여 줍니까? 말하긴 쉬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예요. 제가 목이 이상해서 병원 가면 꼭 이래요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럼 어찌란 말입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이는 신경 같으면 아예 병나지도 않지요.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용기 내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안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있는 것 잘 아는데도 가끔 찍힙니다. 찍혀봐야 시속 60Km로 빨간불에 지났다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요. 해야 할 설교가 몇 편이고 내일 저녁에 공부하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다가 신호가 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신호위반으로 찍히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는지 누가 옛날에 통계를 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낸대요. 규칙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사람은 사고를 잘 안 내요. 아 저 정도 같으면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거죠.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 없이 용감하게 나서면 그게 잘 헌신하는 거지 싸우러 나가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애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하고 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답답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도 괜찮아, 다 돌아가도 이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너 없다고 해서 전쟁 못하는 것 아냐, 돌아가려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개가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즈음에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 이 때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네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네가 나서라고 하는 것 같다, 나서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런 배짱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돌아간다고 해도 전쟁은 이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고 싶거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병사들의 수효와

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아무도 안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세상에, 붙어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고 합니다. 그 우박 참 희한한 우박입니다. 사람을 골라서 때려요. 같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안 맞아요. 적군만 골라가면서 때리는 우박입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전쟁인데 집으로 돌아가요? 원수를 다 갚아야 하는데 해가 넘어가요,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태양 쳐다보는 적군들은 어땠겠어요? 빨리 해가 저야 할 텐데 저게 안 내려 가잖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는 일입니다. 가나안 전쟁 초기에는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싸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기드온 때에 싸우리 갈 일이 생겼습니다. ‘모여라’ 했더니 삼만 이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은 십사만 명을 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옛날 같으면 안 돌아갔습니다. 삼만 이천 중에 이만 이천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안 돌아갔을 텐데 신앙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뿔고 뿔고 가지고 삼백 명만 남고 구천칠백 명 또 돌려보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겁나고 두렵고 싸우기 싫으면 다 돌아가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은 삼백 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든지 가든지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등 마는 등 회미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괜찮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무슨 낙으로 교회 다니냐?’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면서 주일에 예배는 가야 된다? 놀자고 그러면 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체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돌아간 자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왜 전사자가 나오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싸우다가 죽으면 안되니까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도 죽는 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의 모든 질서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슈퍼맨이면 왜 그렇게 매 맞고 왜 옥에 갇히고 왜 그 생고생을 해요?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신앙고백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닥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고난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막 몰고 다녀 보세요. 사고 안 나는가?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뜻이지 겁도 없이 마구 다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발 교통사고 내지 마세요. 작은 사고라도 나면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약해지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줄이시고 막아주시길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전쟁에도 전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자도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는 전쟁에도 용기를 내야 합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용기를 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옵니다. 싸움은 이스라엘이 시작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어요. 왜 졌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아서 진 겁니다. ‘저 백성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그냥 놔두자’ 하고 놔두면 나중에 반드시 집니다. 용기를 내어서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간이 큼니까? 아니면 새 가슴만 합니까? 새 가슴요? 이것 봐도 쿵닥쿵닥 저것 봐도 쿵닥쿵닥! 한 번 놀래면 밤잠도 못 자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보더라도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 내 머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입니다. 장군보다 제사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같으면 학교 선생님이 ‘대학 가야지’ 하는 것보다 교회 선생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수칙보다 신앙수칙이 우선이었습니다.

요즘 읽을만한 좋은 책이 많습니다. ‘부자 되는 법’ 혹시 보셨어요? 다른 것은 안 봐도 이런 것은 좀 봐야죠. 보세요. ‘좋은 대학 가는 방법’, ‘공부 잘 하는 방법’ 좋은 책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책은 성경입니다. ‘바쁘는데 언제 성경책 보노?’ 이런 바보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쟁은 군대장관이 통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제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개역, 열왕기하 9:11~16]

우

리나라의 우수한 재벌의 따님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아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살이라는 겁니다. 재벌의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 언니가 미국에 가서 아버지 마음에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집안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허용을 하는 대신에 그 남자를 여자 집안에 맞을 만큼 키워서 결혼을 시켰답니다. 둘째 딸이 나가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집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은 모양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남자와 짝을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급수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좀 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러다가 결국은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요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앞뒤로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 요람,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아하시야,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왕입니다. 이외에도 왕이 몇 명 더 등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었던 예후를 사용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요람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요람이라는 왕이 여럿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 요람 때에 행하는 겁니다. 이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 인물이 하사엘과 예후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 아하시야는 왜 죽임을 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이 왕하고 놀아야지’ 하고 급수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징계 받을 요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애꿎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의 시대는 굉장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거의 제거되고 그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여호와 신앙은 뿌리째 뽑히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위력을 떨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70명을 숨겨 두셨다고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엘리야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멋진 싸움 한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다 사라지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가 여호와와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진도, 아주 급한 바람이 불어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웃나라의 하사엘을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있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죽인 자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인 자 중에 살아남은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아합의 집안을 이 두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에 그 사명과 능력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은 아합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은 벤하닷인데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신복이었던 하사엘에게 '내가 보니 당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쳐들어 오죠.

그 하사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전쟁터를 군대장관이었던 예후에게 맡겨 놓고 자기는 치료하러 후방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터를 비우면 총사령관의 권한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런데 총사령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버린 겁니다.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버립니다.

예후가 하는 일을 보면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반역이 일어났다는 말이 왕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 길을 다 막아놓고 자기가 먼저 소문보다 더 빠르게 마차를 몰고 가서 왕을 쳐 버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싸우리 보냈더니 적과 안 싸우고 군대를 뒤로 빼어서 아군과 싸웠던 일이 우리나라에 두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이성계가 그랬고 최근에 전방에 있는 군대를 뒤로 빼서 정부를 앞섰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후가 군대를 급히 몰아가서 요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처치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했던 선지자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달려오는 예후를 만나러 가는데 가다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어떤 땅입니까?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네 몸의 피도 흘리라.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선지자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그 장소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났습니다. 예후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요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이 있던 곳에 던져버린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 후에 예후는 말을 몰아서 그의 모친이었던 이세벨을 치러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예후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본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큰소리 한번 쳐 보는 겁니다.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바아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밖에 왕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보고 너 시므리여 하는 것은 너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 해도 시므리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세벨은 자기가 저지른 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후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 왕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예후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사주를 하고 예후가 반역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사엘이 침공해 와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예후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후나 하사엘이나 엘리사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 끼여 있었습니다. 아하시야입니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는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끼여 있는 아하시야는 남쪽 유다 왕입니다.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을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쓸데없이 왜 거기서 얼쩡거리냐?'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줍니다.

요람이 예후를 마중 나갈 때 아하시야가 같이 나갔다가 반역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남쪽으로 도망쳐야 될 텐데 얼마나 놀랐던지 남쪽으로 도망치지 않고 므깃도가 있는 곳, 북서쪽입니다.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장례를 제대로 치른 것입니다. 요람이나 이세벨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핏은 그 곳에서 네 피를 핏을 것이고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요람이나 이세벨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아하시야는 신하들이 그 시체를 수습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교제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람에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기는 하지만 유다 왕을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음에도 그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예후나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꿎게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요람 왕 곁에 왜 얼쩡거리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람은 아하시야 왕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병들어 누웠는데 찾아가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피하라는 애깁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관계나 의리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친구도 소중하고 부모 공경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쪼개져서 으르렁거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인척관계로 엉켜 버렸나요?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밋 때문입니다. 여호사밋이 성경에는 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원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몇 안되는데 그 선하다고 평가받은 여호사밋이 아합하고 가깝게 지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밋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며느리를 맞아 들이면 딸 하나만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달라가 시집오게 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열심히 섬겼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지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북쪽 왕 요람은 아달라와 남매지간입니다. 이 아달라 때문에 남쪽 유다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아하시야가 예후 손에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달라가 정말 끔찍한 일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라가 흑심을 품고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합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밋이 아합과 가깝게 지낸 결과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남쪽과 북쪽은 여차피 형제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야 할 때에 아합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고 여호사밧이 기꺼이 돕겠노라고 따라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지 모릅니다. 이런 정치적인 관계 외에도 형제니까 아웅다웅 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자 그래서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왕족은 아무래도 왕족하고 교제를 해야 격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세벨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짝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의 딸을 데리고 들어올 게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왕족이 평민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의 왕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해야 격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왕족이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죠? 부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좌우간 비슷해야 된대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자꾸 맞춥니다.

이왕지사 급수를 맞추려면 뭘로 맞추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럴 때에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급수를 맞추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람을 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되더라구요. 친척보다 가까운 사람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의 형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할 때 나하고 맞아야 교제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때 뭘 맞추어야 할 거냐 말이에요. 신앙을 맞추자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귀한 줄로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형제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이 땅에서 높낮이와 관계없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귀한 줄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후남 집사님댁 장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덕까지 왔다 갔다 하며 수고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는 분이 내일 아침에 발인예배 할 때에 옆에서 지켜보면 효자제일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큰 교회들이 주관하는 장례식에 한번 가 보세요.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큰 교회는 힘은 많지만 대충합니다.

그런데 효자제일교회요? 별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갈 수 없는 사람까지 힘내서 가서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없는 힘 있는 힘 다 짜 내어서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졸라대고 체면 봐서 가는 겁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려 하고 그들의 장례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귀면서 한 일이라곤 딸 한 사람, 아달라 한 사람을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딸 하나가 결국 유다 역사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서 거기에 묻어 들어온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비슷한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못 가르칠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영어라는 말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가장 경계하는 개념이 자유, 평등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 영어 속에 묻어 있는 자유나 평등이나 인간존중의 개념이 아이들의 머리 속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국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지요? '오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를 좀 배우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굿모닝 하면 어른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느 것이 나아 보입니까? 영어에 익숙해지니까 한국식 표현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었는데 애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야 되지요? “그래, 오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굿모닝이라고 답하는 게 좋더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그래 너도 안녕?’ 이라고 싶은데 잘 안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때를 놓쳐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선생님은 인사를 잘 안 받는다’고.

‘왜 내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잘 안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할 때 “그래 안녕”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와중에 은연 중에 들어온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면서 그런 방식이 몸에 배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영어공부를 하면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대학 후배 한 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는 밖으로 나오면 더 깊어지는 데가 있어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깊어지니까 ‘사람 살려’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못한 겁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영어를 좀 배웠거든요. 아직은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체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Help me’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들었으면 바로 뛰어들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동료들이 영어를 배웠어도 여전히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게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쯤 후에 어푸 어푸 하면서 완전히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건져 내서 인공호흡한다고 늑혀 놓고 놀리다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선배보고 헬프 미가 뭐냐? 헬프 미 프리즈라고 해야지! 아니면 우주 헬프 미라고 하든지.”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사람 살려’ 하지 않고 ‘헬프 미가 나온 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입니다. 영어와 우리말이 머리 속에서 뒤죽박죽이 된 상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함께 묻어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영어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으며 무얼 좋아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냥 가수 좋아하고 탤런트 좋아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 보이죠? 단순하게 그 탤런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알팍한 도덕심, 이런 것들이 함께 묻어 들어옵니다. 그냥 인기인 좋아하고? 이 책 재미있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그런 인기인이나 책이 주는 알팍함을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른 채 배워 자신들도 그렇게 알팍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무게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걸 아름답게 여기도록 가르쳐 주고 싶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더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라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 이 딸을 따라온 것이 나중에 유다를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학교 공부가 더 소중합니까?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는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런 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왕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랬고 우리나라 모 재벌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돈도 그리 많은 것 아니니 별로 문제될 것 없죠?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2006.07.12] 교제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열왕기하 9:11~16)

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 대의 복, 삼사 대의 화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개역, 신명기 5:7~10]

최 근 몇 주 사이에 똑같은 질문을 몇 분에게 받았습니다. “아비의 죄를 삼사 대까지 묻는다면 그 아들이나 손자는 아무리 잘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는 말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듯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어딘가 그 질문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천 대까지 받는 방법과 삼사 대까지 화를 받는 것,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방법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는 듯싶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 대까지 복을 주겠노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대까지 주는 복을 주목 안하고 삼사 대까지 화가 미치리라는 구절에 자꾸 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삼사 때까지 이르는 화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천 대에 이르는 복’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삼사 대에 이르는 화는 신경 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목을 ‘천 대의 복, 삼사 대의 화’라고 정해 놓았습시다마는 우리는 천 대의 복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애, 이번 시험을 잘 치면 십만원쯤 하는 MP3 하나 사주고 만약에 못 치면 나한테 벌금으로 400원만 내라, 내기 할래?” 이랬다고 칩시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정말 사주시렵니까?”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정상 아니겠어요? “내기 할래?” 하지만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열심히 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아들에게 벌금을 다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줬다고 거기서 벌금 400원이나 떼어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참 답답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내기 할래 하는 것은 아들의 벌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 잘 하라는 뜻이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사 주시려고 하는가보다’ 하고 십만원짜리 MP3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버지가 벌금 400원 받겠다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꼬마가 ‘우리 아빠 치사하다. 얼마나 치사한지 아냐? 내 보고 세상에 벌금 400원 내란다’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하나님께서 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 뿐

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아버지의 죄를 삼사 대까지 갚겠다'는 말에 신경을 쓰느냐 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벌은 삼사 대까지 가고 복은 천 대까지 주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벌은 정말 조금입니다. 은혜는 엄청나게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복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주고 벌은 흥내만 내는 척 할 테니까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주려는 마음은 없고 복만 주려고 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만,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들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중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뱀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셔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아, 저 말씀은 날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중대한 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안 하시고 뱀에게 저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프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손들고 별서고 있는 아담이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속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거기서 그냥 내려와야 합니까? 거기서 한 말씀해야 합니까? "하나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급했나보다, 모세는 급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꾸중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속에 그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의미를 살린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하는데 감히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가 알아들었다는 얘깁니다. 그 때 "내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오른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오른손을 갖고 계십니까? 한 번도 오른손 가지고 범죄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자기 팔도 자르고 또 범죄하는 사람만 눈에 띄면 자르겠다고 도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실천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구절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형제도 처자식도 다 내어버리고 밥도 먹지 말고 숨 쉴 겨를도 없이 바로 죽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에요. 액수 맞추어서 돈 넣고 누르기만 하면 탁탁 나오는 이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면서도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덮어 놓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런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하면 안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멸해 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하신 말씀인지 빨리 이해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가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런 걸 알아들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 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삼사 대까지 화를 내리겠다.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이러면 복 주고 저러면 화 주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하면 십만원짜리 선물, 못 하면 400원 벌금 내라’ 왜 400원 벌금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선물 사주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 이야기를 해 봅시다.

십만원은 감동이 별로 안 된다면 설교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천원을 투자해서 백만원이 나오는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니까 안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아야 하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이 얼마인가는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이 백분의 일만 되어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천원 백번 넣으면 사십만원밖에 더 됩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사십만원이면 백만원이 나오는데요? 도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하는 겁니다. 로또나 복권은 액수는 크지만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권이나 로또를 통해서 만약에 백만원을 따려면 최소한 이백만원은 넣어야 합니다. 확률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백분의 일만 되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천 대와 삼사 대를 도박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률로 치면 몇 %짜리 확률인지 아십니까? 이걸 확률이 너무나 높을 겁니다.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거저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첨될 확률이 100%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천원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확률 100%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박장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국은 마치 아주 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다.’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런 진주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전 밀천을 다 털어서라도 사야 된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향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싹 덮어놓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걸 사야 하는 것, 무조건 사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손해 보면 사천원, 당첨되면 백만원, 당첨 확률 100%!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십만원, 백만원 가지고는 욕심이 잘 안 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천 대까지 갈려면 몇 년 걸려요? 천 대까지 복 받으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중에 어느 분이 가장 양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 분의 몇 대 손이 되십니까? 낮에 이집사남에게 무슨 이씨냐고 했더니 광주 이씨 24대손이랍니다. 겨우 24대야? 나는 남양 홍씨 34대인데?

이렇게 말하는 대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아주 오래된 양반이면 거의 30대 중반쯤 될 겁니다. 남양 홍씨 시조는 신라시대 때 당나라에서 여기로 건너왔답니다.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겨우 30 몇 대밖에 안됩니다. 어느 천 년에 천 대까지 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지...! 천 대란 표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천 대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천 대를 보지 않고, '우리 집안에 일이 잘 안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시험 치러 가서 시험지 받아들고 '이 시험 잘못 치면 벌금 400원 물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아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아들이나 손자가 죄를 당하고 벌을 당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저야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연좌제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은 그만큼 근거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은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여기 이런 말씀들과 무엇이 다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여리고 성에 있는 재물에 손대지 말라, 만약에 도적질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하는 일인데도 아간의 가족만으로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아간이 죽어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하는데 아간과 그 가족들의 죽음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을 봅시다. '그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누구 이빨이 시어요? 아버지가 시어야지 왜 아들이 시냐?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에도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보다가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하였다면 그 아들은 아비의 죄악으로 절대 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들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은 없다는 얘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연좌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비의 죄가 삼사 대까지 간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좌제라고 생각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계를 안 하셔도 부모가 아주 악한 생활을 했으면 그 영향이 아들 대나 손자 대까지 저절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나쁜 약을 복용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잘못된 성생활로 인해서 아들이 기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치면 저절로 삼사 대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사 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 대나 천 대까지 벌을 주겠다고 하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삼사 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꼭 갚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령 아비가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좌제는 없으므로 복을 받든지 화를 받든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조상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합니다. 참 고약한 버릇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답니다. 자기 탓이 아니고 팔자 탓이랍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라고 하면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역마살을 탓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전부 자기 탓이라고요.

설령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런 팔자를 타고 났다고 합시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가계에 저주의 피가 흐른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팔자가 전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당에 어떤 액운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주팔자가 궁금하거든 가서 물어 보세요. ‘사주가 더럽게 태어났는데요?’ 이런 말하는 점쟁이는 믿지 마세요, 실력 없는 점쟁이입니다. 아니면 내가 시원찮게 믿고 있거나.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든 머시기든 전부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팔자나 운명으로부터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천 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누구 탓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탓이라고 합니다. ‘너 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는 너 하기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선택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대충 이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내 탓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가 ‘공부 잘 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선물을 사 주곤 했는데 그게 자기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커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준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영남음악학원에 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에 산타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너 올해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고 정신이 들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두, 세 해 그랬을 것입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시는지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딱 안기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느 해 성탄절 아침에 깨어서 한다는 소리가 “산타할아버지 목소리가 헤리 아빠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더라” 그 다음 해부터 산타할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어떻게 압니까? 어릴 때는 정말 산타할아버지神通하다고 생각했고 고맙게 여겼겠지요. 어느 해 문득 산타할아버지 목소리가 헤리아빠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이전에 다 준비하셨으면서도 ‘네가 잘 했고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만한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내 탓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탓이야.’ 그래도 우리가 자라서 생각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탓이야’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삼사 대’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하시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진짜 벌을 주시려면 겨우 그 정도만 주시겠어요? 그게 징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흉내만 내시고 복을 주실 때는 엄청나게 펴붓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참 큼니다. 얼마나 커요? 오늘 가서서 족보 다 뒤져서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후손이 앞으로 얼마쯤 복을 받을 것이지요. 천 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겨우 삼십 몇 대밖에 못 왔습니다. 언제 천대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고 할 때 복의 양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징계도 많이 받았고 야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은 뭘니까?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먹고, 암반수네요, 그걸 먹고 산 겁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단도 맞고 징계도 맞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세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 기적은 잊어버리고 야단맞은 것만 기억하면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광야생활을 꼭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행복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뭇 때문에 ‘삼사 대 화를 주신다’는 말에 연연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무슨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가계에 무슨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품안에서 이제 내가 천 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천 대 가려면 천년만년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병어리 개와 눈 먼 양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들의 짐승들이 삼림 중의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궤환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 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래 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점으로 일으키라 [개역, 이사야 56:9~57:13]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드렸던 설교 제목을 불러 드릴 테니까 기억이 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아들의 수고’, ‘살다보니 이런 날도’,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가장 최근의 것이 ‘아름다운 틀림’이었습니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소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겪으실 것을 53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전혀 소망이 없던 과부에게 최고의 남편과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자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붙인 제목이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는가! 그런 날이 되면 할 일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틀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칼빈의 말을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3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꼭 이야기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인데 이 아름다운 노래를 꼭 불러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러니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야단을 치실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잘 살아야 되지요? 돌아와서 얼마쯤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엽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때를 염두에 두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얘기가 이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간 것을 예언하면서 그 속에 초림과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직전까지 그러니까 56장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간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거의 초림의 예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56장 9절부터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본문부터 앞의 내용과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제3이사야, 중간 부분을 제2이사야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이사야가 다 기록한 걸로 인정합니다. 내용상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여기에 느닷없이 나오는 이 책망이 누구에 대한 책망인지 살펴보십시오.

9절에, ‘들의 짐승들이 삼림 중의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들짐승도 오고 산짐승도 와서 다 삼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10절에, ‘파수꾼은 소경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 무지하며**’ 소경은 아예 보지 못하지만 무지라는 것은 봐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어리 개라**’ 보고 알아도 소리를 안 지른답니다. 말도 못한다는 거죠. ‘**능히 짓지 못하며**’ 짓지 못한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 와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아예 대들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상태라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발견해 내는 눈입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든지 말을 전하든지 경고를 해야 합니다. 온 백성들이, 온 양떼가 편하게 자고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은 보지도 못하고 봐도 소용이 없고 알아도 짓지 않는 겁니다.

오래 전에 올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들어온 것 아시죠? 언제 일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68년도 사건입니다. 그 날 무장공비들이 자그마치 120명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걸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부대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서 방아쇠라도 당겨 보았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락도 안 하고 당겨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120명이나 되는 무장공비들이 다 올라온 겁니다. 그 120명 다 잡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때 유명해진 아이가 지금도 진짜냐 가짜냐 하고 떠들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잘 했으면 초반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던 말입니다.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방에서 밤중에 보초 서는데 뭔가 기어 올라옵니다. 일찌감치 발견하고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한 부대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잠잠해졌는데 날이 새고 확인해 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

노루를 간첩으로 신고해서 한 부대가 난리가 났는데 그 병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잘 알아요. 포상휴가입니다. 잘 지켰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적이 쳐들어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내야죠.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고 짐작해서라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니까 다행이지 한국에서 이런 개 같으면 벌써 보신탄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무능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지도자라고 범사에 무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지 못하고 생각 없고 말도 못하다고 해서 다른 일도 못할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는 말처럼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도 10절 뒤편에 보면 잘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누워 잠자면서 꿈꾸는 것은 잘 합니다.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영락없이 개 꿈일 테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어디 있는 자이든지’ 하는 말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그 다음에 잘 하는 것 또 하나 나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술 먹는 일에는 손이 참 큼니다.

남 돕는데 인색하고 생활비 내는데도 인색한 분이 나가서 술 먹을 때는 펍 펍 쓰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술꾼들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크게 한턱 낼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 돕는 일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먹으러 갈 때에는 호걸 행세합니다. 자기가 큰 소리

쳐 가면서 그어댁니다. 할 일은 못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오늘도 내일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대구지방이 현 정부에 하도 비판적이어서 견배할 때 협약해요. 제가 듣고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 공직자가 술자리에서 함께 견배한 모양인데 결국은 문화예술부에 제법 높은 분이었는데 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도자들이 술을 먹을 때 견배하는 소리가 12절 끝에, '내일도 오늘같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로 고생 많이 할 때 모여 앉아서 견배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대로' 했답니다. 좋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좋더라는 겁니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평소에는 길이 꽉꽉 막히더니만 IMF터지고 나니까 길이 조용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되어야 다니는 맛이 나는 거지' 하고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이자 낸다고 허리가 휘청거리지만 돈 많이 저금해 놓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남으니까요. 그게 좋다고 '이대로'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풍토가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술 먹을 때만 큰소리 치고 '내일도 오늘같이' 이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난을 받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니 누구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꼴하고 혹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민족의 지도자냐? 내가 어디 지위가 높으냐? 그런 관계를 따지기 전에 여기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꼭 주일학교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본을 보여 줘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병어리 개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외칠 것을 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 전에 내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세요.

지도자들이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57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러면 백성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겠지요!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고 합니다. 의인이 죽든지 자비한 자들이 사라지든지 간에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들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의인이 죽고 자비한 자가 사라져도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이 백성들이 음욕,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욕과 음란은 우상숭배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 잘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음란한 곳에 빠져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세요. 알아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다룰 줄 알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뭘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데 잠시만 눈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런 일에 빠져 있으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행동에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위해서 침상을 준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침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7절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어디 침상을 펼 때가 없으면 높은 산 위에다 펴니까? 공개적인 장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도무지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 ‘네가 또 기념 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높은 산에다 침상을 펴고 그 다음 하는 것이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성경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음란에 빠져 다른 남편을 위해서 침상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하는 언약이라면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돈 얘기 아니면 시시껄렁한 사랑타령 아닐까요?

9절에,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고 말합니다. 10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생되었음으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지칠 줄 모르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면서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지치지도 않는 이 꼴을 한번 상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여기에 ‘제비뽑아 얻은 것’이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땅을 분배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셨으니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버린 겁니다. 너희가 제비뽑아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이 너희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 돌 속에서 너희가 소득을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돌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 혹은 우상 그 자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기업을 버리고 이 우상을 자기의 기업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주었더니 이걸 버리고 우상에게 매달려서 살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시면 ‘네 기념 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과 문설주는 굉장한 장소, 반드시 기념할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는 그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났으니 그 곳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기념할 만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라고 했던 바로 그 문과 문설주에 기념 표를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이 기념 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났던 그 숭고한 장소에 우상을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곳이 우상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책망을 받아 마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남편을 주었는데도 외간 남자를 따라가서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죠. 정말 소득 좋은 직장을 구해줬는데 이거 갖다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념품을 줬는데 이걸 갖다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머나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했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실 것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다면 하루에도 열두 번이나 더 갖다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무섭게 징계를 이야기해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57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사실은 그가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 편히 쉬느니라’** 이들이 먼저 죽었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가하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빼돌려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집에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며 그들 중에 제대로 장례가 치러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때 어린아이 하나가 먼저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이 아이가 가장 복된 아이다 이 아이만 장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것이다. 다른 남자는 아무도 장례 치러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죽은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죽은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는데도 그것이 복인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뒤집으면 그것이 복이 될 만큼 끔찍한 심판이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군대에서도 힘든 훈련을 하다보면 가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죽자고 고생을 하고 기고 있는데 혹시 훈련시키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놈 봐라! 너 이리 나와”**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끌고 나갑니다. 끌고 갈 때는 야단났다 싶을만큼 고향치며 끌고 가더니 뒤에 가서는 쉬게 하는 겁니다. 가끔 고향만 지르죠. 아는 사람을 힘든 훈련에서 좀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진짜 징계가 임할 때 그렇게 따로 빼놓겠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뭐 부를 일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부릅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부를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3절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해 놓고 4, 5, 6, 7, 8, 9절까지 아주 책망하는 듯이 보입니다. 연결을 잘 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3절을 13절 중간쯤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럼 중간에 있는 것은 뭘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너희라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그 뒤의 긴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한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런 너희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내보내서 사거리로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 불러옵니다. 그걸 3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불러왔는데 불러 온 사람이 그 잔치에 다 들어가지 않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쫓겨냅니다. 거기 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준비해 줍니다. 준 예복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주는 예복을 안 입은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다 오라는 거예요. 나아와서, 13절 중간쯤에 보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러죠. 그렇게 나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대적자를 향하여 쫓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께 그만큼 은혜를 받고도 이럴 수 있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꼭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병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있어지면 좀 느긋해집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 더 잘 섬기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 탓하고 남 탓하고 있으면 절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 탓도 아니고 또 이 백성들 탓도 아니고 무조건 내 탓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 길이요 교회가 튼튼하게 서는 길이요 나라가 바르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온 세상이 병어리 개와 눈 먼 양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참 아름다울 것이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개역, 야고보서 1:1~11]

제가 어릴 때 듣기로 믿음의 거장인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믿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칭송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속해 있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 어린 제 소견에도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게 상당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아주 큰 오해더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생각하거나 듣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시절에 그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신학교 가서야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오해를 크게 하였느냐 말입니다.

루터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기 예수를 낳은 말구유에 그냥 눕히면 딱딱하니까 그 사이에 지푸라기를 넣는 겁니다. 그 지푸라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지푸라기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와 비교했을 때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지푸라기라고 했더라구요. 이런 문맥을 전해주시 않고 단편적인 말만 전해준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쓸데없는 서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도 그 위대한 루터 선생님께서 오해를 좀 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말을 루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얻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해도 그건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닥쳐오는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믿은 사람들 혹은 믿었지만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에 유용한 글인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미 믿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성장해 왔다면 야고보서가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갈라

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갈라디아서보다는 야고보서가 더 요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번갈아 갈라디아서와 비교해 나갈까 합니다.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에 차이가 난 것 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나 구원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련을 겪었을 때 인내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컨대, 학교 잘 다니는 학생에게는 학교의 중요성을 말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셈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낼 때 소원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뜻합니다. 완전히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의 **‘구비하여’**라는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고 구비라는 말을 썼으니 세 번이나 썼는데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도 결국은 완전하다는 말이죠? 야고보가 이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온전해지기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온전하게 되려는 성도들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고난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만약에 이런 박해나 시험에 굴복하면 너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서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치르러 가는 아이들에게 “너 오늘 기분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야 시험이네! 너 정말 기뻐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험을 참아라, 잘 처라, 지지 말고 이겨내라. 이런 말은 어울리는데, 시험을 기뻐해라? 이것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그 말을 듣고 시험 치러 간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 기분 좋다’ 이런 아이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 보셨어요? 야고보가 바라는 것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걸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웃고 있습니까? 잘 치면 장학금도 내 것, 수석입학도 내 것 이런 아이면 시험지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보통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시험지 받아들고 주변아이들 보고 ‘너희들 다 고생들 해봐라. 나는 이번 시험 잘 치면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사준다 했고 학교에서 돈 나올 거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성숙한, 이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지 들고 기뻐하는 것은 돈이 생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걸 통해서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 귀한 선물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결모습은 연세 많이 든 노인 같은데 인내할 줄 모르면 아이입니다. 조금 짜다고 ‘아이 짜라’ 철없는 겁니다. 조금 덥다고 껴다 껴다 하는 것도 철없는 일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 테죠? 에어컨 바로 앞에 앉아서 춥다고 덜렁 꺼버려요? 안됩니다! 에어컨 틀어서 앞쪽은 추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추위를 잘 못 견디는 분은 에어컨에서 좀 먼 곳으로 가서 앉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워도 좀 참고 추워도 좀 참아야 어른이지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 조금만 차도 춥다 이러면 아기입니다.

바둑 기사들 중에 이창호의 별명이 '애늬은이'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이인데 늬은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에 도통한 사람은 강태공입니다. 고기 한 마리 낚겠다고 겨울에 얼음 깨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보세요. 그래서 이창호의 별명이 애늬은이라고도 했지만 강태공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우리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간하려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인내입니다. 스스로 참고 자제할 줄 알면 어른이고 성질이 나면 나는 대로 떠 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냥 퍼 부어버리는 사람은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물 중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요? 12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긴긴 세월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마는 묵묵히 만듭니다. 노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 나간 듯한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아들들도 대단합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약간 맛이 간 듯한데 집 나가지 않고 함께 거주했던 며느리들도 보통 아닙니다.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다들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그 긴긴 세월동안 얼마만한 인내가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긴긴 세월동안 쫓겨 다니면서 사망과 나와와 사이는 한걸음 차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런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인내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언제 났어요? 몇 십 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긴긴 인내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의 인내도 한번 보세요.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무슨 팔자 고칠 것이라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다가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또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 가서도 또 열심히 합니다. 인내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의 인내 아시죠? 참고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년 이십년 훈련시키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시나 봅니다.

은 집사님이 지난 주에 책을 한권 주셔서 내용을 알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다시 봤습니다. 갈대상자!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그 책 보시면서 웃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대목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땅바닥 두들겨 가면서 한참 웃었어요. 갈대상자를 읽으면서 울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안 울었으면 마음이 엄청나게 강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 보면서 웃으신 분 계세요? 김영길 총장이 '하나님 나도 신문 한번 뵈까요?'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잘 인용하는데 김영길 총장이 그 부분을 참 좋아 했대요.

전영창 교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신 분이데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1호입니다. 이 분이 미국의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산골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를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그래서 보따리 싸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눈물 콧물 흘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번에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남아 있는 마지막 재산 팔아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광고하고 나도 끝낼랍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굴 밖에 나와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너 말할 수 있느냐?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하고 내려왔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더라. 그 부분을 김영길 총장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신문 한번 뵈까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프면 '전영창 교장이 신문 한번 내 볼랍니다 할 때 하나님, 겁나서 도와주셨죠? 나도 한번 내 버릴까요?' 했을까요? 아픔이 묻어나

면서 동시에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 웃음이 코미디 같습니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때를 써야 할 만큼 아픈 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일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이입니다. 교회 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계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서 조금 일하더니 일이 있다고 집어치워 버리면 어리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런 행동은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내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시험이 닦쳐왔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인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다른 점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시험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의 구렁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인내를 키워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다가 어떤 선교지에 갔습니다. 거기서 요구받은 사항은 하라 하는 대로만 예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그러다가 왔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던 분이 거기 가서 하라는 일만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처음에 가서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그렇게 더러운 곳에 가서서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 하는 것만 일주일을 하고 왔답니다. 갔다 와서 이 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인내를 배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돈 쓰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 넣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인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인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죠?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 참으라고 했지? 지금부터 내가 널 썰 테니까 490번까지 참아’ 이러고 한 대 두 대 패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걸 마귀의 짓입니다.

아이들은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성이 날 것을 알면서 또 그가 참고 잘 견디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 짓 아닙니까?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썰 테니까 너 참아봐! 예수님이 참으라고 했잖아?’ 그거 아니예요? 우스운 일입니다.

형제간에, 부부사이에 혹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 하는 것을 알거든 인내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적잖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 때 쓰십니까? 학교 점수 더 얻으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 얻어서 무얼 하시렵니까? 돈을 좀 벌려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사하는데 장사머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래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 공부 좀 더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 구절을 부어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야고보가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마치 영생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저 무리들은 떡 얻어먹으려고 와글와글 모여들고 있던 말입니다. 섭섭하다는 이야기죠.

야고보가 왜 여기서 지혜를 언급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공부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볼 때는 좀 섭섭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야고보가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나는 다른 이런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1장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2절, 3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시험을 당해서 온전히 인내하고 이겨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 이길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게 바로 지혜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무지 흔들리지 말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9절, 10절에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 아마 재산이 없는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기죽지 말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 가난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남한테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요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라,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린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날 싸우는데 부부도 사랑 안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못 살겠다고 집 나가버린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해요. 그런데 작은 아픔을 처리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살아? 적당하게 수도 부릴 줄 알고 적당하게 비빌 줄도 알아야지'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인내하면서 참고 또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급한 전화를 받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42살인데 암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도 했고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위로하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 부인이 오히려 찾아간 우리를 위로합니다.

"기도원에 가 있었다는 소식은 그전에 들었는데 살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지 못한 것이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병 고치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름 받아서 갈 몸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먼저 가나 늦게 가나 우리 다 같이 가서 만날 겁니다.” 이러한 바람에 위로하러 왔던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서서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한 지혜입니다.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한마디 뱉어 버리고 좀 하다가 그냥 집어 치워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인내도 없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시련을 위해 인내를 배우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넘어갔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참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치러 간 사람들은 항상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10원짜리 얻으러 갔다가 몇 백만원짜리 수표 하나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던 삭개오는 한번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내산에 불구경 갔던 모세는 가서 불만 구경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후하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쓰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이들 가르치시면 “알았니?” 하지 마세요. 한마디 설명 해 놓고 알았니? 알아들었니? 알았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면 으레껏 아이들은 예라고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라고 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묻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공부를 가르쳐 보면 남학생들은 난장판을 치는 것 같아도 듣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시험을 쳐 보면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떠들고 시끄러운 머슴아들보다 얇전하고 정말 잘 듣고 있다 싶은 애들이 실제로는 안 듣고 있어요. 거기다가 “알았냐?” 그러면 “예” 그러죠.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비슷하지만 써서 안될 말은 ‘그것도 모르냐?’ 입니다. 자기 집 아이들을 왜 못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조금 하다가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알았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믿음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인내를 소유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인내와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내와 지혜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위에 인내할 줄 알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거기에 인내와 지혜까지 소유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지 받아들고 기뻐하는 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시험지 받아들고 '이 시험 잘 치면 진짜 떡이 생긴다'고 하며 웃어가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빙긋이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실라고? 그런 재미를 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이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 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무론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던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개역 창세기 49:1~28]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 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개역, 역대상 5:1~2]

야 곱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르우벤요? 르우벤은 족보상으로만 장자입니다. 역대상 본문을 보면 명분상으로는 요셉이 됩니다. 그래 놓고 유다 얘기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유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복잡해졌습니까?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장래사를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집안은 원래 손이 귀한 집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보세요. 백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하나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간신히 40에 장가갔습니다. 장가가서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하도 요동을 쳐 대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이 귀한 집안에 야곱이 아들 열둘을 낳았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은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자랑스러

운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아들 대단하죠! 저희 형제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은표가 나고 그 밑에 딸을, 4촌까지 포함해서 일곱인가 여덟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고 딸 일곱 여덟 낳았으니 애들이 구박을 안 받죠, 홍은표 안 나고 딸 일곱 여덟 낳았으면 이 애들 다 우리 집에 놀러 못 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늦게 장가들어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히브리 글자의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하면 아들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르우가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이게 르우벤입니다. 첫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왜 나중에 족보상으로는 장자라 해 놓고 장자의 권한을 다 잃어버렸느냐 말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권한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르우벤이 언젠가 자기 서모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로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르우벤과 서모는 나이 차가 아무리 적게 나도 한 이십년은 날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사고를 칠 때 자기보다 나이가 이십 세나 많은 여자와 사고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죄는 용서도 되고 되돌릴 수도 있는데 간통은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도 진정으로 깨끗이 없었던 것으로 용서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도 종목을 잘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십세 연상의 여인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아래쪽은 말할 것도 없죠? 노아홍수의 주된 원인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이유도 성적인 문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는 것도 성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대한 범죄로 다루시는데 반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가끔 남자 아이들이 '영웅호걸은 술과 여자에 능해야 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영웅호걸의 좋은 점은 안 닮고 그저 그것만 닮으려고 그러느냐?" 알게 모르게 남자들은 이런 뭔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평생에 꼭 한 여자에게만 온갖 사랑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르우벤은 자기보다 스물이나 더 많은 서모와 간통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족보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장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 이것이 '보라 아들이라' 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르우벤은 만이 노릇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동생 잃어버린 책임마저도 자기가 뒤집어 쓰지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가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곡식 사러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죽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런 모습으로 족보상의 장자로만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시므온이나 레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과격해요. 세겔 성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겔 성 추장의 아들이 진짜 이 딸을 좋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부 할례를 받고 우리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딸도 주고 함께 어울려 살겠노라고 하자 세겔성의 남자들이 전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겔 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야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몰렸습시다라는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들을 전부 두렵게 하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야곱은 부랴부랴 그곳을 떠나 벧엘로 도망을 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과격해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같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야곱이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흠여지리라고 했습니다. 거의 저주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모여서 살되 이 두 지파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흠여져 버립니다. 그런데 흠여지는 양상이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일부를 얻어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파로 이리저리 흠여져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도 모든 지파로 다 흠여집니다만 임무를 하나 부여받게 됩니다. 흠여진 곳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른 모든 지파보다 가장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전부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는 땅 파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먹고 살 근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안 주셨습니다. ‘차라리 땅 파 먹고 사는 게 좋은데?’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실질상으로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이 두 지파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지도자 모세도 레위 지파죠? 아론도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동족이라도 치겠다고 나섰던 제일 용감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동족을 향해서 범죄한 사람을 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광야에서 음란을 저질러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에 아모리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에 가는 걸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두가 죽어 나가는 이 판국에 버젓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천막에 가는 걸 보고 창을 들고 따라가서 한방에 찔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죽은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를 대신해서 내 질투 대신에 이 일을 시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는 주로 레위 지파였고, 범죄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지파는 대개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민수기 1장에 지파별로 지파 숫자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육만 입니다. 40년이 흐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전체 인원이 늘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이만이천이백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는 지파도 있고 적게 는 지파도 있지만 유독 시므온 지파만 오만구천에서 이만 이천으로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주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냈던 레위는 야곱의 예언대로 흠여집니다. 흠여지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흠여져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복 받은 지파가 된 겁니다. 똑같은 일로 인해서 흠여지는데 시므온은요 흐지부지해서 사라지는 지파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거나 아니면 팔자 타령 해도 됩니까? 궁합이 잘 안 맞고 팔자가 어찌고저찌고... 레위와 시므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팔자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

자가 변했다는 것보다는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동일한 벌을 받았지만 레위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정을 품었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화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더럽거나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좋지 못한 무슨 액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은 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레위가 될 것이냐 시므온이 될 것이냐는 우리 조상 탓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뜨거움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형님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 놓고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을까요? 여전히 추측이지만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가장 앞장 선 형님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만이 르우벤은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격파가 둘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이 과격해요. 시므온이 형입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잠깐 뒀을 때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겟성에서 할레반고 누워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 것도 시므온이 앞장섰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추측이니까 맞건 안 맞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만이도 아니고 꼴찌도 아닌 시므온을 붙들어 놓은 게 아마 그런 탓이 아닐까요?

시므온이 그 때 반성을 많이 하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광야생활 하는 동안에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 빼앗긴 장자의 자리는 시므온, 레위를 넘어가버립니다.

그 다음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유다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유다가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유다 닮았죠! 가룟유다 아닙니까!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죠?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와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닮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는지 어떤 점이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할 때 목적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팔아버린 다음에 유다가 무엇을 했어요? 동생을 죽이자고 했지만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습시다. 르우벤은 살리려고 했고 유다도 살리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 팔자고 해서 팔았습니다. 열 명이 모의를 해서 입을 닫고 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울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울고 있고 동생을 팔아먹은 형제들은 시치미를 떼고 있고 팔려간 동생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저런 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유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가출입니다. 아버지도 못 봐 주겠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생 팔아먹은 저 형제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것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가출해 버립니다.

가출해서 가나안 지역에 가서 결혼까지 합니다. 거기서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이 아들이들 자라나서 결혼을 했을 정도니까 적어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후회하고 견디지 못했다는 것과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집나간 것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가출을 해서 근 2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둘째 아들도 형수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러다가 셋째까지 죽겠다 싶어서 며느리 보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는 이 셋째가 성장했음에도 결혼시키지 않았습시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시키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시다.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하는 처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몇 년이 지나도 아들 낳기가 어렵던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하룻밤을 잤는데 임신을 해 버린 겁니다. 얼마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애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에 확인을 해 본즉 이 다말이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라는 것을 알고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며느리 다말과 다말이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시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엄마 쪽으로 보면 엄마의 시아버지의 아들. 정말 어렵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20여년 흐르고 난 뒤에 유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출치고는 너무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가진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가물이 들어서 애굽까지 가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맏형님이 나서서 말을 하는데 씨가 안 먹히는 겁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이미 아버지에게 신임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설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도 가출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유다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안 낫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권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 때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데 베냐민이 또 잡히잖아요. 다른 형제는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으라고 했는데 동생 팔아먹었던 옛날 같으면 베냐민만 남겨 놓고 다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그 형님들 전원이 잡혀간 베냐민을 따라잡니다. 잘못하면 전원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나서서 조목조목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 사정을 얘기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한꺼번에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를 애굽의 총리에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족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가 열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고' 해야 되는데 '일찍이 죽었고' 죽은 아들 어디 있는데요? 거기 듣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는 죽었고,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십년 넘게 울며불며 지내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목숨이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옵니다.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팔려 나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잊을 수 없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건넵니까? 유다는 목숨 내 걸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야곱의 가족은 위기를 벗어나지요. 가족의 위기 때에 앞장서서 이것을 타개해 나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전쟁에서도 항상 선봉에 서서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 있죠? 그게 누구 애깁니까? 그때 그렇게 용감하게 가서 저 땅을 점령하겠다고 한 사람은 갈렙인데 그도 유다 지파입니다. 싸우러 나갈 때에 선봉에 서서 싸웠던 그 위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비록 한 때는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아픔과 가족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집을 나가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이십여 년을 지냈지만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타개해 나갔는데 그렇게 수고한 그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럴 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명분상 장자입니다. 요셉이 왜 야곱의 장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을 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 갔습니다. 미움을 받게 된 동기가 뭐지요? 뻥뻥한 꿈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이 말을 잘 해야 하지만 무거워야 할 때는 무거워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했어요? 잘난 척한 거지요. 잘난 척, 자랑, 이런 것은 어쨌든 하지 마세요. '요번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이런 자랑은 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예우 차원에서 부부가 받은 월급을 합쳐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안 좋더라구요. 우리 아버지께서 월급의 총액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어려운 일 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 것도 아니고 둘

의 것을 모았으니까요. 그런데 저금하는 액수가 생각보다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용돈도 없어서 찢찢 매는데 자꾸 야단을 들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가족의 화목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봉급 봉투를 안 보여 드리기로 하고 십일조도 저희들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재정부 일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십일조 봉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런 저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고 밖에 나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본 것을 근거로 '누구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얼마를 했단다' 이런 얘기를 재정부 일 끝내고 나와서 입에 담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큰 잘못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거나 기증을 했습니다. 알리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안 밝히려고 하는데 왜 알리고 해요?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혹시 알게 되더라도 전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제가 입이 썩 편에 해당됩니다. 잘 일러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합니다. 안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이 싸야 할 때는 싸야 하지만 정말 안해야 될 얘기는 안해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말을 잘못해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리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위대해진 것은 꿈을 잘 꺾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위대해지려면 꿈을 꺾어야 돼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이 자고, 자기 전에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채 자는 사람은 꿈을 안 꾸니까. 따르릉 하면 발딱 일어나는 사람도 꿈 안 꾸니까. 일어날까 말까 조금만 더 자고 그 사이에 꿈 다 꾸는 겁니다.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꿈을 꾸려고 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되고 싶으면, 특히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좋은 꿈을 꾸어야 한데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꿈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못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는 것이 아이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 있는 아이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느냐고 물으면 쉽게 답변하시는 것이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 답변을 잘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면 형님들이 안 팔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려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단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 가서 가정 충무가 되었습니다. 좀 살만한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뿌리쳤더니 또 감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감옥에 갔더니 성경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아니 형통케 하시려면 감옥에 안 가도록 하셔야지 꼭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꿈이 없어도 그

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명분상 장자가 된 것입니다.

창 49:38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도 얻게 된 것도 자신의 분량대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나 정도를 달리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쩔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쩔이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굶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피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개역, 이사야 58:1~12]

적 장생활 하는 게 참 힘든 모양입니다. 대통령도 참 힘든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 기자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소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할 때 맞는 말입니까, 착각입니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은 사고만 안 치면 잘하는 게 아니고 무능력도 잘못이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하는 대통령의 말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싸우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그러면 답이 주로 뭐죠? “해준 게 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답이 뭐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사랑 좋아하시네?” 혹은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착각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하는 겁니다. 2절은 야곱이 하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아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의로운 규례를 내게 구하며’ 의로운 규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은근히 이스라엘을 비꼬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한다는 것이 자기들만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심은 어쩔이요’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쩔이니이까’ 괴롭게 한다는 것도 금식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야곱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착각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크게 외치라 야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알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야곱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이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 주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조용조용하게 일러 주시지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큰소리로 외칩니까?

아마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형편이어서 크게 외치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충격을 줘야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쉬를 하면 키를 썩워 가지고 소금 얻어 오라고 내 보냈죠? 소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짐작컨대 아이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키를 덮어 쓰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 온 동네 망신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충격일 것 같아요. 일종의 충격 요법 아닐까 싶은데 야곱의 죄를 큰 소리를 알리라는 것은 그렇게 충격을 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금식을 했기에 이러실까요? 3절 뒤편부터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난외주에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것이죠.

야곱은 열심히 금식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품만 잡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음식을 굶임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자신을 성결케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고 다투며 싸웠단니까 금식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금식을 했다는 거죠. 5절 중간쯤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굶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잘못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열심히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없이 그러면서도 해서는 안될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아니면 함께 앉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탄이 부부에게 시비를 거는 날이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입니다. 좌우간 토요일 저녁을 조심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대판으로 싸우고 어떻게 주일을 보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원수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평소 삶이 경건하고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신문에 ‘착각은 자유’라고 나오는 겁니다.

전에 어느 대통령은 신하들이 정말 충성스럽다고 생각했죠. 자리를 내놓고 내려왔더니 한 사람도 옆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고 그냥 알랑방귀만 뀌어대는 자들이죠. 그걸 충성스러운 신하들

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어느 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선거 끝나고 “내 표 다 어디 갔노?” 했다고 그러대요. “아니,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가족들만 해도 이것보다 더 나와야 할 텐데 내 표 어디 갔느냐?”는 애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도 큰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참 끔찍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겔로만 갖고 왔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면 흔히 하는 말로 “선물 사오지 말고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물 사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얘기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열심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나를 섬긴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만 이런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금식하는 날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5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고 그러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하려구요?

4절 중간에,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당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목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이고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은 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것이 짐승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주원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귀중하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어디 가서 결박을 당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인간이 누구 에겐가 혹은 어디엔가 결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결박을 당했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었더니 너희들이 어디 가서 또 종노릇이나? 이것이 수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다가 종으로 팔렸다고 해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육년이 지나고 칠년이 되면 풀어줘야 했습니다. 육년 동안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챙겨서 내 보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치고 때리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다른 나라의

종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며 속박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7절,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금식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속박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금식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서 속박을 풀어주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 묶어 둘 수 있는 종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7절에 가난한 자를 풀어주라는 것은 재산포기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풀어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재산에 대한 포기입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 내 권리, 내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외우는 SFC 강령의 제일 끝에 보면 우리의 생활 원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고 두 번째가 성경중심입니다. 왜 성경중심부터 시작하지 않고 첫 번째를 하나님 중심이라 해 놓았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신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에만 매이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라고?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야지라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안 먹어도 안 먹고 기도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의가 네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참되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을 행통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 동행하며 부르짖을 때 즉시 응답하겠고 내가 하는 일이 행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마른 곳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만족케 하겠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과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누가 더 불행한가요? 잔뜩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있는데도 못 먹는다는 것은 앞으로든 계속 못 먹는다는 애깁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지라도 생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맛 있습니다. 반면에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은 맛이 없어요. 있는데도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잔뜩 쌓아놓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면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물댄 동산 갈궂고’** 근동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찰찰 흐르는 동산은 꿈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곳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콧물 흘러가는 동산은 꿈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같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갈을 것이라’**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근동지방에서는 정말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네 빛이, 네 치료가, 네 의가 앞에 행하고 네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것은 너의 노력을 뜻합니다. 네가 그렇게 노력할 때에 노력한 이상의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복은 12절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수보자, 수축자? 옛날 표현인데 지금 말로 하면 보수자입니다. 고치는 자나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았고 양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았습니다.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입었던 옷이 해어지지 않은 채 40년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을 보여주는 예죠.

어른들이 흔히 ‘사람이 복을 쫓아가서는 안되고 복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란 돈을 말하죠?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번대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까 세상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르게 금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품만 잡지 말고 예배드리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렇다 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러나 싶은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집사 시절에는 우리 집만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보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것만 보면 되더니 제가 무슨 복이 많은지 걱정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효자제일교회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여기 앉아서 전국적인 않을지 몰라도 이리저리 걱정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나보고 심방 오래요, 서울로!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서울까지 심방 가냐? 전화로 하자!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잔소리 하고 있으니...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방이 쉽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해도 잘 안됩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잘 살면 어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부자가 천국가기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진짜 답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니라.”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청년은 이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거든요. 내가 무얼 해야? 내가 무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뭘 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뭘 보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왜 내 기도, 내 금식, 내 것을 자꾸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봅시다.

포도원에 아침 일찍이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대낮에도 데려왔습니다. 저녁 늦게도 데려왔습니다. 저녁 늦게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 일당을 다 받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 온 일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받았으니 아침부터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불려온 품꾼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려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아니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품과 이 성질대로 천국 간다면 겪을 수 있는 제일 기분 나쁜 일이 뭘까요? 우스개 같은 얘긴데 내 옆에 낯선 사람이 한 사람 앉았는데 “어떻게 천국 왔소?” 물으니까 “내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며칠간 믿었어요? 죽기 전에 한마디 해서 왔는데 지하고 나하고 나란히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변화 없이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어제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충성하고 열심을 낼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인이 좀 있어요. 어제 그제 온 주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비켜주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자꾸 바라보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이런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계시는지 기억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착각에 빠졌다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나 자신이 행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얼마나 해 주었는데? 이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안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전히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착각 속에 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면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개역, 갈라디아서 1:1~10]

훈 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책이 서로 상반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하는 말과 학교 안 다니려고 하는 학생에게 하는 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체발 잠 좀 자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부는 고사하고 학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애, 공부는 안 해도 학교는 마쳐야지? 내가 니 보고 공부하라고 하냐? 졸업장이라도 따야지.” 이러는 것 아니요? 대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달라 보이는 것은 이렇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 해당 됩니다. “이번 시험 잘 치면 우리 아빠가 MP3 사주기로 했다.” 혹은 “이번 시험 잘 치면 틀림없이 컴퓨터 사 주기로 했다.” 그런데 반에서 자기를 따라올 아이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시험지 받아들고 기쁠 수밖에요!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합니다. 이미 잘 믿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시련이 닥쳐오거든 인내하라,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다는 오해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서는 공부느커녕 학교를 그만 두려는 학생에게 하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공부 잘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험 잘 치고 공부 잘 하라고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1절 보세요. 바울이 쓴 어떤 성경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무슨 얘깁니까?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7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를 변하려 함이라’ 시작부터 말이 아주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던 말이나?” 말하자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형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것은 아주 강성 발언입니다. 통명스럽고 심하게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비유가 좀 좋지 않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거나 위의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마음에 전혀 들지 않으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니가 주냐? 니가 날 임명했냐?” 심하면 “사장 오라 그래!” 왜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이 사장인데 니가 왜 그러냐?’ 이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즉시 사람이 변해서 거꾸로 유대 지도자들을 꺾어서 굴복시켜 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지방의 어떤 악한 무리들이 ‘도대체 누가 사울을 사도로 세웠느냐?’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옆에 섰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를 보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뵈면서도 억지로 부정하면서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증거를 봐도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굳이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했던 것은 거의 준성령훼방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혈육이나 누구하고 의논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다른 어떤 사도들에게 배웠거나 그 사도들이 인정을 해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제자인 베드로와 내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를 책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말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인 것이 다른 모든 사도들도 인정했고 내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었다. 자신이 분명하게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만약 사도라는 것이 부정되면 지금까지 전해온 모든 진리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개인적인 불행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도인 것이 부정되면 목숨 걸고 전한 복음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복음에 대하여 주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저주 받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라고 말합

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과격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격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열심이 특성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는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 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에서 다시 과격하고 험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에 있는 넓은 지역으로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곳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 것 때문에 열을 낸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이렇게 열을 안 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을 좇을 뿐 아니라 6절에 '이와 같이 속히' 내가 복음을 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야단을 쳐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이단이라 여기고 이들을 박멸하겠다고 뛰어다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건 과격한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울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바꾸어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한 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웬수같이 지내요?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모 아닐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기꺼이 옛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 잡혀서 죽을 몸입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가 편지 하나를 들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 용서하고 '돌아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됩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행복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만난 사람도 정말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변조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함으로 참된 기쁨을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람에게는 온통 욕을 먹어가면서 그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든 기쁘게 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이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던 이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오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반대자들이 등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전해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바울에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그를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도대체 말이 안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한 그 복음이 됩니까?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야고보서와 잠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은 2장 22절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이 말을 그 다음과 연결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온전케 된 믿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아시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에 바탕을 둔 행함, 이것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부정관과 비슷합니다. 품으면 알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썩어버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글자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율법'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율법을 어린 주인과 그를 훈육하는 종에 비교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주인입니다. 이 아이를 교육하는 후견인은 종입니다. 누가 근사합니까? 주인이지만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어요. 반면에 주인의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종은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훌륭한 스승입니다만 종입니다. 율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할 때 믿음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 싶어도 그건 주인의 어린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은 로마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 말입니다.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바라지는 마세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 꿈을 꾸라고 하는 애긴 아닙니다. 그냥 상상만 해 보세요. 일하지 않고 월급 많이 받는다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내 어느 사립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처음 와서 시간표를 짜는데 열이 난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주당 20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어찌다가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다른 사람보다 많아지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4시간 많으면 일 년이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남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가 수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학교에 옮겨와서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고함을 쳤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누가 6시간밖에 없냐?"고 했더니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조용하라고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재단 이사장의 따님이라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찌했어요?

일주일에 6시간, 하루에 1, 2시간만 근무하면서 몇 년 지나면 교감자격을 얻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장

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이겠지요. 경력 관리를 위해서 선생님 흉내만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재단이사장 딸인데요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해서 문제가 되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그것보다 더해요.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다 줘요. 불법입니다. 그럼 안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월급 정도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도 영생을 받았습시다. 아니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나 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월급을 다 받고 경력 관리 다 하고 왜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 딸이니까요. 부너지간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와 결부시켜 보세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꼭 무슨 빗쟁이가 빚 맡겨 놓은 것처럼 내 놓으라고 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줘야 되지요? 왜요? 낳았잖아요! 낳은 죄가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과자 값 받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많이 나가죠? 대학 보내봐라 이러지요? 대학교 보내니까 정말 허리가 휘다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둘 보내봐라!” 아니 개들이 뭐 했다고 다 퍼 내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당당하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좀 컸다고 자기가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아빠가 “야 차비 줄까?” 하는데 “됐습니다. 아버지 얼마 받는다고?” 이거 섭섭합니다. “차 한대 사줄까?”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섭섭하더랍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차비 준다고 하면 감사하고 받아 넣으세요. 헌 차라도 사줄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달라고 그러세요. 부모 앞에 너무 그렇게 당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그것 다 필요없다, 믿음으로!’ 이러니까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헌금주머니 돌리는 것, ‘이거 돌리지 말고 헌금함을 씁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이 뒤에 십자가 하나 달려 있죠? 저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핏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붙였다고요? 그거 붙이면 어떻고 안 붙이면 어떤데요? 그게 안됩니다.

단순한 것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 꿈도 못 꿔습니다. 우리보다 더 한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예배시간에 행사 때 사진을 찍으니 “어떻게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재건파에서 왔다고 해요. 이런 작은 생각 하나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그러한데, 세상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도권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진리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세워 놓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심하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가했음에도 곳곳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믿으면 되었지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행함으로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고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필요 없는 책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일을 이루셨는지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런 감격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그러면서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휴, 입 냄새!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임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지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째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이사야 59:1~8]

오래 전에 바로 제 옆 좌석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 분 곁에 잘 안 가요.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냄새 안 나느냐?”고 물어요. 안 난다고 하니까 “날 건데?” 그래요. 그 다음날 다른 선생님이 또 그래요. 안 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날 건데?” 해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물으니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향수를 쓰는데 그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맡은 거죠. 그 날부터 저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괜히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있으면 괜찮았을 건데... 자기들끼리만 머리 아프지 왜 가르쳐 주냐 말입니다. 머리는 아픈데 별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고치거나 개선할 방법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입 냄새는 어떻습니까?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고약하게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고 함부로 가그린 쓰지 마세요. 가그린이 음주 측정에 걸립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면 질색인데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우리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짓지 아니하는 개와 같다고 책망하였습니다. 57장 1절에는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58장 4절에는 금식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잘못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59장에서는 사회적인 잘못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전부 죄악에 빠져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59장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너희 말을 들어줄 수 없고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59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마 귀가 어두운가?’ 이러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와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형제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픈 심정을 토로한다고 음식을 끊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와 주먹질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지만 나가봐라 오늘 손 좀 봐야겠다’ 이라고 있으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는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을 맞추어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고 내 방식으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을 할 때는 받는 분의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실컷 고생하고 열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냄새 나는 입으로 사랑 고백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입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겨가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빨이나 좀 닦고 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입에서 온갖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이걸 어찌겠느냐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냄새가 폴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벌려 놓았죠? 한마디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여도 가까이 가 보면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찾아보면 전부 죄입니다. 출발점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셋새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려 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큼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진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이 못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예배와 기도가 냄새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이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진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이라고 있던 말입니다.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 악독이 쏟아집니다. 손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있습니다. 7절에도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발은 못된 짓 하기에 얼마나 재바른지 모릅니다. 비유컨대 손에는 피 냄새, 입에서는 온갖 악독한 것이 다 뿜어져 나오고, 발에는 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온 몸에서 악취가 풍기는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겠느냐는 얘기죠.

술 냄새와 담배 냄새, 입 냄새 중에 어느 것이 제일 고약합니까? 모르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르고 사십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모른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막상 당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역인가? 아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 체육선생님인데 담배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사모님이 입이라도 맞추어 주나?" 본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신랑

각시 똑같은데 뭐?” 부인도 그렇게 골초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이 살지’ 부인이 담배를 안 피우면 같이 살지 못합니다. 옆에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역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입을 맞대고 살겠습니까? 아마 신랑이 그러니 할 수 없이 마주 대 놓고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냄새 고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냄새를 피웁니다. 하나님은 역겨워서 싫어요.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짓 하는 놈은 좋은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은 ‘아 잘 하는 거야, 잘 하는 것’ 이라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 소원 다 들어줄 능력이 있어도 싫어서 못 들어 주는 겁니다. 부자지간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서 못해 주겠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만 맞추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언급하시는 분은 어린 신앙입니다. 불신자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고 문제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번에 공부를 잘 했으니까 선물을 하나 사줄게” 이러니까 아이가 “아빠 돈 있어?” 합니다.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큰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사줄 돈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를 피우는 삶,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깨끗지 못한 삶에 또 다른 문제는 자기 몸에서 이런 역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입 냄새나는 사람이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 내 손에 무슨 피가 있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입에는 거짓이, 너희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해도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 외식을 했느냐?”고 합니다.

자신이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해 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야, 너 냄새 난다.” 이러면 가서 씻어야지 “어디 나는데?”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말아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내가 모르는 냄새가 내게서 난다고 하면 들어야 합니다. 옆에서 해 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충고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새겨 듣는 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설교시간에 ‘저 설교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 ‘아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라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왜 남이 들을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들을 이야기입니다.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목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내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고쳐 나가고 지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공부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입니

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신대원 마치기만 하면 남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부반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야 말이죠. 직장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는 것 다 아는 일이지만 어쨌든 짬을 내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무너진 겁니다. 제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법과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공부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거의 포기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좀 다릅니까? 얼굴 쳐다 볼 기회가 있어야 인성교육을 시키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좀 나은가요?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들을 기회 어디 있어요? 그냥 얼굴만 내밀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그러면서도 텔레비전 보면서 ‘이 놈의 세상 어찌 되려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욕만 한다고 되나요? 우리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법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뭘 의지합니까? 4절 보세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라고 말합니다. 법이 다 무너지고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아니하니 그 다음 믿을 것은 허망한 것밖에 없지요. 허망하다는 것이 뭘니까? 법으로 안되니까 부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허망하다는 것이 뇌물, 미신을 믿는 것, 사기 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 무너져 버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청맹과니였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께서 무슨 유명한 말을 하셨나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탈주범이 했는 말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 무슨 유명한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감옥에서 탈주범이 한 마디 외친 것은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이 도망다니면서 한 말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이리저리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경찰과 테모대가 싸우면서 테모대가 간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최류탄 안 쏘면 우리도 돌 안 던지지, 무탄무석! 경찰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무석무탄’ 이렇게 썼겠지요? 돌 안 던지면 최류탄 안 쏘지. 유전무죄라는 말이 아니 감옥에서 도망친 놈이 한 이 말이 왜 이렇게 유명해집니까? 사회가 그 말이 통할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그 댓가를 바라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크게 환관 하면 되는 사회입니까? 우리가 오명을 썼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도박국가라고 한답니다. 관계되는 분 계세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 년 전에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한창 복권이 유행할 때 “복권 사지 마세요, 할 마음도 품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때 백 강도사님이 한술 더 뜨네요. “혹시 사 놓은 것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복권 당첨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청약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도박입니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 사놓았는데 집 값이 올랐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투기를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투자라면 조금 달리 보아야 합니다마는 투기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뛰어들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냄새 풍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 자거나 엎드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그렇게 재빠르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보세요.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나쁜 짓 하는 데는 얼마나 빠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 손가락, 입, 혀, 발을 총동원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렇지만 신체 이런 부위는 어떤 의미에서 말단이잖아요? 줄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 신체가 이렇게 합력하여서 악을 행하면 진짜 죄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7절의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그 사상은 최악의 사상이라**’ 생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릇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온 몸을 동원해서 범죄하고 있는 거죠.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있더라도 싸우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했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했는지를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족한 것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떻게 행동을 해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 결국은 손이고 발이고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굵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할 것이라**’ 평강이 없는 것은 마음이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지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굵어모았다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애를 썼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뭐고 하니까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히자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독사의 알, 그리고 거미줄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거미줄로 짠 옷이 옷이겠습니까? 독사알인줄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지어가면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새가 독사의 알인줄 모르고 열심히 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알에서 독사가 깨어서 나오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열심히 굵어 모아서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고, 부지런히 품으면 독사가 튀어나오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하나님은 뒷전이고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출세시키면, 인성은 뒷전이고 신앙도 뒷전이고 그냥 점수만 잘 따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서 출세시키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도둑이 될 것을 큰 도둑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나 보세요. 가짜 논문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분들의 능력이나 실력은 세계 일류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가짜 논문 소송에 말려 들어가서 온 나라 망신을 다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맞나요? 옛날 같으면 문교부장관이었는데, 옛날에는 대학 교수님들이 장관을 했는데 웬만한 교수님들이 못하겠다고 사양해 버렸답니다. 논문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인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도둑 만듭니다. 온 나라 망신시킬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크게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새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은 어때요? 원래 거미줄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치는 것인데 여기 본문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6절 보세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옷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 행위로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옷의 기능 중의 하나가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줄로 옷을 짜면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투명한 옷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옷이 옷으로서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 것도 가릴 수 없는 거미줄로 만든 옷을 입고 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오래 전에 주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이 대각 온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탕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살살 제 옆에 오더니 “저 분 효자제일교회 주 목사님 맞죠?” 하고 물어요. 그 전에 만나서 인사했었는데 탕 안에서 만나니까 긴가민가 해서 저한테 물은 겁니다. 그 분이 상반신만 내민 채 목사님 곁에 가서 인사하고 목사님도 인사를 했는데 송중수 집사님 형님입니다. 오리 식당 하는 형님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백 전도사님을 불러서 소개를 했는데 초면이니까 두 사람이 별땀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옆에서 쳐다보니 얼마나 우습던지요! 거미줄로 짠 옷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잘 찢다고 입혀 놓았는데 투명한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해롭게 해 가면서 손에 피를 묻혀 가면서까지 이루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 채 피를 묻혀 가면서, 법을 어겨 가면서 굶어 모으고 노력해도 그것이 독사의 알처럼 위험할 뿐 아니라 거미줄 옷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을 드리고 노력을 해도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어찌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냄새나는 것일 가능성이 큼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드린 다음 우리의 온갖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개역, 야고보서 2:14~26]

우리가 쓰는 말은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칼은 칼인데 잘 안 드는 칼입니다.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일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지요. 가끔은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왜 판소리 하느냐?” 이래서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쓰는 말이란 도구가 완전한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내 생각이나 내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이야 뭐라 하든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못된 소리를 해도 ‘날 좋아서 하는 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미워서 그러는데도 본인은 ‘재가 날 좋아하는 모양이지?’ 이러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을 홍보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느 한 구절에만 집착하면 본래의 의도를 곡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됩니다. 가령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나 글이 한 단어에 한 사물이나 한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완전히 반대 개념을 가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령 “그 친구 영 못쓰겠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이 문장에 사용된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혀 친구가 아닙니다. 전혀 친구가 아닌데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친구라는 단어를 썼지만 내용상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면 다 같은 선생님일까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데도 우린 전부 한 단어로 선생님이라고 씁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믿음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믿음이 열 몇 가지가 되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또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여섯 종류로 믿음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할까요? 꼭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에 주목하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니까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 한다는 말이죠. ‘**자칭**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영어사전을 펴 놓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Noise*라는 단어 있죠? 소음, 시끄러운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위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Noise*에 왜 위인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위인 앞에 괄호해서 두 글자를 더 붙여 놓았습니다. ‘**자칭**’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자칭 위인, 이걸 영어로 옮기면 *Noise*입니다. 자칭 위인은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는 말 아닙니까? 옛날에 봤던 사전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더니 *Big No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위인은 심하게 시끄러운 소리라는 겁니다.

자칭 위인은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칭 믿음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 있노라**’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아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를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도 아닌데 너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자칭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짓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칭 믿음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믿음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자칭 믿음과 내용상 같은 겁니다. 양식이 없는 형제가 배가 고프다는데 “밥 먹으면 되잖아?” 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데 어떻게 “밥 먹으면 되잖아?” 합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의도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의도를 무시하고 이 본문을 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행함으로 구원받느니 논쟁하는 것은 야고보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여러 개인데 어떤 믿음인가 잘 보세요. 제일 첫 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자칭 믿음’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이진 앞의 것과 같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두개를 비교해 보세요. 너는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 너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다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믿음이 19절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 나옵니다. 귀신이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일 뿐 믿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이런 막말이 있나 싶어도 어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

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만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해도 이런 교제가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준 것이 앞에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칭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행함이 함께 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히브리인들은 이 내용을 험하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들えます.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 내용을 머리 속에 잘 그리고 있지 않으면 야고보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창세기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6절 뒤편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입니까?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녀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늘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기서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약속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하나님, 이것은 전에 주신다고 이미 약속한 건데요, 이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보태주셔야지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이미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 십년쯤 지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다 늙어가고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시잖아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십시오.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23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왜 또 이럽니까? 생각 안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전에 했는데 그것이 응하였다는 겁니다. 언제 응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 봐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고 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그마치 7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 때와 행함으로 의롭다고 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싶지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일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웃은 사람이 누구니까? 사라입니까?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의 구십 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세기 17:1)**고 하신 것이 구십구세 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 팔십오세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완전한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구십구세 때까지 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하나 겨우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땀감을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갈 때쯤 되었으면 십 수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함이 없었어요. 아니 믿는 자답게 행하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먼 훗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 때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말을 들은지 3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들은 후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도중에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잘못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행함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월이 흘러 흘러 결국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23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30년이나 지난 후에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함께 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장차 온전케 되어야 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보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언급해 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저런 잘못을 수 없이 저지르고 난 다음인 마지막에 합격한 시험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단에 올렸을 때의 나이가 열 대여섯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백 이십세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칠십 오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30년이나 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요? 아닙니다. 행함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삶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차츰차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믿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뉘앙스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안 자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하면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 찐빵입니까? 밀가루 삶은 거죠. 날지 못하는 새도 새입니까? 이름은 새인데 불쌍하잖아요! 그 중에 조금은 나는 새가 닭입니다. 왜 날개를 두고 뛰어요? 웃기는 새 아닙니까? 쫓아 보세요 잘 달리지!

다른 새들은 훌쩍 날아갈 걸 쫓긴다고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도망가는 것 보면 불쌍하잖아요? 정답답하면 지붕까지는 올라가대요 이게 무슨 새입니까? 통닭 재료로나 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남 보기도 불쌍하고 자기 보기도 불쌍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썼다고 다 친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에 믿음과 비슷해서 믿음이라고 해 주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뭐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거야 말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아무나 쉽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보 믿음이지만 차츰차츰 자라가는 믿음, 이게 귀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점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 결국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도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행함도 급수가 있는 겁니다. 종류가 좀 달라요.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이 같은 행함이라고 보시면 바울서신이나 야고보서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분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합니까? 사실은 두 분이 쓰고 있는 '행함'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인데 두 분이 한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두 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언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그렇게 완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막아내는데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듯이 행함도 급수가 있습니다. 초보 행함이 있고 고급 행함이 있는 셈인데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행함이 뭐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보자."고 말할 때 뭘 내 보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고, 찬양대 몇 년 봉사했고... 이러실랍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행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큰 행함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내 놓을 거냐?"고 하시면 다른 것은 나중에 내 놓으세요. 일년 열두 달 단 한번도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 다 참석하면 대단한 행위입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대단한 겁니까? 일년 열두 달 주일 낮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도 빠진 적이 없으면? 주일 낮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예배 거기다 새벽기도도 빠진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살아 생전에 절대로 온전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데 팔십오세에 시작해서 30년이 걸렸다면 여러분은 얼마만에 이렇게 자라기로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구나' 하고 칭찬하실 때를 앞으로 몇 년 잡으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삼십년을 주셨으니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입니다.

행함도 단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초보적인 행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두 주 전엔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

더니 두 명이 손을 들어요. 손 많이 들 줄 알았는데 두 명밖에 안 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다 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아 왜 손 안 드니?” 하니깐 한 녀석이 바른 말을 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사람 손들어 봐라 해야지요?” 제가 한 대 맞은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예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살려 보낸 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를 완전히 멸하게 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감사하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희생할 여유가 생기죠.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버리고 남 주면서도 즐거운 것, 이것이 아마 행함 중에서 제일 고수의 행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함이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지 않았느냐? 목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자식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하다가 죽은 것이라면 믿음 없는 행함은 태어나지도 아니한 거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언급의 대상도 아닙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정말 행함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전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래서 야고보서를 강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심하고 좀 더 움직여라.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귀신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설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귀신들이 알아보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막 이려고 있는데 대단한 행위잖아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해도 믿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것이나 궁리하고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하다가 야단이나 맞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 귀신의 믿음은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더 매달렸지만 결국은 버림받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진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야단이나 맞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권유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가능케 하는, 작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시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소경같이 답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꿈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없느니라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 이사야 59:9-21]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 해 전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으니까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뭘 걱정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작권 환수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십니까? 아니면 FTA요? 헌법재판소 소장 문제로 고민을 좀 하십니까?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게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 하나만 걱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해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파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제 역할을 해 나갈 텐데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찌다보니 요즘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내 큰 길에 나가 보세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30, 40년 후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직도 많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몇 십 년 지나면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옛날, 이사야는 망해 가는 조국을 보면서 고심하고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암담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생각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 아냐? 혹시 손이 짧은 것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손, 너희 입, 너희 발에 온통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참담한 현실이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이 참담해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힘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으면 정부를 뒤집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좀 갈아 보시겠습니까? 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 저런 국

회의원을 내가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저들을 바꿔치기 할 수 없을까요? 짜증은 나고 성질은 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번 선거 때 잘 찍어야지? 잘 찍는다고 해도 그분이 그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59장 3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던 이사야가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 뿐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3절에서 너희 손, 너희 손가락, 너희 입, 너희 발에 피가 묻어서 냄새가 난다고 책망을 하던 선지자가 9절에서는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무슨 애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던 선지자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백을 시작합니다.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너희가 라고 책망하던 선지자가 갑자기 '우리가' 이릅니다.

이 말씀은 탄식이나 절망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13절, 14절로 넘어가 보면 기도로 이어집니다.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서 선지자는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너희 손이, 너희 입이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가 뭘 하겠어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여러분, 혹시 소경같이 담을 더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하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읍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해가 있을 때 읍내에 잠시 나갔다가 어두워져서 돌아오는데 가로등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름이었습시다.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마을로 가는 길일거야' 하고 꺾었더니 담벼락에 부딪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벽이 안 보여요. 군대 갔다 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는 야간 정숙 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쪽 내밀어서 안 부딪치면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걷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읍내에 나갈 때 음력날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소경같이 더듬었던 경험인데 정말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겁니다.

10절 끝에,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불행 중의 불행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 혼자 못 살면 이거야 말로 진짜 불행입니다. 다 같이 배가 고프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배고프면 이거 정말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대원에서 저 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 한 열 명이 자주 모였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씀 하나가 '빨리 졸업해야죠. 정상으로 다 졸업해야죠.' 입니다. 다 가고 혼자 남아 있어 보세요. 혼자 낙제를 하거나 점수가 모자라서 남아 있다고 쳐 보세요 한 학기를 더 하든 한 학년을 더 하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임래하여 발하니 공평이 뒤로 물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탄식이나 절망이나 비명이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것은 악의 소굴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면 가만 두지 않

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이기적인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행한 처지를 당하고 말았지만 선지자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면서 희망이 썩 터 옵니다.

가끔 남의 집 아이들, 아니면 남의 집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복도 많다’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 잠시 접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드리고 살았으니 이렇게 복 받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찌면 저렇게 복도 많을까 이러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 가슴 아픈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뻐 아니하셨습니다. 이진 참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뭘 하나님께서 기뻐 않으십니까?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워줄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고 아파해줄 만한 중재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못한 자식인데 저 자식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중재자가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중재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6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중재자가 없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을 간추린다면 ‘아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 냄새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데려가서 씻기든지 입에서 나는 냄새는 아빠가 데리고 치과에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 없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능력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홍수로 심판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다시는 매를 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안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때리면 썩도 안 남아 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안 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포기 비슷합니다.

자식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이제부터는 야단도 안 치고 매를 안 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겠느냐 말입니다. 매를 안 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포기는 안 되네요. 포기는 안 되고 매는 안 들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방법이 없으니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옵니다. 집 나간 아내를 몸 값을 주고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데려옵니다. 개과천선했기에 데려옵니까? 아니요! 다른 남자와 눈 맞아 도망쳐 버린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노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었잖아?”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겁니다.

초신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네 입으로 믿노라고 말하고 네가 네 발로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네게 엄청난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고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까지 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17절,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갑옷과 투구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 표현이고, 속옷과 겹옷은 보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원수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과 보복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무장을 하셔서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해롭게 한 무리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했던 자들을 보복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원수 노릇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비유입니다마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겹옷과 속옷을 입고 완전무장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곧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말하고 하나님의 대적에게만 일어나는 간단한 보복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죠? 섬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참 많이 나오는데 땅 끝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동방, 서방, 섬들까지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9절 뒤편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라’ 하수는 큰 강물입니다. ‘큰 강물이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큰 강에 독이 있어서 강물이 막혀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어찌다 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때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동방에서 서방에서 저 섬들까지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몰려들어오는

것도 지켜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계곡을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오실 것이니 누가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21절이 또 설명을 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네 후손의 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신과 또 나의 말입니다. 나의 신, 성령이죠? 나의 말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전에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을까 하고 꿈 열심히 꾸지 마세요. 전에도 우스개 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계시를 받으려면 많이 주무세요. 자기 전에 많이 잠수세요.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뒤척뒤척 그러세요. 그럼 계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꿈, 환상 아니면 어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투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전해줬더니 그것은 안 보고 엉뚱한데서 매달린다?’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민되는 이런 저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성경구절이 떠오르면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평소에 들어있어야 어려울 때 떠오르죠? 입력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떠올라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의 입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치러 가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된 것이 점치는 집 앞에 ‘기독교인 환영’ 이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이사야 59:21)’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 입이 이전에 어떤 입이었습니까?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입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향내가 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입에서 아주 깔끔한 향내가 풍겨져 나올 것이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56장에서 5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가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책망 받을만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돌아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을 때는 책망을 해 봐야 고통스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본래 목적은 회복입니다.

실컷 책망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안 되니 내가 해야지 어떡해?” 이럴 때 부모들이 잘 쓰는 말이 뭐니까?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 낳은 죄밖에 없지 않느냐?’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낳은 죄 몰라?’ 제가 할 말이 없대요. ‘아,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낳은 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 ‘아, 참 하나님, 낳은 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얼마나 말 안 듣고 애를 먹이는지 모릅시다마는 그걸 다 참고 참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낡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더 심했죠. 왕정시대요? 제대로 된 왕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모든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옛날에만 그렇고 오늘날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사람을 바라보면 걱정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이런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60장 1, 2, 3절이 앞의 장면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의 네 빛으로 열 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59장, 58장에서 책망 받고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맛을 아느냐?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개역, 갈라디아서 2:15~21]

이런 구인광고가 두 가지 붙었다고 칩시다. 하나는, 일 안 해도 한 달에 150만원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이 적습니까? 한 달에 150만원 못 받는 데가 많더라구요. '일 안 해도 150만원 보장해 드립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열심히 하면 150만원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노력하지 않은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그런 일도 없으려니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 욕심 없이 애쓴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붙어도 잘 안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거저 준다는 말을 좋아하는 듯싶지만 사실은 속지 않습니다. "이거 손해 보고 드립니다." 해도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손해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값을 제대로 지불해야 제대로 된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값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값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붙여 놓으니까 잘 팔리더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값을 제대로 지불해야 물건이 제대로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만한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안 해도 공짜로 주겠다는 말처럼 어딘가 모르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한평생 외친 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월급을 주겠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듯싶는데 왜 바울은 한평생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외쳤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아무 것도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이런 것들은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느 것이 더 솔깃한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썽에 익숙해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한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바울이 사도가 맞긴 맞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조차 의심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지만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절로 믿어지더라구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질게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사도권을 옹호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나? 그 얘기를 아주 강한 톤으로 언급합니다. 1장 1절 보세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편지를 쓰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장 11절 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2장 9절에도,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먼저 사도된 제자들도 이것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에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나중에 사도된 그가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합니다. 사도가 맞느니 안 맞느니 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저 분이 목사 맞긴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연구하고 전하기도 바쁜데 "목사 맞아? 어디서 제대로 교육은 받았어?"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괴롭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목사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만 쉽게 아는 방법은 교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당한 꼴이 그겁니다. 자기가 잘 가르쳐 놓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3장부터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내가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두 내용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감격스럽게 잠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몇 해 전입니다라는 광고에, 어느 유명한 배우가 보트에 누워서 고향치는 것 있죠?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나는 정말 행복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 줘도 모르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게 맛을 아느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콩을 잘 안 먹죠?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밥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데 밥에 없어서 주면 하나씩 가려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가려내느냐?" 하지만 안 듣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만 안 들으면 한 두 번 하다가 말아야지요.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싱싱한 가오리 무침 너무 맛있더라." 거기서는 무엇을 맛있다고 합니까? 폭 썩은 것! 가오리 썩힌 것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제가 입을 한번 대어 보았는데 거북스럽더라고요. 입에서 귀에서 바람이 폭폭 나와야 그게 진짜라는데, 그렇다면 전 진짜를 구경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오리 싱싱한 것이 맛있더라고 하면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을 쳐다보면 참 불쌍하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이라고 외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우기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맛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서라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둘로 쪼개어 본다면 앞부분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서 간략하게 추려 보겠습니다. 우선 15절과 16절을 빼대만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몇 자 건너뛰어서 ‘로되’라는 말 있죠? ‘우리는 유대인으로되’ 또 조금 건너뛰어서 16절 중간쯤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연결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더라.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16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온전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컨대 율법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치 전등불이나 호롱불을 켜 놓고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전등불이나 호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등을 켜는 것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스위치도 올려야 하고, 고장 나면 고쳐야지요, 수명이 다 하면 전구도 바꾸어야지요. 형광등에 왜 불이 안 오는지 전구를 움직여 봐야죠? 초크전구를 넣었다 빼었다 해 봐야지요? 그것도 안 되면 안전기 갈아야지요. 전기세도 내야지요. 복잡합니다.

태양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스위치를 올려요, 세를 내요, 고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커튼을 열면 됩니다. 아니면 밝은 곳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전등불이나 호롱불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헐어버렸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헐어버린 그 율법을 다시 세워야 하느냐?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범법한 자라는 말은 배신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배신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팽개치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소절 건너뛰고 ‘죽었나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비명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건 전혀 율법 준수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까지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채소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작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채소 하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십 원짜리까지 십일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율법의 정신까지는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충실한 그가 이런 비명을 지른다면 이걸 믿어줄 만한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별 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심지어 부인이 많은 것이 다 허무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제가 “돈? 그거 허무한 겁니다.” 이러면 별로 말 발이 안 서요. 솔로몬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 “이거 다 허무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맞는 말입니다. 다 가져봤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이걸 맞는 말입니다.

다시 19절 그 다음 부분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겁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헤어지기만 해도 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죽은 겁니다. 죽은 자식 붙들고 아무리 눈물 흘려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제 선생님 중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 ‘술 안 먹는 티를 좀 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술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갈 즈음에 처음 보는 선생님이 막걸리 한잔을 무심코 권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잠시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무심코 그걸 받아들고 단숨에 마셔버렸는데 ‘어 잘 먹네?’ 이렇게 된 겁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두 달 동안 살았지만 그 분이 술과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술이 자기와 죽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심결에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척 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랑한 것이 자기 부친 성함이 한혹구씨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옛날 중학교 책에 ‘보리’라는 제목의 수필이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차에 싣고 가던 나무로 된 술통이 떨어져 아스팔트에 짹 깔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빨아 먹었다는데 그 아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술을 많이 드셨던 분입니다. 아닌 척 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전화해서 “좋은 데 놀러갈 데 있는데?” 하고 전화 오면 “오늘 주일이잖아?” 그래서 갈 마음조차 없다면 죽은 겁니다마는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필 주일이라서 안되겠다.” 이러면 아직도 뭔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야, 공돈 생길 일이 좀 있는데 생각 있냐?”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으면 그 공돈하고 나는 끊어진 것이지만 “가보고 싶긴 한데 내가 참...” 이런 생각이 들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행위와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아무 것도 안 했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이 헌신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행위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면서 그가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왜 그래요?

행위와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넘쳐 났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니까? 나는 아무런 행위 없이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사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는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모양은 비슷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감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을 다시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 외우신 분 많죠? 외우면 외울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구절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사울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나를 죽였지만 믿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겉데기는 사울이지만 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에 매여 비명을 지르던 그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외침 아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율법을 따를 때 지르던 그 비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맛을 아느냐고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따라가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냐는 겁니다. 놀라운 감격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는 이 감격,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구인광고 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 때에 열심히 일하면 150만원 보장하겠습니다. 이것만도 참 감격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심한 경우에 팔다리조차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시면 150만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인생에게 율법을 주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 약 올리는 경우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니까? 제자들의 그 충격에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복음입니다. 전혀 일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은 일 안 해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일하지 않고 샅을 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일을 시켜줘야 말이지요. 그런데 해가 다 저가는 저녁에 어떤 주인이 나와서 일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고 따라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는데 한 시간 일했는데 몇 푼 주겠냐? 이라고 건성건성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치 일당을 다 주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셨나요? 뭘 설명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이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일을 조금 시켜 놓고도 하루 일당을 다 줘야 식구들이 먹고 살 것 아닌단 말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 밑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는 왜 행함을 강조합니까? 능력이 전혀 없지만 취직이 되었으니,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나씩 배우고 노력해 보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도 그 전체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값을 주인의 아들이 다 지불했으니 그냥 오기만 하라. 너 일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능력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열심히 뛰어야 하지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3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기쁨, 이 기분, 이 맛을 아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의 감격입니다. '무능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니라.'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능력이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주겠다고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린 그 초청에 응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한 기쁨인지 웬만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 못 구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그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 보세요.

일할 능력도 없어서 찢찢매던 내게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냥 오면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쁨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 끝나기 직전에 와서 '얼마 받겠느냐?' 하고 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더라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저 용서받은 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등장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꾀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개역, 사도행전 13:1~12]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중에는 가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씩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 배운대로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탁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럴 썩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홍해를 친 적이 없습니다. 지팡이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잘 틀리는 것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원인은 찬송가 때문일 것입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불수레는 왜 나타난 거죠? 엘리사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나 저렇게 알고 있으나 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만한 극적인 변화가 있기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아주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이 말이 틀렸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도 조금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왜 위대한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분들의 이름이 꼭 서열이라고 보기에선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몇 번째쯤에 나오나요? 설명을 복잡하게 해 놓아서 몇 명인지도 헤아려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분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설명도 안 합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이 바나바라는 데는 의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이진 사고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때에, 교회라고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던 시절에, 이방에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던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신실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그 시절에 이방인들이 세워 놓은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잘 키워놓았으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 즉 니그로입니다. 흑인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쪽에서 본다면 촌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젓동생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마 헤롯의 유모였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깝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굳이 평가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사들 중에 가장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열을 내고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니 화려한 과거를 지닌 사울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위치는 다섯명 중에 제일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 사울은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아닙니다.

이 때는 사울이 예수를 만난지 추측컨대 이미 십여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곧 바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도들이 그를 잘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간신히 인사를 시키고 동역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도 반발이 심해서 고향에 돌려보냈습니다. 고향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손이 필요해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여전히 사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울이 태어나지 않았습니 다. 안디옥 교회의 여러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데 서열로 치면 막내 지도자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나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선교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 그러니까 서열 1번과 서열 5번을 뽑은 겁니다.

사울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위대한 바울,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서열 1위 바나바,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운 훌륭한 담임목사 바나바가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서열 5위 바울은 왜 붙였겠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담임목사라면 부목사가 4명이나 있었습니 다. 그 4명 중에 제일 말쑥한 선교팀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을 조수로 붙였고 거기에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더 붙여 보냈습니 다. 요한은 지금 식으로 하면 사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선교팀이 목적지를 정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다로 조금 나오면 만나는 작은 섬인데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선교팀의 대장이 되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주 강사는 바나바이고 데리고 가는 사환은 사촌동생입니다. 그리고 조수로 데려가는 사울은 고향에 푹 파묻혀 있는데 자기가 데리러 가서 불러내온 새까만 후배입니다. 이렇게 선교팀을 구성해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에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대선배격입니다.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근거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이 세월 따라서 의미가 좀 변해요. 지금은 생질을 뜻하는 헬라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촌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는데 사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막내인 사울이 선교팀에 합류하여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지에서 사울이 물 만난 고기처럼 변해 버립니다. 선교여행 도중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4절부터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맞은 편에 있는 좀 큼직한 섬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했는데 살라미는 구브로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들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반대쪽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아마 구브로의 가장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불러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부른 이름이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선교팀의 이름이 여전히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뒤편에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가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훼방을 놓는 겁니다. 이럴 때 성질을 잘 못 참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박수 엘루마를 대하여 혹독하게 비난을 퍼부어 버립니다.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냥 사울이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야단을 쳤더라, 대적을 했더라’** 이러면 뭘텐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해 주는 겁니다.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셈이죠.

앞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는 권위자라는 말을 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대체로 싸우는 일에 익숙치 못합니다. 화해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막상 거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럴 때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못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저 자식이 훼방을 놓는다?’ 못 참는 겁니다. 뛰쳐나와서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박수 엘루마를 대적해서 굴복시켜 버리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의 이름이 바뀐 듯해요. 13절을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서기오 바울이 초청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치면 바나바보다 사울이 앞장서서 해결하기가 더 적합합니다. 성격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보다는 사울이 앞장서게 되었고 그럴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이름이 좀 바뀌면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바꿀 수 없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비유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엉뚱한 것을 들겠습니다. 옛날 활동하던 가수 그룹 중에 강병철과 삼태기 있었죠? 기억나는 것은 빨래판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문질러 대면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곤 했는데 그게 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다가 강병철이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여 선교팀을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과 밋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명칭이 달라질 때는 그 선교팀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는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바나바보다는 다소 거칠고 과격한 바울이 팀을 이끄는 것이 더 적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이방인을 가르쳤으니 유대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쪽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이 선교여행을 더 쉽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인정하고 바나바도 기꺼이 협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못마땅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바로 그 직후에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이 반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한 것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는 동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팀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수용하고 기꺼이 협력해서 같이 여행을 갔고 그를 따라갔던 요한은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항상 표현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어 나옵니다.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좋은 증거죠. 그런데 선교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표현이 뒤섞여 있긴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래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적어도 선교여행 도중에서는 거의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게 된 것은 개명이 아닙니다. 가령, 이름만 들어보면 어느 나라 이름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똥’ 하면 미국사람 이름이죠? ‘킴’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사는가보다 그렇게 되지요? 웬만한 이름은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이고 어느 나라 출신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사울이나 비슷한 이름 같아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다른 바울이 나오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잖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라는 말이 헬라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말이거든요. 개명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바꾸는 것이지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 두고 미국 이름 하나 추가로 갖다 붙인 것은 개명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문화권에 걸쳐 사는 사람은 이름을 두 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중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름을 들어도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안 외워집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 줘도 도대체 입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얻은 한국식 이름을 가르쳐 주면 그건 입력이 빨리 돼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문에 조 다윗 목사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유명해졌으면 유명해졌지 굳이 한국식 이름 봐두고 뭐 외국냄새 풍기냐고 신문에 나올 때마다 제가 기분 나빠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외국에서 조용기 하면 기억을 못해요. 발음도 글썽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니다. 그런데 국외용으로 ‘데이빗 조’라고 하면 쉽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조 다윗은 국외용이고 국내에 들어오면 조용기입니다.

이 장로님 아드님이 이철민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철민 하든지 철민 리 하든지 이게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거나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는 이름이 근사해요 그레이스 리! 발음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 “지가 한국 사람이, 나가 산다고 그러면 되냐?” 그럴 게 아니고 두 문화권에 걸쳐 살면 이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두우라는 선교사를 아세요? 그 아들이 여전히 원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배도선 선교사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피터슨 이죠. 유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는요?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분이 마포에서 좀 놀았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모테트입니다.

곽안련 선교사 꼭 우리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 분의 정확한 이름은 찰스 알렌 클라크입니다. 찰스 알렌 클라크, 한국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렌을 우리식으로 안련이라고 하고 끝에 있는 성 클라크를 한 글자로 줄여서 곽이라고 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 바로 이 분이예요. 이 분이 일본에 있을 때에 그 말을 남겼는데 한국에서도 사역했다는 것은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스코트, 우리는 스코트라고 쓰는데 원래는 한 글자로 스캇트(Scot)입니다. 이 분이 우리말로 자기 이름을 서고도라고 썼습니다. 서씨네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준 겁니다.

길어졌습니다마는 두 문화권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은 이름을 두 개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국내 이름이 사울이고 국외용 그러니까 헬라권에 접할 때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찾아온 사람도 사울이었고 안디옥에서 같이 일할 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영역이 달라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합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등장하는 데는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동역자요 가장 위대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회심한 사울을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들을 만나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적어도 사울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한참 후배인 사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함께하면서 자신을 뛰어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도록 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바나바가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등장은 지체되었을는지 아니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런 당부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낯선 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지가 언제부터 잘 났다고? 어디서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이래서 텃세부리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길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생겨난 빈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메웁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비켜 줬다가 일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입니다. 바울이 등장할 때 바나바가 그 자리를 깨끗이 물려주고 뒤에서 후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거죠.

위대한 바울의 등장에는 바나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헌신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선교여행 가서 힘든 일이 닥치는데 힘들다고 뒤로 빠져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뛰쳐나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 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되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열심이 이방 선교를 향할 때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사람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도 많고 권력 때문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때돈이 생기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고 울었는데요, 누가 만든 농담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로또 일등 당첨 되었어.”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여보 정말 잘 되었어요, 한번 봅시다.” 하는데 남편이 “빨리 보따리 안 싸고 뭐해?” 그러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말인 줄 알았는데 “보따리를 다 쫓으면 나가지 뭐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없고 어려울 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부자되었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살겠느냐?”는 얘깁니다. 남의 얘기지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은 몹쓸 사람입니다.

권력요? 갑자기 사람이 출세해도 눈 아래 보이는 게 없어지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변하고 권력 때문에 변하는 사람은 추하게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좋게 변해요. 사랑하는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던 사람은 때돈 번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변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래 타고난 성미는 고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면 참으로 부드럽고 남을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변한 사람은 대체로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변한 사람은 영원히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나바를 능가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팔팔한 성미를 가진, 결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순하고 순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부드럽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던 바나바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없이 바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렇게 팔팔하고 성미 급한 바울이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는 오히려 더 적합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명절로 바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때지만 이렇게 예배시간을 기억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어찌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타고난 본래 성품, 내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 갈 때에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개역, 야고보서 3:1-12]

이 번 추석명절이 좀 길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먼 길 다녀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한쪽은 편치 못한 마음으로 왔다면 무슨 차이겠습니까? 원인은 아주 작은 차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말 한마디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배려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 한마디를 잘 못해서 며칠째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불편한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한마디를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깨끗하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딘가 모르게 낮이 간지럽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목구멍까지 나오는 말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안 나오려는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한 얘기 있죠? “한 사람만 구겨지면 온 성도들이 다 즐거운데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데 한 사람만 구겨지면 된다면 기꺼이 구겨지겠습니다.” 하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곤 했지요. 가정의 평화도 한 사람이 조금만 체면을 구겨 버리든지 조금만 낮간지러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원래 부부라는 게 낮간지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사는 부부가 무슨 엄숙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토론하겠습니까? 남이 들으면 ‘썰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싶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낮간지럽다 싶은 이야기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를 뱉으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주 밝아질 수도 있고 아주 어두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행함은 믿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행함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언어생활인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혀라는 겁니다. 이 혀를 바로 쓰지 않으면 혀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도 자칫 잘못 쓰면 아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위험하다고 연필 깎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육각형으로 예쁘게 잘 깎아 놓으면 신기해합니다. 위험하다고 쓰지 않으면 손재주만 없어지는 겁니다. 좀 위험하더라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못 만지게 할런지 모르지만 언제가는 잘 쓰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컴퓨터로 온갖 나쁜 짓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컴퓨터선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못합니다. 잘 쓰면 아주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골치 아픈게 컴퓨터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들이 알고 계셔야 아이들이 함부로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하지만 사고 나면 큰 일 입니다. 부디 사고 안 내도록 조심하십시오. “위험하니까 당신은 만지지 마!” 이래서 아예 운전을 안 해 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불편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위험하지만 조심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요긴한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언어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실수할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세워놓기도 하고 때로는 한 아이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아이들을 접해 보면 예쁘고 칭찬할 만한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단치고 혼내야 할 아이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이 중에 도무지 예쁜 구석이라곤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궁리하다가 이런 말을 했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한다고 뽐내지 마라. 한 20년, 30년 후에 이런 애들이 동창회장 하더라. 공부 잘 하던 아이들은 겨우 회비나 내는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녀석이 나와서 밥 값 척척 내고, 특별 회비도 내고 회장도 하더라. 재가 장차 동창회장 할 녀석이다. 너무 팔시하지 마라.” 그래 놓고 제가 그 애를 부를 때 동창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하 농땡이, 천하 밍생이들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니까 이 애도 슬금슬금 괜 찮아지고, 다른 아이들이 농담 삼아 부르는 게 반쯤 진담처럼 되어가더라구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잘한다고 칭찬할 만한 아이보다는 야단칠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선생님은 절대 짜증을 내지 말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짜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원래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은 아이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야단을 쳐야 합니다. 야단칠 게 없으면 어른이게요. 아이들은 으레껏 야단맞을 것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곱게 곱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이 본문이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제대로 하는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사 그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만 둘 때 두더라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는 애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려거든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예, 아버지, 그만두려고 했지요?” 하고 가방 집어 던지고 가면 잘못하다간 맞아 죽습니다. 진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노릇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받는다라는 말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후하게 계산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한 달란트는 주인 것이고 새로 생긴 것은 자기 것이죠?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전부 주인 겁니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도 열 달란트가 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지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후하게 계산하는 분이십니다. 후하게 주시는 그 분을 알지 못한 채 '계산할 날이 있단다' 하고 겁을 내서 땅에 묻어둔다? 선생 못 하겠다? 큰 오해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잘 하라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합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어찌하다 산을 홀랑 태운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혀는 이런 불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불이지만 이 불이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큰 산불도 시작될 때는 작은 담배꽂초 하나나 겨우 동네 들판이나 조금 태우다가 꺼지겠지 하다가 온 산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아마 옛날에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노적가리를 다 태운 적도 있겠나 봐요. 속담에, '노적가리 다 태우고 박상 주워 먹는다'는 말을 어릴 때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추우니까 한쪽 귀통이에서 불을 조금 피웠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일 년 농사지는 것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은 이처럼 위험하다고 말 합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련에서 수 많은 사람을 학살한 스탈린도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안 다니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때 어느 선생님이 잘 붙들어서 잘 가르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혹은 그 때 어느 선생님이 무슨 말 한마디 실수를 해서 이 아이가 교회 안 나오게 했다면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온 세상을 불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혀는 불이라고 말해 놓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세계라는 거죠. 우리 혀는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는데 혀는 전혀 다른 말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가령 부부사이에 서로 툭툭 거리다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저녁에 만날 때 '여보 미안해요'라고 좋은 말 한마디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덩동 하기에 문을 열어주면서 툭 튀어나온 말은 엉뚱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아주 혼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이 똑같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웃자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이 되어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 생각과는 관계없는 말이 튀어나오거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받아줘서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쩌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혀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특별히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하는 말은 자신도 지옥 불에서 살라지리라는 말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한번 길들여 놓으면 가만히 두어도 길들여놓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여 놓았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제멋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길들이면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제어하고 길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리 상자에 벼룩을 넣어 놓고 뿔 수 있는 최대치의 3분의 2나 절반 정도로 천정을 낮추어 버리면 몇 번 뛰다가 전력으로 안 뿔답니다. 천정 높이만큼만 뿔대요. 그럴 때 천정을 제거해 버려도 벼룩은 더 이상 높이가 안 뿔대요. 어쨌든 짐승은 한번 길들여지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혀가 위험투성이면 평생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살립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혀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만 실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말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만 잘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제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혀는 말을 제어하는 재갈과 같고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겁니다. 배가 잘 가다가 키가 부러졌거나 키가 빠져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어떻게 튼니까? 키 하나가 얼마나 유용하냐 말입니다. 위험하다고 이 키를 뽑아 버려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혀를 잘만 쓰면 조그마한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데요! 천 냥이 요즘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만원만 되어도 말 한마디에 천만원이나 되는 빚을 날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치 혀로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합니다.

한국 처녀가 미국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애 이름 하나 지어 주세요.” 이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요. 어떻게 본다면 실수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아버지가 감격을 해 버린 겁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 주고는 자기 전 재산을, 아들한테도 안 물려주는 재산을 손자에게 다 물려줘 버렸답니다. 우리야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아버님, 아이 이름 뭐라 할까요?” 흔한 일 아닙니까? 서양에는 그런 일이 없나 봐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실수였는데 실수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젊은 시절에 신랑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여러분을 꼬실 때 돈 많다, 직장 좋다, 이런 것으로 꼬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주제에 입만 가지고 했습니까? 입만 가지고도 꼬시워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혀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또 멸절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은 많이 해야 합니다. 잘 가려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 대충 짐작하거나 남의 뭐라 한다고 함부로 하는 말은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어야 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하고 감사하는 이야기,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언어의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서 어쩌면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을 것입니다. 친교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요? 심각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평화를, 민족의 평화를? 이런 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덥죠?” 이것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 모자란 사람은 “니나 덥지 난 안 덥다 와?” 혹은 “더운데 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정보가 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상해요. “진지 드셨습니까?” 하면 대답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 꼭 식사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실리지 않은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부드러워지는데 말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쳐 보세요. 작은 홀에 사람이 쭉 앉았는데 전부 입을 꼭 다물고 땡땡땡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 어색합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저 날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마디 툭툭 던지면 분위기가 훨씬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는 기능이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가시간에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나 하고 앉았다’ 이러지 마세요. 시시껄렁한 소리가 사람을 친밀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신 장로님께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맨입에 두부 한 모 먹을 수 있나 내기 할래?” 누군가가 ‘한 모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랬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노곤 갖고 오너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이큐 순서대로 웃습니다. 여기에 무슨 심각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있다가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웃고 말았죠! 맨입? 맨 입?

입을 뽕뽕 묶어 놓았는데 두부를 먹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대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 앉아서 환담도 하고 웃고, 구겨져야 할 때는 구겨질 줄도 알아야지 ‘그거 말도 안 된다’ 하고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언어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심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혀는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잘 쓰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럼 이 혀를 어떻게 할 것인지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감람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켜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켜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혀를 제어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저주나 시기나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샘물이 한 쪽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한 쪽에서는 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반쯤 막아야요? 샘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한 나무에 감람나무 열매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이걸 있을 수 없습니다. 베어 버리고 다시 심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주 덮어버리든지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샘이 통째로 변해 버려야 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지만 바탕에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내지 말고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평생 교회 안에서 화는 안 낸다고 각오하고 사십시오.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은 배로 하고 말은 반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1장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제어하며'라고 말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얘깁니다. 8절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몸을 굴레 씌우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말하면 곧 공경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표본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욕을 욕을 합니다. 사실 억울한 겁니다. 몹시 억울하지만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남긴 감동적인 말은 '내가 저 시므이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난 차라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애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 확실히 믿으면 웬만한 억울한 말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이자 마귀를 향하여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감히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용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행위로 의롭게 되기까지는 적잖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에 행위가 따라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몇 십 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언어생활입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추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까? 낯선 사람 보거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쯤 해서 손해될 것 없습니다. 그것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 다 해도 저 사람하곤 얘기하기 싫어? 그래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얘기를 툭툭 던져 보세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라고 말했지만 잘 쓰면 엄청난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혀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쳐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웃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배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 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개역, 이사야 60:1~9]

드러누워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면 벌써 일어날까요?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날 기력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 말합니다.

집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울며 지냈던 아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벌써 일어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애굽으로 갑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17년이나 더 싱싱하게 살다가 그 후손들이 아주 번창하는 걸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본문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들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야, 팔이 짧은 거야?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 입에서 너무 독한 냄새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얼굴을 돌려 버렸으니 이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다 잃어버린 과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병어리 개요 백성은 눈먼 양떼라고 그랬습니다. 짓지 않는 개, 눈먼 양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는데 다 죽어가는 인생과 꺼져 가는 등불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고 합니다. 볼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사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죽기는 왜 죽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한번 사면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실까요? 세상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느라 세상의 빛이 될 날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걱정도,

고민도 태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새 차를 하나 굴리기에 웬 차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사 주셨대요. “왜 내게는 차 하나 주는 부모님 없고 땅 좀 물려주는 부모도 없고 집 한 채 사는데 보태주는 부모님 없냐?” 하고 푸념을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뜯어가는 놈 없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라.” 하더라고요.

병원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병원이 장사가 안된다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환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기 힘으로 숨을 쉬기만 해도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고민을 어른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마는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싸는 격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게 늘 걱정이니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나?’ 아닙니까? 하루 세 끼를 걱정 없이 먹게 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아무 탈 없이 내일 새벽에 일어난다고 마음 편하게 누운 지가 얼마 안됩니다. 내일 아침에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우니 만날 때마다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아닙니까? 늘 먹는 걱정, 사고 걱정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걱정 안 하면서 산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었던 시절이 얼마 안됩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터인데도 남 보면 부럽기만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록 이런 저런 걱정거리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 낯한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터이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그만큼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곳,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느냐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투성이지만 거기 거하는 주의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니 퍼져 있지 말고 힘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면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열 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세상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네 빛, 네 광명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출 뿐입니다. 우리가 밝히 비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행복이, 자랑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이 행복이 든든한 직장이나, 통장 잔고 때문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난 남편이나 공부 잘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빛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은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고 우리 힘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이깁니다. 혹시 힘이 부족해서 싸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 버렸습니다. 붙으면 이겼습니다. 붙어서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집니다.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둑에 앉아서 “하나님, 이것 끊어주세요 가지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 그러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와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정도의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이 제발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앓는다는 말이 표준말로 잘 모르겠는데 제발 앓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앓고 그러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휘발유 먹은 엔진 힘으로 갑니다. 시동은요? 요즘은 키를 획 돌리면 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자동차 앞에 길다랗게 굽어진 작대기를 넣어서 손으로 돌려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게 요즘 키 하나로 다 되지 않습니까?

시동은 셀모터로 갑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시동은 걸지만 가기는 휘발유 엔진 힘으로 갑니다. 그 휘발유와 엔진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면 이 셀모터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 정도는 하라고 하는 겁니다. 셀모터 돌려서 가려면 조금 밖에 못갑니다. 말하자면 우리 힘으로 잘해 볼 것이라고 노력하면 그게 얼마 못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전에 ‘시동은 걸어야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앓은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굳이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앓은뱅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에는 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만 이제는 움찔움찔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경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소원을 품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냥 해 주시면 되죠? 아니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늘 사람과 동행하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뒤덮은 어두움과 만민을 가리는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신 그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간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서 귀환시키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상황에 빛을 비추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빛을 비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다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자연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은 영적 세계의 창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생을 다시 구원해 내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리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며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힘만 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무얼 가지고 오셨는지 4절부터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여기에 '무리가'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열 왕, 열방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냥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와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과부와 같다고 했는데 그 과부에게 없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그려보아야 합니다.

5절에,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네게로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 죽어가던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했을 때 안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믿지요. 그런데 뭘 보고 믿게 됩니까? 기껏해야 나귀에 짐 싣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레나 끌고 다니던 야곱에게 세상에 들도 보도 못한 말들이 이끄는 수레들이 줄지어 확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귀하고 귀한 혼수 예단이 대형 트럭에 실려 들어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허다한 약대는' 원본을 보면 '쌍봉 약대'라고 되어 있고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는 '단봉 약대'라고 합니다. 말보다는 못하겠지만 이쪽 사람들이 봉이 두개 있는 약대를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하면 아주 고급 세단차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큰 차, 소형차가 집에 바글바글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차가 그렇게 감격을 덜 줄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처음 샀을 때의 감격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를 처음 샀을 때 차에서 잔다고 밤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 안에 있었습니다. 좋은가 봐요. 애들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한 두 대가 아니고 편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7절 뒤편에, '스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뒤의 표현들을 계속 보시면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기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세상의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세상의 귀하디 귀한 명품이라는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중간쯤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 큰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배입니다. 멀리서 오는 큰 배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배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실려 왔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많은 복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복이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복입니다. 여기 이 복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상급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에 귀한 것들을 다 열거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마음이 놀라고' 이진 두려워하는 놀람이 아닙니다. 좋아서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기뻐니까? 세상의 온갖 재물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까? 6절 중간부터 볼까요?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마는 중간쯤 보세요. '스바인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네 단에 드려서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냄새가 나서 입에 악취가 나서 싫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꺼이 그 제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8, 9절을 다시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만 되면 다른 복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온갖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대학 수석 합격하면 뭐 합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보았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습니다. 학교 공부시킨다고 인성교육 다 팽개쳐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생각도 안 합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는 내가 해 줄게' 하나님 없는 재물은, 하나님 없는 승진도, 하나님 없는 대입수석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단에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난다며 싫어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재물 탓이 아닙니다. 재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며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쁜 겁니다. 그 날이 오면 구약시대처럼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보면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진 셈이죠.

사방에서 무리가 물려옵니다. 아들도 오고 딸도 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다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약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복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다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7절 끝에,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니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는 전부 자기가 잘라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마는 좀 커서 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해 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뒤돌아 보면 내가 오늘날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서 빛을 발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던 이스라엘을,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렸던 하나님께서 중재자 없음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이 일을 맡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서,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맥없이 앉아 있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죽어가던 자가 별떡 일어날만한 놀라운 소식, 놀라운 빛을 우리가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로 복을 흘려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빛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기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환한 빛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코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이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개역, 요한계시록 8:1-13]

계 시록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 혹은 두렵고 읽기가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시록을 읽으면 위로를 받고 행복해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은 잘 안 보이고 무섭고 두렵기만 하다면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곱 나팔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지를 둘로 나누어 올라가는 기도와 내려오는 재앙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기도 때문에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옳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재앙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내리려고 하다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가령 6장에서 인 재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7장에 나팔 재앙이 나와야 할 텐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나팔 재앙 이야기가 나왔으니 9장에서는 대접 재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오니다마는 한 두 개 나온 다음에 또 훌쩍 건너 뛰고는 나머지 대접 재앙은 1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재앙을 내릴 듯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재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앙 얘기를 할듯할듯 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자꾸 넘어가는 것은 옛날 우리 어릴 때 보았던 약장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보여 줄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뭔가를 보여줄 듯 보여줄 듯하면서도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약을 팔죠? 목표가 약 아닙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재앙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얘기는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아보시며 성도를 지키시는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 다 끼워 놓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을 안 읽고 재앙이나 괴물 같은 것들에 주목하는 겁니다. 8장 1, 2절에 보시면 나팔 재앙이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끼워 놓았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천사가 있고 그런 후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보다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만 이 재앙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나 환난을 이깁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를 제외하고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을 이겨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성도들은 이 재앙을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7장, 8장을 합쳐서 말한다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하심이 있고 이 땅에는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은 참 이상하고도 기괴하고 두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 머리 짐승이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도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와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조용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앞에서 인을 떼 때마다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시작할 때 징을 치거나 벨을 울리던 것처럼 인을 떼 때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나라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온갖 천사들, 장로들,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밤낮없이 찬송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반시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재앙이 내릴 때마다 우레 같은 소리가 터지던 그 곳이 왜 갑자기 고요해졌을까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코자 함이라’** 뭐하는 순간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찬양과 우렛소리로 시끄럽던 하나님 나라가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조용해졌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찬송마저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성도들이 그 고통이 쉬 사라지지 아니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드러질 때에 찬송마저도 중지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 것을 듣고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없는 기도를, 또 얼마나 정신없는 기도를 했을는지 몰라도,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뭐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듯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

러분,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뭘니까? 건너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조금 건너뛰세요.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향을 받아서 이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와 함께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러면 성도의 기도들과 이 향은 별개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향 혹은 향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중에 제대로 된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러 가면 줄려서 줄다가 간다? 줄 바에는 나오지 말아야 합니까? 줄터라도 나와야 합니까? 나오세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청산유수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나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가 답답한데?’ 하고 울고불고 하는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나 저런 기도나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잘 한 기도나 못 한 기도나 비교해보면 그게 그거일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에 보태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좀 잘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향연에 톱사리 끼여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 문입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신원보증 얘기는 참 눈물겨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에 붙었습니다. 요즘의 사법고시는 유도 아닙니다.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던 일입니다. 문제는 신원보증을 누가 서줘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합격이 안되는 겁니다. 그 때 신원보증은 ‘이 학생이 취직을 해서 만약에 몇 억을 날리면 그거 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누가 써줍니까? 자기 재산이 없으면 서주고 싶어도 못 서줘요.

천애고아 같은 녀석이 공부 잘 해서 합격은 했는데 신원보증서를 내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해 줘니까? 어떤 친구가 하다 하다 안 되니 이걸 들고 전혀 알지 못하는 포항시장을 찾아간 겁니다. “나 이거 이렇게 되었는데 누가 써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장님이 써 주세요.”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써 간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가게 되면 또 대령 이상이라 했는지 별 이상이라 했는지 추천서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포항에 별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아무 것도 없는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찾아가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 기계라는 곳에 별이 많이 났습니다. 안면이 전혀 없는 분에게 들이밀어 가지고 써 달라고 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 해도 누군가가 신원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대로 됩니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제단에서 나온 이 향, 이 향연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흠 없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원보증이 필요한 천애고아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원보증서에 도장 한번 찍어준 사람은 평생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그 밑에 보증서 한 줄 딱 써 주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문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한복음 14:13)’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의 금단에 드린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 묻어서 올라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찬양까지 중시시켜 놓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게 본다면 이 제단의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니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에게 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넓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세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향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의 이 글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4절, 5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가다 땅 위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엄숙하게 상달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 땅에 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듣고 간 그 천사가 이 땅에 불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마저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신원, 역울함을 풀어주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진짜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대목은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감격하며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의 내용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는 재앙 이야기는 좀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나팔 재앙의 시작입니다. 나팔의 용도는 주로 경고용입니다. 전쟁에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는 재앙이 부분적인 것을 보아서 예비적 성격의 경고성이 강한 재앙입니다. 경고성이 강한 재앙이라는 것은 이 재앙 뒤에 진짜 재앙이 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7절에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어떻게 본다면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자연재해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예언에 속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사선 낙진,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산성비로 인한 자연파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눈이나 비 맞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비나 눈 맞으면 대머리 된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안심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대머리 된다고 절대 못 맞게 합니다. 요즘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물 사 먹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행군하다가 개울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요. 물값하고 휘발유 값하고 어느 게 비쌌습니까?

누가 묻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휘발유는 저 먼 중동에서 사 와서 공장에서 정유해서 걸러서 낸 것 아니냐? 물은 땅속에 파이프 박아서 그냥 빼 올린 것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어느 게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물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쌌습니다. 지금은 가격변동이 좀 있어서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금수강산의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사 먹어야 한다고요? 누가 망쳐 놓은 겁니까? 사람들이 다 망쳐 놓는 겁니다.

8절도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타나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에 대한 오염 얘기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다가 얼마나 재앙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흔히 잘 나타나는 적조현상이나 유조선이 기름을 싣고 가다가 좌초해 버리면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한 두 사람이 실수해 버리면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해도 바다 전체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0절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여기는 강들과 물 샘에 대한 재앙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 샘을 어떻게 망쳐 놓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물 오염은 말할 것도 없는데, 더 무서운 것은 지하수 오염입니다. 지표에 아무리 오염된 물이 흐른다고 해도 지하수는 오염이 안됩니다. 다 걸러져서 깨끗한 겁니다. 땅속 몇 백 미터의 깊이는 절대로 오염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 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요.

포항에만 해도 뚫어놓은 지하수 구멍이 몇 개나 될까요? 뭐 괜찮다는 목욕탕마다 다 뚫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는 집에 지하수를 뚫어 놓았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뚫어놓은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뚫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타고 오염된 물이 내려가면 결코 오염되지 않을 물에 직통으로 오염물을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됩니다.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철 능력은 없으면서 부수는 능력은 가진 아이들이 가끔 있지요. 뜯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애기가 아닙니다. 자연계에 내린다고 했던 그 재앙을 사람들이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봅시다. **‘벙찌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찌를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해 달 별이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해 달 별이 왜 흐려집니까? 아마도 대기오염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별이 흐려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안될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별이 많은가? 별로 없어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울진에 가서 야영을 했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많더라구요. 울진 하늘에는 별이 많은데 왜 포항 하늘에는 별이 없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대기의 차이지요.

몽고에 다녀오신 문 집사님에 따르면 몽고 하늘에는 별이 그렇게 많더라입니다. 하늘이 노랗더라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많은 별이 다 어디 가고 포항 하늘은 보일 듯 말듯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대기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요. 오존층에 구멍 난 것은 오래 전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 보지도 못했던 아토피 피부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천식 환자는요? 아토피, 천식 둘 다 문명병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아진 병이라는 거죠. 전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 네 재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입니다. 전체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자연계에 대한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진짜 심판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팔재앙은 일종의 경고성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정말 온다는 경고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짓곳은 절문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자연보호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동생을 마구 야단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거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서 동생 쥐어박아 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같이 야단쳐야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로 이런 재앙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한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보존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심판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소리가 임하리라 하더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 이러거든 ‘아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재앙을 얘기하면서도 이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 합니다. 가령 일곱 나팔 재앙이 있으니까 여기서 네 나팔이 불려졌으면 나머지 세 나팔은 어디 나올까요? 9장에 바로 나와야 정상인데 9장에 두 개만 나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나머지 한 나팔은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왜 재앙 얘기를 하면서 건너뛰니까? 핵심이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면 ‘맞아,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행복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종말이나 종말의 징조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일이 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강도가 작대기를 들고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 있으면 무서운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재앙과 심판이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나, 심판의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이라 하면서 ‘1999년 지구최후의 날’이란 책이 퍼진 때가 있었습니다. 겁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책이 또 나온다고 해도, 아니 세상이 내일 당장 뒤집힌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가끔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이 있었고 딥임팩트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영화에 참 잘 나타나 있어요. 그냥 보고 즐기세요. 영화니까 끝은 안 나지요? 항상 끝은 안 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운석의 충돌을 바라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나보다’ 하고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8장에 묘사된 여러 가지 재앙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라고 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더 행복해 지지는 않았습니까. 더 편리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고 문명이 더 발달하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앙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을 높이 지어서 주택난을 해결한다고 감탄하며 쳐다보지만 위험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재 중에 대연각 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한편 찍어냈습니다. 타워링이라는 영화입니다.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납니다. 소방관들이 그 불과 싸우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재주 있다고 높이 높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불 끄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높는데 살면 전망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할래요? 편리하기 그지없지만 한 순간 잘못되면 얼마나 끔찍한 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우리 과학이고 문명입니다. 자동차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절대 자동차 용감하게 타지 마세요. 조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명히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시록을 가지고 선량한 성도들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 사이비라고 생각하세요. 계시록을 공부도 잘 안 하고 읽지도 않으니까 주로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들고 설치는 겁니다.

성도는 말세의 징조를 보더라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입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승! 다시는...!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개역, 이사야 60:10~22]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은표가 휴가를 왔었는데 “아빠 야구한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14회 15회 두 이닝을 봤는데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했답니다. 무슨 야구인지 아세요? 한국시리즈랍니다. 전국이 떠들썩했는데도 아마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고 저도 무승부로 끝난 부분만 봤습니다. 야구 좀 한다는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대단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야구나 축구에 가끔 역전승이라는 게 생기죠! 완전히 패색이 짙었는데 마지막 종료 직전에 어쩌다 한골을 넣거나 홈런을 한 방 날려서 뒤집는 경우인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번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뒤집어졌지요. 완전히 진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기는 역전승은 기쁨이 두 배입니다.

야구는 9회말 투 아웃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말에 두 명이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이 때쯤 되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고 관중들이 자리를 슬금슬금 뜰 때입니다. 그 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만 승패가 뒤집어져 버렸다? 진 사람이야 속이 터질 일이지만 이긴 팀이야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역전승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역전승이라는 게 일어납니까? 요행수나 실수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기 내내 끌려 다니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도 실력입니다. 정신력이 있든지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실력이 있는 경우에 역전승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절대로 요행수, 어쩌다 보니까 이기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잘 읽어보시면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누가 그렇게 승리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실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 끈기 있게 버티었기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역전이라는 말 더러 들어보셨지요? 인생역전! 어디서 보셨지요? 복권 선전할 때 본 것 같아요. 복권을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킨다고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죽도 오거리 어느 복권 판매소에서 주택복권 일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거리 복권 판매소에 얼마나 긴 줄이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당첨되었다고 해서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대가 되나 봐요. 누가 산에 올라갔다가 산삼 하나 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 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믿는 우리는 이미 역전승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놓아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쓸데없이 엉뚱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역전극을 벌여 놓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경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이스라엘에 온갖 질병이 닥치고 가뭄이 닥치고 전쟁이 몰려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고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시랑과 이리가 노는 곳이 되 어버릴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내가 받을만한 능력이 안되는데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벽을 이방인들이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그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다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재물을 회복시키겠다고.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벽을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벽 회복의 이야기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18절에도 성벽 회복 이야기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이 성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시킨 것이 19절에서 22절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여서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에,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에 기쁨이 되게 하리니’** 완전히 황폐화되어 사람이 전혀 없고 짐승이 득실대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에 기쁨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이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에 사람도 재물도 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걸 부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게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뭘 먹고 살죠? 16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 왕의 유방을 빨고’**라고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 열방과 열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이 열방과 열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열방이 몰려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깃대를 향하여 돌격하고 달려옵니다. 넘어지는 놈도 없고 피곤한 놈도 없고 농땡이 치는 놈도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인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그 열방과 열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회복은 16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리라’** 이것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왜 닥쳤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임을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고생을 했습니다. 회복되는 날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성벽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17절과 18절에,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고요? 돌 대신에 철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라’** 그렇게 단단한 것을 세워서 화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얘기죠.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강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그 다음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왜 이런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살겠느냐는 겁니다.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 전에는 돌로 성벽을 쌓았으면 이제는 철로 성벽을 쌓으리라는 겁니다. 그 성벽을 누가 쌓아요? 10절 끝에 보세요. 한 때는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튼튼한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그리고 파멸이나 황폐란 건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극을 보시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뚫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까? 성을 허물기 위해서 더 높은 토성을 쌓기도 하고 성문을 깨기 위해서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굵은 통나무 밑에 바퀴를 달아서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덩벼들었던 적군들이 이제는 좋은 재료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얘깁니다. 원수가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올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적이 쌓을 것이라고 하고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예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벽도 사실은 필요 없는 좋은 시절이 온다는 뜻입니다.

로마가 국경을 튼튼하게 경비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 때부터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지 못합니다. 전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삽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내려왔다가 나팔을 불면 전부 성 안으로 돌아가서 문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을 해할 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이 사라질 거라는 얘깁니다.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할 때는 성을 튼튼히 쌓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적이 쳐들어오면 나오지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문을 다 열어놓고 성문을 잠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은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깨고 포로로 잡아 가는 적이 죽일 놈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고통을 줄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닥쳐오는 적군이 죽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제 힘으로 안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문을 다 열어놓고 살면 옛날에 쳐들어 왔던 그 열방의 왕들은 뭐 합니까? 10절 끝에,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란 얘깁니다. 비유컨대, ‘우리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들은 다 왕족이다.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며 쳐들어 왔던 그 왕들이 이제는 나라가 워낙 튼튼해지고 평안해지니 왕족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당이겠습니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회복은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뜻이지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곳이 된 것도 하나의 상징으로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이 놀라운 회복, 어떻게 본다면 완전한 역전승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그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성문을 찬송이라 하셨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건물을 짓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왜 구원, 또 하나의 이름은 찬송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구원과 찬송일 것입니다. 구원은 뭘니까? 이 놀라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게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룬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벽에 구원이라는 글자를 새긴 겁니다. 그런데 왜 성문은 찬송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송밖에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구원! 거기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에 감사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이 질 좋은 나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옮니까?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레바논의 그 멋진 나무들이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실려 온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라는 말은 성전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외적들이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는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레바논의 나무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뒤편에, **‘내가 밭 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피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밭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읍을 여호와의 성읍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성전이 뭘니까? 교회입니다.

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앞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 교회의 권위 앞에 대적들이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의 회복을 19절부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회복된 그 나라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가 왜 지지 않아요? 이 해는 우리가 보는 저 해가 아닙니다. 19절 중간에,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해가 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네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죠. 해와 달이 소용없는 세상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해가 되고 우리의 달이 되는 세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이 사는 데에 태양을 제외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들이 태양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식물이 그것을 열매나 뿌리에 저장합니다. 그 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동물이 움직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동식물이 살아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계시록 끝에 가면 한번 있고, 창세기 앞에 가도 또 한 번 있습니다.

나무와 채소는 태양보다 먼저 창조됩니다. 태양도 없는데 나무와 채소와 풀이 어떻게 자라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빛은 따로 있다고요. 태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저 태양도 진짜 빛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빛,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중간쯤입니다.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슬픔이 다 끝나게 되지요? 21절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모두가 다 의롭게 되고 영영히 거할 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적에게 허물어지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아무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두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극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런 고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으로 닥쳐올 이 어려움을 피해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노래는 가르쳐 놓으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니까? 너희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할 때에 문득 노래를 부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더라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때 가서라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잡혀가서 깨달아야 합니까? 그런 고생 그런 저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생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갈광질광 하면서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간증해야 합니까? 제가 간증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전 그런 게 싫어요. 아니 이왕지사 믿을 것, 잘 믿으면 안 되나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있습니다.

괜히 고생하면서 두들겨 맞아야 신앙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습과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과정을 밟으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현실이 어떠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뒤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감격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는 현실은 백성들이 우상에 켜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역할이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 소망을 말하고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이에요. 너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어째 저런가?’ 싶은 게 정상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희망이 없다고요? 사람 사는데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감동적이고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현실만 들여다 보면 답답해서 못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아름다운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어 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다시는 패배는 없다’ 이래야 옳은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애급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역전승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 사전에 다시는 패배는 없다’ 이런 각오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그 때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저주 속에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아, 크게 기뻐하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개역, 베드로전서 1:1~12]

개 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많이 즐겼다는 점이 그래요. 저도 초저녁에 잘 줍니다. 꼬집기도 하고 찢어 보기도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가장 위로를 많이 준 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잡혀가신다고 피 땀 흘려가며 기도할 때 거기서도 즐겼잖아요? 그 외에도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보짓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바보짓은 베드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또 위로를 하나 더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을 한번 읽어 보겠다고 달려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분량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쓴 글은 정말 많아요. 다윗이 쓴 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쓴 글은 짧막하게 두 개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쓴 글을 떼려면 아주 쉽습니다. 이 짧은 글들이 이런 면에서 위로를 주기도 하죠. 여러모로 고마운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말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을 머리 속에 그려보세요. 터키 북쪽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하나 있죠? 흔히 흑해라고 말합니다. 흑해에 바로 인접한 왼편이 비두니아고 오른편이 본도입니다. 서부지역이 흔히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요즘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오면서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어째서 남의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냐 말입니다. 왜 흩어졌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 지역이 그 당시는 전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왜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제 때 만주로 소련으로 자의 반, 타의 반 흩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좋은 시대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 역시도 이들과 다름없는 나그네입니다. 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행복해 보여도 인생 자체가 연약합니다. 머리 한 부분만 터져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래 전, 제 친구 한 명이 암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통나무 같은 다리였는데 가서 들어 보니까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녹은 아이스크림같이 축 처지더군요. 뼈와 근육이 따로 노는 겁니다. 얼마나 튼튼한 다리였는데...

너무나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튼튼하게 잘 살면 길어야 백년입니다. 이러니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불쌍한 겁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이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완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쉬운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셔서’란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잘 살겠다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 여기에 잠시 와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짐을 많이 지고 떠나면 고생입니다. 언젠가 이런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짐을 많이 지지 마세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부러운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진화한 답니다.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아파트가 많이 나오니까요. 차 좋은 것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남의 차 좋다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좋은 차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다간 끝이 없어요.

명품, 명품 말은 들었지만 명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명품 하나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몇 달 모은답니다. 그 아이들 생각은 그렇게 명품 하나 사 입으면 자기가 명품이 된 느낌이 아닐까요? 아니 명품 하나 걸친다고 자신도 명품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나그네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의 그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흠어진 나그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흠어져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흠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산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요. 비록 나그네일망정 돌아갈 고향이 있고 바라볼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과는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숙생 말입니다. 그 나그네 길과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 길의 차이점이 뭐니까? 그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정처 없는 구름 같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비슷한 노래가 또 하나 있더군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좌우간 오늘도 걷는데요.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길’을 열심히 걷는답니다. 어디를 가려고요? 갈 데도 없는데 열심히 걷는데요. 어디 가든지도 모르는데 ‘남자답게 씩씩하게’ 걷는답니다. 남자답게 씩씩하게 걷는다고 무슨 수가 난다고? 그러면서 ‘정도 주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냥 걷자는 겁니다. 이게 소망 없는 사람들의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소망의 나그네 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소망을 품고 씩씩하게 길을 가는 나그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씩씩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세상의 많은 나그네 길은 쇠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어야 백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자 하는 하늘의 기업이 됩니까?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서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진주나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진주장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남의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 파 묻혀 있던 보물단지를 발견합니다. 빨리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거죠. 몇 곱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 속에 보물이 묻혀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은 좀 굶어도 배가 덜 고프니다. 주머니가 싹 비어 있으면 배가 더 고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고 앞으로 더 받아 누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굴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가 준 선물이냐에 따라서 선물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정말 귀한 분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값어치 없는 것도 귀한 겁니다. 아이들이 어찌다가 좋아하는 토틸 만나 악수 한번 하고 오면 손을 안 씻는답니다. 어떻게 씻어요? 그 손을!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 성령, 예수의 합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흔히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혹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낳은 자식, 어떻게 기른 자식 이것보다 더한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보잘것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 내 작품 아니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세하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귀한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은 열심히 걸어와야 피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걸음은 쉼 없이 수박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발을 높이 들고 동방사람의 땅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나왔습니다. 손들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승리의 노래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발을 높이 들고, 쉼 없이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쉼 없이 걸을 수박에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 길이지만 그런 소망을 품은 자는 걱정, 근심할 수박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일 예배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왠지 우울해 질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잠깐 근심할 수박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잠깐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이런 근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작게 느낍니다. 반면에 기뻐할 일은 크게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아픔은 작게 느끼고 기쁨은 크게 느낍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금도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금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기쁘게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신다면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풍부함이 나 내 욕심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나 명예가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몇 년이나 갈까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 넘기지 못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사흘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기쁨이 오래 갈 겁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닌다!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다! 그러나 본인은 정말 괴롭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 보통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해야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한 삼십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거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혹시 중도에 정산해서 퇴직금이라고 나오면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한 삼십년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긴 영혼을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삼십년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은 훨씬 더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또 설명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도 이 말씀,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었다고 말합니다. 12절 끝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하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천사들도 살피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혹은 천사들도 살피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11절에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뭐직한 일이나? 도대체 어떤 일이나? 그걸 연구하고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살피고 연구하고 궁극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상고하고 살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상고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말해 놓고 왜 자기가 몰라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내 입으로 말은 했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살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피보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이렇게 말한 이 성경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충 읽어버립니다. 아니 읽어볼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천사들도 그렇게 기이히 여겼다는데 내가 이걸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간 큰놈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이 놀라운 복음이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셨으니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천사들도 기이히 여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죽하면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값싼 것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기이히 여기고 목상을 하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 어느 날 문득 아무렇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웃으며 살자고 요즘 야단들입니다. 15초간 웃으면 수명이 연장된대요. 일부러 웃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그냥 소리 내서 막 웃어도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비웃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 반면에 기뻐하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진짜

웃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속에서부터 기뻐서 겉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웃음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웃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며 정말 웃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삽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서 슬픈 생각하고 근심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병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걱정을 다 뒤집어 쓰고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든든한 집,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입니다. 땅은 그냥 힐긋힐긋 쳐다보며 살면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만 쳐다보고 운전하는 것을 문근영의 운전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광고 자주 나오네요. 특징이 뭐니까? 앞만 딱 보고 운전하면 뒤에 차들이 꼭 밀려서 따라옵니다. 운전을 하면 앞뒤, 좌우에 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내 앞의 차보다 그 앞의 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의 앞 차도 꼭 보셔야 합니다. 좌우에 있는 차도 보아야 합니다. 뒤에 오는 차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지 시골에서는 경운기가 나오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볼게 참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세히 보면 안됩니다. 힐긋 보고 말아야 합니다. 뒤에 오는 차를 빠끔히 쳐다보면 사고 납니다. 뒷 차, 옆 차 할 것 없이 전부 힐긋 쳐다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걸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도 한 번씩은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냥 힐긋힐긋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요? 그 돈이 옆에 있는 차입니다.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조사 하십니까? 옆에 있는 차입니다. 빗쟁이가 따라오면서 늘 빗 독촉을 합니다. 그건 뒤에 오는 차입니다.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힐긋힐긋 쳐다보면서 신경써야 할 것들이지 빠끔히 쳐다보고 있다가는 사고납니다.

뭘 보고 사실 겁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짝살짝 쳐다보아야 되지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게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구경도 가야 합니다. 구경 가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도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힐긋힐긋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흠어진 나그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살펴볼 뿐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손을 놓아야 할 때는 깨끗이 놓을 수 있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흠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재 대신 화관을!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도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개역, 이사야 61:1-9]

3 절 중간쯤에 보시면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준다는 말이죠! 재와 화관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덮어 쓰는 게 공통점입니다. 재를 왜 덮어씌우니까? 우리는 그런 버릇이, 습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재를 덮어썼다고 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재를 덮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 대신에 아름답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 준다는 말씀입니다.

재 대신에 화관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 대신 화관을! 우리 아이들이 복음송 부를 때 이 구절이 잘 나오죠? 그 복음송이 좀 더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몇 구절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씁쓸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살펴보고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쓰러져 가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애통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로가 되고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 놓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 믿음 때문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었습시다.

이사야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시다.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으시는 분, 손이 아주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시기 바랍니다. 갚으실 때는 정말 크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구절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자기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속해 있는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셨더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1절에 기름 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은 나를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신 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 삼으셨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사역합니다.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우선으로 뽑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부르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있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똑똑하고 재산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인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 사는 사회는 정말 돈이 말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있으면 죽을 목숨도 살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살려낼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1절 중간쯤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결국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포로가 되었고 석방된 죄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자유를 얻은 포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는 포로였는데 메시아의 사역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 놓으셨습니다. 처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죽었던 자,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놓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잘 잊어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배부른 자의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지 모르죠. 하나님께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말하기 전에 내가 포로되었던 시절 아니 죽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 놓으라고 그러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놓았더니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하는 기도, 내가 행하는 걱정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따리 내 놓으라고 조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충분히 위로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징징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메시야가 슬픈 자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3절을 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재 대신에 화관, 아름다운 모자를 씌워줍니다. 화관, 아름다운 관입니다. 화관을 쓰고는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합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희락을!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희락에 기름을 한자 더 붙인 겁니다. 왜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주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축하하고 대접을 했죠. 요즘 식으로 하면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그 희락의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니까? 둘 다 흐른다는 겁니다. 슬픈 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 대신 그 귀하디 귀한 희락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귀귀한 냄새가 나던 몸에서 갑자기 향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의 옷을 대신하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입니다. 근심과 찬송의 공통점이 또 뭐니까? 소리가 난다는 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곡소리가 나거나 앓는 소리가 나거나 킁킁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곡소리, 앓는 소리, 킁킁거리는 소리가 나던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희락은 기름으로 표현했는데 왜 찬송은 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근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배옷을 입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성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찬송 부르는 사람의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기 세 쌍의 표현들이 각각 공통점이 있으면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만족스럽게 갚아주느냐를 잘 표현해 줍니다. 어릴 때 먹을 것 못 먹어서 고통스럽던 사람에게 좋은 선물은 맛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몹시 다니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닌 사람에게 좋은 선물은 명예박사, 이런 것을 주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한이 맺혀 있는 그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지요. 여기 비유가 공통점이 있는데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근심으로 사는 자에게 향수를 뿌리고 화관을 씌워서 찬송을 부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초상집을 아예 잔칫집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메시야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초상집을 잔칫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메시야의 사역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에게, 이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서 위로하신다는 선언입니다.

3절 맨 마지막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의의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은 뿌리째 뽑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 나라를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본다면 아주 굵고 튼튼한 상수리나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도 뽑히지도 않을 튼튼한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나무가 뽑히지 않을 튼튼한 나무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튼튼한 나무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메시야를 통해서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4절부터 62장 끝까지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

성이 되는 것인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설명을 합시다라는 내용이 길어서 그 중에 일부분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부터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한마디로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는대요!

옛날 같으면 쌓아놔야 무너지던 성읍입니다. 그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못살게 굴던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를 지키며 너희 포도원을 돌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음식을 함부로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그렇게 귀한 진미를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민족의 양식을 먹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이 잘 안되는 애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왜 그렇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영 상관이 없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전도 여행을 세 번이나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헌금을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고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교회의 대표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원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3차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꼭 보고 내가 너희에게 꼭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는 쉬워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멀리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가까운 로마를 놔두고 로마에 가고 싶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그때 모았던 많은 헌금과 이방 교회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는 이 일을 바울이 마무리 지어야 했단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일단 접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7절에는 **배나 얻으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분깃을 배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맏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맏이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빼앗겼던 신분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가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로 받는다는 것은 그 신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분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하고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줘버린 겁니다.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줘버린 겁니다. 종으로라도 삼아 준다면 감지덕지 하겠는데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여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습니까? 또 뭐 내 나라, 뭐 달라 이러겠습니까? 아니, 좀 불만 사항이 있어도 그게 불만이 아닐 겁니다.

이 아들이 잠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들이라고 들어왔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보따리 싸고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갑니까?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맞아도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담대하게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분깃의 두 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이 받은 복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제 삼자가 보아도 ‘아, 복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더니 정말 복 받았네’라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돈이 되었든, 승진이 되었든 자녀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살자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선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했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진을 더 해도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좀 드러내 놓고 살 만큼 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고 살자는 뜻입니다. 뭐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삶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정말 칭찬하는 말이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중에서도 돈이 왕창 쏟아지면 좋겠지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든지 그게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믿는 사람이 좀 복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드러나는 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해야 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서 그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앓는 자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슬픔, 재, 근심 대신에 기쁨과 화관과 찬양이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느냐고 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누릴 복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런 소리 했다가 야단맞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오빠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한 말이 뭐니까? ‘예,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라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그건 우리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살잖아요? 우리 오빠도 살고 이웃집 아저씨도 살고 다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물론 살겠지만 지금 살 것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놀라운 복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받을 복도 확실합니다마는 오늘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 대출 아버지가 중학교 학비는 안 대줍니까? 시집보낼 때에 온갖 혼수품을 기쁘게 사줄 엄마가 중학교 다니는 딸에게 용돈 안 줍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시집가고 대학갈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으니 거기에 맞는 복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또 은혜받을 만한 순종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 큰 기쁨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셨고, 재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슬픔이나 재나 근심 대신에 기쁨과 화관과 찬양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개역, 신명기 12:6~7]

지난 주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치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수고를 많이 했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어른들도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점수를 왕창왕창 주면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빼 먹고 죽어라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런 학생들이 시험 잘치고 점수 잘 나오게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잘 안 나오도록 할지 하나님께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수고 많이 했지?’ ‘뒤에서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아는 가정이라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막한 구절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3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제목 ‘드리고, 먹고, 즐거워라’입니다. 1부는 드리고, 2부는 먹고, 3부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1부 ‘드리고’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져다가 드리라고 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합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보통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희생은 속죄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드리는 제물이 희생제물입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의 의사가 있든지, 범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많고 적은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번제고 희생이고 십일조고 거제고 서

원제고 낙헌제고 간에 전부 하나님께 가져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예물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애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든지 전부 내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넌 내 거야, 너 가진 것 전부 내 거야’ 이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가져오라는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시라서 그렇니까?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내 돈, 내 열심,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탐이 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워도 슬퍼도,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선물을 가져다 줄 때만 좋아합니까? 자식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고 도와주리라는 마음이 담긴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라’입니다. 눈물이 펄펄 쏟아져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며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으니 나머지 십 분의 구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요? 예배의 두 번째 ‘먹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렇습니다. 1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2부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있으면 얹히지 않을까요?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도 얹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물 뿐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교제를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 밥 못 먹는 사람 있냐?” 그러면 친하게 지내기 싫다는 뜻입니다. “밥 안 사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데도 악착같이 안 사는 사람 있죠?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밥 안 사나?” 왜 그래요?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달라붙어서 그래?”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많은 계명을 다 주신 후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청옥같이 깎 쪼려 있더라입니다. 그렇게 청명하더라입니다. 거기에 백성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뭐 했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계명을 다 준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지속한다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표현들 빌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만 여기시면 안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정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으니, 이제 내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십 분의 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겁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누가 즐겁죠?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는 우상이든 귀신이든 갖다 바치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7절 중간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의 3부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종도, 가난한 자도 고아나 객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3부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고 팽하니 사라집니다. 그것은 1부밖에 참석 안한 것입니다. 3부까지 참석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도간의 교제는 좀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외롭게 살거나 혼자 쓸쓸한 느낌으로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새 중에 올빼미나 부엉이가 있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는 컴컴한 곳에서 항상 홀로 지냅니다. 눈은 또 어떻습니까? 슬픈 눈으로! 소리는 어때요? 구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 떨어져서 홀로 슬픈 노래나 부르고 외롭게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개나 매도 부정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혼자서 자기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새지요.

반대로 성도는 형제를 돌아보며 형제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 뭐 보기 싫은 저것들 보러 왔나?'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수준차가 나서 어떻게 같이 놀아?' 그 수준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수준차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수준차를 따지고 있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평소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면 이 장소가 난장판처럼 시끌벅적할 겁니다. 이 난장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웃으십시오. 제가 심각하나요? 죄송합니다. 제 댄에는 생각하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예배 드리는 우리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율폐미 흉내 내지 마시고 마음 놓고 형제와 웃으며 지내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피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개역, 갈라디아서 3:1~9]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때문에 제가 아이 하나를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영덕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곡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산골에 칠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 안 오는 거예요. 차도 잘 없는 곳이니깐 택시 타고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에 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이 아이의 대답은, 8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한 달만 산을 뛰어다니면 이백만원이 생기는데 뭐 하러 공부합니까?”라는 겁니다. 그날 온갖 좋은 얘기 다 해 가면서 달랬지만 결국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를 설득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답답해요? 선생님이 답답해요? 아니면 부모가? 누가 답답합니까? 어떻게든지 학교 다니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틀림없이 ‘그 때 날 좀 강하게 붙들어서 학교 다니게 해 주지!’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그놈의 송이 때문에...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학교 다니게 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라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함도 치다가 사정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대충 헤아려 보니까 8가지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는 겁니다. 짐작게 말하면 그런 거고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면 ‘야, 이 돌대가리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까?

1절을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묘한 것이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볼 것을 못 보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뻔히 뜨고도 바보짓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기적을 뻔히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본 것도 없이 예수를 믿고 그 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뻔히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틀린 줄 분명히 알면서도 부득부득 다른 소리 하는 사람,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남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돌대가리 아닙니까? 요즘은 닭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닭이 머리가 조그만 하대요. 도대체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뻔히 보면서, 아니 답이 분명한 데도 자존심, 체면 때문에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굴복하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통째로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장 끝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다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왜 교회 다니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오래 다녔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또는 사업상 교제를 넓히기 위해서? 혹은 안 다니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아서?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면 수십 년 다녀도 헛 다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른 얘기는 다 접어놓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 때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도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듣는 데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특별히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옛날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들음’은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어느 집회에서 종말론 강의를 듣던 때입니다. 까까머리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사 목사님이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 하는데 앞에 소복하게 앉은 아이들이 “계속 합시다.” 이러는 바람에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했습니다. 한 4시간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텐데 언제 화장실 가고 언제 쉬느냐?’는 말입니다. 원래 예정이 2시간 정도였을텐데 그렇게 학생들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도 기억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동 근처 섬진강 강변의 버드나무 숲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어느 집회 때 강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계속 하니가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따로 모입니다.” 그렇게 따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 강사 목사님 따로 모시고 밤을 새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에 들어가서 잠자는 놈들 전부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질문하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들으려 하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라디오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면 애쓰고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무 것이나 정신없이 듣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 말씀을 새겨들으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듣고 믿을 때 아니냐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어떤 느낌이 오나요? 부모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온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동안 양육비 다 갚을 테니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상상이 안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신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흠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육체가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육체보다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점점점점 타락하면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십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다 육체가 됩이라’** 생령, 영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현하면 **‘그 인간,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짐승이더라’**는 식입니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짐승으로 끝나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령으로 만들어 놔더니 육체가 되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 놓았는데,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면 바로 이런 멍청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피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한 것을 헛되게 날려버릴 거냐는 말입니다. 무슨 고생 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이나 다른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시다. 바울이 혼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바울의 말씀을 받고 믿기로 작정했던 성도들도 그 많은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전부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책망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6절, 7절에 하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에는 너무나 좋은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그 사건은 85세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한 후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것은 하갈을 첩으로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믿지 않았습시다.

행위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믿음이었지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99세 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느냐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즉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원래 자기 집에서 길러서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에 몇 번이나 참석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은 안심 좀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되면 걱정이 됩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성가대 봉사를 몇 년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랜 세월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집사 몇 호봉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간 섬겼는데?’ 그런 자랑 다 물어뜯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즉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감격적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하시려고 이방인에게 복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교리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거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부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 칭찬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얘기, 아브라함에게 꼭 해줘야 할 얘기,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작정하시고 온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려고 작정해 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얘기냐? 지금 와서 하는 얘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님네 너희가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따르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더냐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거의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별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켜 본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 본 그가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요구를 갚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고 평생을 헌신하며 주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으로 찌든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찌든 삶이란 뭘니까?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냐?" "한숨 자려고 하는데 또 예배야?" "오늘 저녁에 또 교회 가야 하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율법에 찌든 삶입니다. 형편도 쪼들리고 어려워 죽겠는데 또 헌금을 해야 하나? 십일조만 안 하면 좀 먹고 살만 한데? 율법에 찌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믿는다는 것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즐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이웃사람 만나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작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터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이른 이 복이, 이 구원이 나를 통해서 또 이웃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누가 답답합니까? 모르면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아는 우리가 답답한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작전상 친절 말고 작전상 구제 말고 진심으로 구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정도 해야 합니다. 엎드려 빌기도 해야 합니다.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살 하려는 사람 말리는 일도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답답한데요? 죽는 놈이 답답해야 하는데 말리는 놈이 더 답답합니다. 학교 그만 둘려는 애 말려야 합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부모가 답답합니다. 학교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인지 툭 하면 '안 간다' 하고 난리를 치면 속이 상하지만 어쩍니까? 말려야 합니다. 의사도 참 힘들습니다. 약을 안 먹으려는 환자 있죠? 당장 급한데도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티는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사정사정 해 가면서 약 먹여야 합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누가 답답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쳐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을 향한 이런 답답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답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순종하는 일부를 불러내서 교회를 삼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교회 역사를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했는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일부를 불러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답답해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던 바울의 마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뿔라라, 헵시바라 하리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 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개역, 이사야 61:10-62:9]

힘

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쓰는 말 중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 온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느냐?"고 물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재를 뒤집어 쓰고 배움을 입고 슬픔과 근심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재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배움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초상집을 잔칫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초상집이 잔칫집으로 바뀌는 이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역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는지 11절을 봅시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 움이 돋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바위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큰 바위가 누르고 있는데도 그 밑에서 싹이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보세요. 못 막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마치 땅에서 움이 돋고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별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또는 '살다보면 잇을 날도 있고 복을 누릴 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움이 돋고 싹이 올라오듯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상집 같은 우리를 잔칫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이 땅은 살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포로로 잡혀 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의의 겹옷을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뿔 때문에 그렇게 기뻐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이 공부 잘 해서 기쁜 것, 그것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짝이 움터 올라오듯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로 인해서 정말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 갔다가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야가 임했을 때 그 메시야로 인해서 우리가 열게 될, 회복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메시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기쁨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혼인의 즐거움과 같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10절 뒤편에 보시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신랑,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62장 5절을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마치 결혼하는 것 같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했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는 ‘결혼할 때는 뭐가 뭐지 잘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참 좋더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가슴 설레는 일 아니었을까요? 연애가 아니라도 결혼하는 날은 당사자들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가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야콥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칠년을 수 일 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7년이 수 일밖에 안되냐 말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마치 이런 기쁨과 같다는 겁니다.

남자들 일 중에 연기하면 안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제대 날짜입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남았으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몸서리나도록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져서 ‘제대 일주일 연기’ 이러면 미칩니다. 6개월 연기된 사람은 어땠겠어요?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 왔을 때 그랬답니다. 사람 잡습니다. 연기하면 안되는 게 또 뭐죠?

정해진 결혼 날짜를 연기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날 잡기 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날 잡아 놓은 뒤에 미루면 미친데요. ‘한 달 미루면 안되냐?’ 속이 터집니다. 못 미룹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서 유혹 안합니까? 결혼만 해 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오만 소리 다 안합니까? 그거 진짜인줄 알고 끝이 듣고 결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혼하는 그날로부터 그 모든 것은 다 헛일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목적을 달성했는데요!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멋대加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선 보러 나가서 딱 한마디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결혼 전에 대화라고는 그 한마디 밖에 없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결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느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7년을 수 일 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하던 야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라헬을 얻은 후에 또 7년을 봉사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다른 부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마치

못해 했을까요? 아니면 즐겁게 7년을 또 봉사했을까요?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헬을 얻기 위해 고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얻은 라헬을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 없는 데서 늘 그럽니다. ‘저 웬수’ 원수도 아니고 웬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겠습니까마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라고 가르칩니다.

조용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 연애 기간이 가장 좋았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신혼생활 3년이나 5년 그 사이가 가장 행복했는지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서 20년도 넘었는데 지금이 더 행복한지? 연애 시절보다 지금, 함께 십 수 년을 살고 이십여 년이 넘었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라도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나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즐기기도 합니다. 조금 심해지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는 없고 행사만 치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감격,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성경은 종종 결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열방이 네 공의를 열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에 결혼한 자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백성은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뭘니까? 신분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면류관, 왕관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그 이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은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피아노가 참 귀했습니다. 잘 지켜야 한다고 천으로 옷을 입혀서 덮어 두었던 기억도 나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아노에 갑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함부로 손 못 대게 나무로 꺾을 짜서 덮어 씌워 놓고 자물쇠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피아노는 자꾸 만지게 하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 분은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컴퓨터가 한창 보급될 때 귀한 것이라고 손 못 대게 하고 고이고이 보관했답니다. 포장도 뜯지 않고 고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곱게 모셔두면 3년만 지나면 쓰지도 못합니다.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손 안 대고 잘 보관하면 잘 하는 줄 알았죠. 부서지도록 열심히 두들겨야 하는데 비싼 데다 새 물건, 새 것이니 함부로 손 못 대게 하는 게 잘 하는 줄 알았던 말입니다.

하물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 왕관에 누가 손을 대겠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고대 왕들에게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 줬습니다. 강화도에 촌놈이 있었는데 나중에 철종이 되지요. 또는 강화도령이라고 불렀죠! 강화도 촌놈을 왜 강화도령이라고 불렀어요? 왕이 되었는데 촌놈 했다가는 소리도 없이 죽을라고요? 신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뀝니다. 심지어 아주 귀하면 물건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빅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같죠?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커다란 시계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물건에도 이름을 붙여 놓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름이 바뀐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얻게 된 이름이 됩니까? 바뀐 우리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자부심도 좀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여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점점 그렇게 변해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날마다 징징 짤 수 없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자부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뀐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헵시바라 하며 뿔라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됩니까? **다시는 버리운 자라 또는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전 이름은 황무지요 버리운 자라는 말 아닙니까? 이전 이름이 버리운 자요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헵시바라 뿔라라 하라고 말합니다.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인데 좀 부드럽게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는 나의 기쁨' 이런 게 아닐까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쓰던 표현을 빌리면 '그대는 나의 태양'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버리운 자, 표현을 바꾸면 소박맞은 자인 셈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기쁨이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무지라 불리웠고 버려진 땅이었고 우리 식으로 소박맞아 쫓겨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대는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붙여준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말이 어떤 말과 대조를 이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버리운 자와 대조가 됩니다. 버리운 자가 어떤 자죠? 가령 젊은 사람들 같으면 실연의 아픔을 지닌 자, 아이들 말로 차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젊은 날에 차여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야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의 얘기를 좀 참고 합시다. 남자들이 차이면 주로 뭐 하나요? 제 친구 하나는 쥐약을 먹었습니다. '야, 세상에 여자가 많고 많은데 그렇다고 쥐약 먹냐, 이놈아?' 차여 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압니다. 남이 보기에는 '저 바보 같은 자식' 싫는데 한번 당해 봐야 그게 어떤 아픔인지, 쥐약 먹은 놈 심정을 알게 됩니다.

군에 가 있다가 차인 사람들은 주로 뭐 하죠? 총 메고 잘 나옵니다. 얼마나 아프면 군에서 총 메고 나와서 난리를 칩니까?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리운 자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이름을 뿔라?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시켜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자'라는 표현을 조금 바꾸면 '임자 있는 몸'이란

뜻입니다. 나 임자 있어! 내 임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이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임자 있는데?’ 신랑도 보통 신랑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헵시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당신,’ 뿔라, ‘내가 당신의 임자라는 거죠. 실연을 당했거나 이혼을 당해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애인을 찾고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드라마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은 것이 결혼한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 결혼은 초혼일까요? 재혼일까요? 뿔라라는 말이 원래는 재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결혼의 기쁨을 허용합니다. 이건 초혼이 아니고 재혼입니다. 재혼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좀 어색한 표현이지요. 도저히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초혼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도망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마치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흔히 사용한 말이 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인트를 싹 칠해버리는 것이 도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처녀 총각이 혼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의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니 우리는 덩달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하세요. 신랑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신랑이 어떤 신랑입니까? 우리가 한번 걷어췄던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은 한 때 내가 발로 찼던 신랑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조용해야 되지 않아요? 군에서 보초서는 사람은 꿈쩍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구덩이 파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생리 현상도 다 참아야 합니다. 기침 소리도 못 내고 참고 꿈쩍 않고 버티어야 합니다. 그게 보초입니다.

그런데 무슨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를 않습니까? 숨어서 조용하게 지켜야 하는 보초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떠들어야 하는 보초도 있습니다. 옛날에 야경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짹짹이를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광고하고 돌아다닙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도둑질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파수하는 차량 찍을 때 보세요. 진짜 찍으려고 하면 숨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은 ‘몇 미터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줍니다. 목표가 찍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다니세요’라는 뜻입니다. 표시 안 내고 숨어서 몰래 찍는 것은 잡겠다는 뜻입니다.

왜 보초가 성 위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까? 힘이 딸리거나 자신이 좀 없으면 매복을 하거나 숨어서 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 여기 있으니까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대적할 만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6절 뒤편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뿔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대 잊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깨우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애깁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구속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쉬지 않고 떠들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없어도 될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릴레이 기도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열심히 떠듭니다. 적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시면 안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 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 팔로, 능력의 팔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완전하게 지켜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 절대 빼앗기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뭔가 좀 해 놓으면 사방에서 대적이 달려들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방에 적이 이제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혼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영육간의 복을 빼앗아 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때에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고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날이 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요 기쁨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6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누가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로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개역, 창세기 3:8~15]

창 세기 앞부분에는 흔히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2장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2장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뭘니까?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장에서도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1장에서 천지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고 묻는다면 '사람 창조의 이야기'라는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존재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짐승이나 천지만물과 달리 특별하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것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독생자라도 희생시켜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계, 잘못해도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거나 부르시면서 '기업을 잇게 하신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기업을 잇게 한다는 말은 만아들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동물처럼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음식입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만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풀과 과일! 이게 비교할 만한 겁니까? 음식이 달랐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뜻입니다. 꿀꿀이 죽 먹는 돼지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 비슷하거나 합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뭘 먹죠? 밥 먹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뭘 자시죠? '밥' 그러면 안됩니다. '진지' 드시죠! 임금님은? 수랏요!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밥이나 진지나 수랏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같은 밥이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수랏과 밥이 다르긴 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밥입니다. 그런데 채소와 풀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짐승의 일종이거나 짐승처럼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손님들이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때 제일 높은 어른이 늦게서야 박수를 받으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다는 것은 창

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판자를 좀 사오더니 하루 종일 마당에서 똑딱거리며 조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다 예쁜 칠까지 하더니 저녁에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거기 넣어 두었습니다. 이 집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더니 예쁜 집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해요? “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똑딱거린 이유가 뭐니까? 개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물과 전혀 격이 다른 음식을 주시면서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은 그 앞에 만드신 천지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믿기 어렵죠? 신명기 4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또 두렵던 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늘 위의 군중’이라는 표현은 일월성신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사람을 위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놓은 것인데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월 1일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올해도 동해안은 미어터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고 이런 모든 피조물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숭이하고 좀 비슷하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좀 발전해서 나간 것이고요? 차이는 좀 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면 같은 겁니까?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는데 옆집의 비슷한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으면 될까요? 옆집 아이도 코 하나 우리 아이도 코 하나, 생긴 것도 비슷한데요? 이게 비슷한 게 맞습니까? 비슷할는지 몰라도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정말 사람은 원숭이에서 혹은 다른 동물에서 발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슬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슷한 원숭이 한 마리 사다 주면 되죠.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닭, 메추리를 산 채로 생매장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닭이나 메추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새들이 군을 날랐대요. 군을 나른 철새들은 한 놈도 안 죽고 날아다니는데 떨어뜨린 군이 묻은 닭과 메추리는 다 죽어 땅에 묻힌다?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닭이나 메추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지요. 심지어 광우병이 심할 때는 소도 갖다 묻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지만물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말하자면 다른 모든 짐승과 비교할 때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터인데 잘 만들어 놓았더니 배신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짐승들에게는 배신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만들어 놓았더니 배신을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식요? 키우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이며 고생스럽게 내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온갖 정성 다 했는데 저 자식이 날 배신할 수 있느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잘 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정성을 쏟느니보다는 차라리 애완동물에게

은 정성을 다 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과 애정을 사람에게 쏟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쏟는 것은 전 아무리 봐도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딸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고양이 이쁘지? 강아지 얼마나 이쁘?”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전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아, 니가 훨씬 이쁘다. 사람을 예뻐할 줄 알고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지 짐승 보고 너무 그렇게 반가워하지 마라.” 제가 자주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이 이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참하게 깨어버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옛날 임금님이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누가 먹었다면 당장에 사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도 멀쩡하네요. 그걸 먹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터인데, 안 죽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배신 때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아담이 안 이랬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누나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모르고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다 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대답을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난 죄 없어요. 누구 죄란 말입니까? 아담이 답변을 기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죄 없고요 누구 죄죠?

‘저 여자가 잘못했고 또 이 여자를 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잘 있는 나한테 여자 하나 쥐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고 둘러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여전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 누구요?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뱀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고 뻔히 알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질문하고 하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의 대상, 즉 교제의 대상이지만 뱀은 그런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뱀에게는 더 이상 질문 없이 바로 선고가 떨어집니다. 무슨 선고입니까?

뱀이 기어다닐 것이라는 14절은 빼고 15절만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그렇게 망쳐놓았으니 네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를 심판할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 즉 사단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단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긴 거죠? 사탄이 이긴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한 이 일을 어떻게든지 이루고야 맙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이 일을 완전히 망쳐놓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사탄이 완전히 망쳐놓았다 해도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일을 망쳐놓아도 ‘그래 내 일을 망쳐놓았

단 말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을 다시 창조하리라고 걱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면 좋겠지만 창세기 1장 2장을 합치면 천지 창조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람 창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고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이야기는 ‘사람의 재창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만들었는데 이걸 사탄이 전부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까지!

완벽한 사람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녕 죽어야 했던 인생을 회복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제물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사탄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자기네로서는 머리가 깨어져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이겨보겠다고 덤볐지만 겨우 발꿈치밖에 못 문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발꿈치가 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반항해 볼 수 없이 머리가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후손이 사탄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한 아름답고 귀한 제물이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라면 홍수 사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고 온 세상이 다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인간들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고 싶어도 멸할 수 없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통로만은 보존해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대의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누군가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어떻게든 반드시 이어가십니다. 반면에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 통로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했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통로를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는 통로를 준비하고 계셨으니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너무 예쁜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매지간이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더라도 자기는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십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거짓말한 아브라함의 잘못인데도 징계는 바로 왕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사 را를 데려갔다는 것은 이 통로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는 이런 깊은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 말만 믿고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노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잖아요? 그래도 잘못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죽을 뻔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과 같은 짓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는 이 통로가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적에게 침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도 그 민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는 것 보세요. 외적의 침입을 무수히 받으면서도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버티어 오는 것은 이 민족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열왕기상 9:5)’** 즉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안 끊어지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조금 넘는 사이에 왕조가 9개나 들어섭니다. 왕조가 9번 들어섰다는 것은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왕과 그 왕족들의 씨를 말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년 조금 더 되는 세월에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망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웃에 있는 유다, 다윗의 왕조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적어도 150년 정도 더 긴 기간 동안에 하나의 왕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유다에서도 4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왕이 제 명에 못 살고 죽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씨가 마르지 아니하고 왕족이 다 죽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살아서 그 위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존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위는 끝났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끊어지고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귀향민 속에서 여전히 이어져 갑니다.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갈릴리에 있었던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탄이 이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발악을 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닐까요?

헤롯은 자기 입장에서는 ‘나 외에 어떤 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자기가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의 통로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발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이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사탄을 이겨버린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거둬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서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힐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날입니다. 사탄이 수 없이 공격하고 그 통로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튼튼하게 지켰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탄생한 날입니다.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존하신 일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성탄절에 산타가 웬 말입니까? 왜 산타가 나서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난리입니까? 술집하고 백화점이 더 난리입니다. 이런 난리 통에 믿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

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보내셨구나!라는 이 감격에 젖어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결국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다 깨어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에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임하였던 저주를 다 없애 버리고 오로지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나라를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죽음과 저주가 사라진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아도 괜찮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뭐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단순한 관리자 노릇이 아니라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에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에 생명만이 넘쳐 납니다. 에덴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선악과는 언급도 안합니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꼭 줄을 지어서 있고 열두 가지 과실이 달마다 계절마다 풍성하게 열려 있는 곳,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여인의 후손이 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아주 즐거운 날이 되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선물을 주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 권면하고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호와와 동산 같은 들을 버리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개역, 창세기 13:1~10]

며칠 전에 성경공부 하나를 종강하면서 식사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식당 앞에 교회가 하나 있길래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과 가족 포함해서 4명 있대요. 괜히 물어보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아팠죠. 교회들이 좀 튼튼하게 서서 제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도 늦게야 알았습니다.

신학교 가고 나서 안 사실이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다른 보고서에 보니까 9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경동교회 안에 우리 교단 교회만 5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슬픈 얘기인지 기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제 몸도 못 가누는 교회가 많다는 얘깁니다.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못 가누면 이웃을 위해 어떻게 희생적인 봉사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가 좀 커졌다 싶으면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는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제 몫을 못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제 구실을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유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로마가톨릭 교회는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느 종교를 가지겠느냐고 물으면 1번이 로마가톨릭 교회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판매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제품 광고를 안 하고 회사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회사가 만드는 모든 물건은 사람들이 믿고 사 버리는 거죠. 실제로 썩 좋은 제품이 아닌데도 이미지가 좋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것이라고 해서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물건의 품질보다는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상표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듯이 아마 로마가톨릭 교회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마치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참 잘 보인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회가 그런 일에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더 많이 노출시킨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미지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된 겁니다.

교회도 이런 이미지 변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할 만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모범 속에서 하나의 답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기근이 심해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고난을 겪어야 했죠. 부인을 누이라 하면서 고비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집안 간에 싸움이 생긴 거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땅이 좁아서 다투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땅이 좁아서 다투는 것도 맞는데 6절에 보면 소유가 많아서 다투는 겁니다. 그거나 저거나 같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6절을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땅이 좁았다는 얘기죠.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복을 많이 주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바로가 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나봐요. 복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지,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남편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권 당첨이 되었다고 큰소리치면서 집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부인도 덩달아 좋아했지요. 남편이 정색을 하며 부인 보고 "가방 안 싸고 뭐해?"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의도는 '내가 돈 없고 가난할 때 당신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당신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가방 싸고 나가란 말입니다. 우스개소리겠지만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집안의 싸움은 작습니다. 있는 집안의 싸움은 참 큼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복을 받으면 더 크게 싸울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 재산이 많거나 돈을 많이 쌓아놓았을 때에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더니 싸우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가 이 만큼 컸으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큰 싸움 나기 전에 그 복을 그만 받고 안 싸우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도 그 복을 더 잘 쓰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칭찬 많이 받았고 귀하죠? 우리가 본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보다 더 칭찬 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부자입니다. 큰 재산 가지고서도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보다 월등하게 존경받아야 하고 칭찬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자기희생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롯이 알아서 좋은 것을 삼촌이 갖도록, 좀 험한 땅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롯이 좋은 땅을 일찌구나 하고 차지해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만이 많이 쌓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기회를 주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롯이 부자가 되었으면 그게 누구 덕이나 말이예요. '더군다나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감히 지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먼저' 해도 아우가 알아서 '형님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롯의 태도는 뒤로 미루어 두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태도만 봅시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보에 자기희생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오히려 그에게 재산을 많이 늘

려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다 잡혀 간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오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사람만 내게 돌리고 다른 것은 모두 가져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거지 너희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전혀 탐내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물고 뜯고 싸우더라도 우리는 싸우지 말자. 목자들이 좀 잘못해서 싸우는 수가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성숙된 모습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아서 아이가 어디 가서 손해를 보거나 야단을 좀 맞고 들어오면 어른들이 싸우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어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그런가요? 애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 오기도 하고 좀 다쳐서 오더라도 어른이 너무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른들한테 야단도 맞고 선배들한테 억울하게 치이면서 참을 줄도 알고 사람 대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기 전에 엄마 아빠가 미리 나서서 내 자식 귀하다고 난리를 쳐대면 아이들이 배울 걸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싸우고, 아이들 사이에 좀 이런 저런 일이 있더라도 어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이들 사이에 가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가끔 크게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깜짝 놀라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싶어도 그 일로 인해서 어른들끼리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교회 분쟁은 일어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는 걸 보면 한쪽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싶기도 하고 때로는 양쪽이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건 남이 볼 때 그렇고 본인들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목청을 높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우지는 말자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싸우지 말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생각, 내 권리, 내 이익을 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좋은 기름진 땅을 포기한 겁니다.

말로만 싸우지 말자고 한다고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산악지대고 한쪽은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땅입니까? 마치 기름진 옥토를 버리고 자갈밭을 선택한 것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이게 경제성을 따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 옥토 밭을 놔두고 자갈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포기하고 험한 산지를 선택해서 훗날 그가 얻은 게 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갈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는 이 모든 땅과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지 내가 차지한다고 붙들고 앉

있다고 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 가져가라고 말할 때 그것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자기 집 목자들이 싸울 때에 롯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 중에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기를 쓰고 아니면 물고 뜯고 싸워서라도 차지해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보하고 물려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애 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지니는 것도 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복 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짓을 전혀 안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도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게 복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목사 되자마자 오지에 선교사로 떠난 동기가 있었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되었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큰일이 났다 싶어서 동기생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모금을 좀 해서 갔습니다마는 가난한 목사들이 모금을 열심히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한 돈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 친구를 찾아 올라갔는데 신장이 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택한 방법은 복막투석이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된대요. 자기가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고 다니면서 복막 그러니까 배 안에 투석액을 넣어요. 30분 만에 꺼냅니다. 하루에 4번 그렇게 하면 병원에 안 가고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그랬답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툭하면 아파서 드러눕는 판국에 투석기를 옆구리에 차고 30분씩 하루에 4번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어떻게 선교사 노릇을 합니까? 대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구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투석액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선교사의 한 달 활동비가 생활비 포함해서 70만원입니다. 그 액수와 맞먹는 치료비를 매달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선교사 노릇 하겠느냐?

친구들이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염려도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어느 날 다른 선교사 지망생이 신장 하나를 떼어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늦게 듣고 어찌나 반갑고 고맙던지 멀지 않은 울산에 있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동기생들 모여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습니까? 모여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분도 조만간 선교사로 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이 기꺼이 동의해줘서 검사를 했더니 너무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병원 의사들이 형제간인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의외로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의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신장을 떼어 준 선교사님 왈 "아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신장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먹죠. 신장 다치지 말라고 커피도 안 먹고 보관했던 것,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하게 키워 놓은 신장인데요? 말하자면 비료도 안 주고 약도 안친 순수 무공해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었는데 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하고 묻길래 "나 환자 아니예요. 신장 하나 떼어줄려고 입원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신장 떼어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더라요.

그래서 ‘이럴 때 값 좀 올리자.’ 그래서 열심히 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자랑하더라구요. 신장 하나 떼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 그것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는 그 선교사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복막투석기를 옆에 차고 어떻게 선교사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떼어준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그 소식을 듣는 우리나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끼리 신장 하나 떼어준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장 하나 떼어줬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걸 더 감격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신장 하나가 아니고 온 몸을 주셨잖아요. 신장 하나 받고 감사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날 신장 투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 행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베소서 2:1)**고 말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가진 신장 대신에 복막 투석기를 달고서라도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는 이 생각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기 주저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걸 차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멀쩡한 신장을 떼어준 이 분도 다음 달이면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분이 가려고 하는 선교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13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랍니다. 그 분이 1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결신자를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하고 말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젊은 친구가 신장 하나 떼어주고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마 감감했을 겁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못했다는데 나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갑니다. 언젠가 저기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현재로서는 감감한 절벽입니다. 물론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생비자로 들어간대요. 그 가난하고 후진 동네에 어학연수로 왔다고 하면 믿어줄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비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친구가 거기 가기 위해서 오랜동안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신학공부 잘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년 동안 영어공부 하러 갔다가 왔답니다. 그가 가진 컴퓨터에 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집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테니 그 자료를 다 챙겨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지금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 곳에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렵고 감감한 곳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아니냐? 자기 자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GBT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가슴이 아프다면서 전해 준 얘기가 뭐냐 하면 포항공대를 졸업한 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선교부에서 한 달에 3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본부에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밖에 지불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사명감이 있어서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GBT 선교사님들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회들이 지원을 안 한답니다.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몇 년 동안 대학원에서 훈련하는 준비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구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안 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들이 선교사에게 지원을 할 때도 그럴 듯한 실속 위주로 지원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선교달력 전면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들 사진이 있는데 찢어버리지 마시고 아는 분이 있는가 보세요.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가세요. 가고 싶긴 하지만 능력이 도저히 안된다는 생각이 들면 도와주면 됩니다. 이런 정신이 교회를 살립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외국으로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정신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안 모인다고 하시지만 참으로 귀한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집사님이 이끌고 있는 기능직 홀리클럽도 마찬가지죠. 정말 귀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에텐동산 같은 들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갈밭 같은 그 밭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변하게 해 주셨고 거기다가 큰 수확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줌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내어주고 사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땅에 투자할 때는 거액입니다. 참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항상 푼돈입니다. 지금 급한 데가 많아서 잘 못하지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요? 지금 어렵다고 못하면 나중에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 키워놓은 다음에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끝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아이 들춰 업고 혹은 아이 팽개치고 일하다가 “우리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크는 아이들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찬양 인도하는 엄마한테 어린아이가 달려들어서 다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발로 툭툭 차면서도 찬양인도 하더라구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후원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살림이 아무리 나아져도 돕지 못합니다. 살림이 아무리 나아져도 다리 붙들고 있는 아이처럼 돈 쓸 데는 항상 있습니다. 쓸 것 다 쓰고 저축하는 것 아니죠? 정말 저축하려는 사람은 먼저 저축합니다. 정말 중요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교회도 개인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내어주고 섬기는 일에 더 익숙해지면 이거야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데도 교회 이미지가 엉망진창이 되어 놓으니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것을 조금 포기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도록 하십시오.

이삭의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개역, 창세기 27:30~37]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이삭의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기록될 이유가 있다 싶었는데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나? 어린 제 소견에는 이삭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뚜렷한 업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기꺼이 바쳤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만 하죠! 모세?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데리고 험한 길 다니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쫓을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만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요. 이삭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꼭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해 봅시다. 이삭이 무슨 바보짓을 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이삭하면 생각나는 바보짓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바보짓이 뭐예요?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용케도 닳더라구요. 좋은 것을 닳아야 하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 줘도 잘 따라 하나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이삭은 거짓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삭은 빼앗겼다가 탄로난 게 아니에요. 누이라고 했는데 왜 들킨 지 아십니까? 끌어안고 있는 걸 보아하니 남매지간이 아니고 부부더랍니다. 부부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들키는 왜 들킵니까? 얼마나 바보였으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들킵니까?

또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우물 뺀 것 아닌가 싶어요. 옛날 유목민들에게 더군다나 물이 잘 안 나는 그 지역에서 우물이란 재산 1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내 놓으라 한다고 썩 소리 못하고 빼앗깁니다. 물러납니다. 한참 물러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와서 또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줍니다. 또 물러납니다. 몇 번 뺐기나요? 세 번을!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만한 우물을 세 번이나 빼앗기고 비켜줬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했더니 “짜움을 싫어하고 양보할 줄 아는 참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가령 그 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당신 남편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물을 빼앗겼다니까 남의 일처럼 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 한 이천만원 들여서 좋은 차를 한대 사 줬습니다. 신랑이 신난다 하고 몰고 가더니 나중에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여보, 차 어떻게 했어?” “몰라 저 강패 같은 자들이 험하게 굴기에 그냥 줘 버렸지!” 뭐라고 할 겁니까? “뭣 산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험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경상도 말인데 표준말로 바꾸면 “나가서 죽으세요!” 하더군요. 경상도 험한 말로 다섯 글자입니다.

이천만원 주고 새 차를 사 줬는데 나가자마자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맞아요, 싸우는 것보다 목숨 부지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하고 또 새 차를 사 줘요? 새 차를 또 사 줬습니다. 나가서 또 그냥 왔어요. 세 번을 그랬으면 그런 남편은 어떤 사람이죠?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온유한 사람요? 남의 일이라고 그리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바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바보짓 한 것이 있습니까? 아내를 구할 때도 자기 집 종이 구해다 주었습니다. 기다렸다가 맞이해서 살았는데 그 집안 내력이 그런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싸우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삭에게 위대한 모습은 안 보이고 무슨 본을 보라고 성경에 써 놓았는지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삭은 아무런 위대한 일이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업적이 있든 없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삭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나는 요셉의 하나님’ 아니면 ‘모세의 하나님’이라 하면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훌륭하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이삭이 위대하다는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별미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냥 다니는 아들이니까요.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해 오면 내가 마음껏 널 축복해 주겠노라”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 복은 둘째가 받아야 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고’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예서는 장자권을 못 받을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결혼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 버렸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전혀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예서에게 축복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별미에 이끌려서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만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저 복은 야곱아, 네가 받아야 한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용기가 없었는지 ‘잘못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는지 모른다’고 할 때,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간 큰 여자였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시집을 온 용감한 여자 아닙니까? 그 용감함이 여기 또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되어서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엄마가 다 일을 꾸민 겁니다. 문제가 좀 있죠?

예서는 피부에 털이 많아서 꼭 짐승 가죽 같았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서 염소새끼 가죽을 벗겨서 매끈매끈한 곳에 잡아맷습니다. 몸의 체취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워도 열심히 하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저 동네는 물이 귀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다르면 들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냄새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서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는 거죠. 또 목소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목소리 때문에 들킬 뻔 했죠. ‘아무래도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간신히 그 위기는 넘긴 듯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별미를 만들어 온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했거든요. 야곱이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것이 가장 나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그 때 야곱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도와주셔서 빨리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잠잠합니다마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래도 교회 장로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얼마 뒤에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구요. 권사님들까지 성경책에 손 얹어 놓고 맹세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 들먹여 가며 거짓말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급해지니까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아들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2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복인데 이삭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는 만아들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간 즉시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것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만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왔다 갔잖아?” 이 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32절 끝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만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내가 만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분노의 치를 떠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세상에 저 놈이 나를 속였다? 자 어떡할 거냐?’ 만약에 분노 때문에 떨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뒷얘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뒷부분에 분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삭이 뭐라고 그러니까? 33절 끝에, ‘네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속은 줄 알았으면 치를 떨고 그 다음에 취소! 아니면, “그 놈의 자식 잡아오라” 했을 텐데 “아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방성대곡하면서 “내게도 축복하시고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한 얘기가 뭐예요? 37절 제일 끝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히 크게 떨었는데 그게 분노해서 떨었다면 뒷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해서 떨었으면 야곱을 불러 가지고 무슨 야단을 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속았음을 알았지만 만아들에게 아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39절, 4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저주인지 복이지 헷갈려요.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을 부릅니다.

28장 1절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야단치나 보세요. ‘그에게 축복하고’ 아비를 그렇게 속인 놈을 불러서 어떻게 또 축복을 해요?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것은 ‘네 형의 본을 보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밧단아람에 가서 너희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버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 것이 분해서 떨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속았다는 걸 금방 깨달은 다음에 왜 그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아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그 말은 ‘어린 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말

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말이 생각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되는,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할뻔 했구나’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심히 크게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떠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지 자신을 속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은 아주 나쁜 것,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남의 일이니까, 이삭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남의 애기니까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기분이 나빠요. 어느 것이 썩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입니까, 감정적인 동물입니까? 생각을 해 보면 무엇이 정답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면 ‘난 그거 안 해’ 그래서 딴 길로 어긋나게 갑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 나쁘니까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름철에 수박장사가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얘기가 가끔 만화에 나오네요. 잘 팔고 있는데 옆에 와서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경쟁적으로 낮추다가 둘 다 망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데?’ 하면서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아무리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쁜 것 제쳐놓고 말씀을 따라 가야 하지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안되잖아요? 이삭의 위대함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분함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씀 따라 가는 이것이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한국 사람은 젊은 사람이 나이든 분에게 따지고 들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분 나쁜 겁니다. ‘젊은 것들이,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잘 안 따지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몹시 나쁘지만 ‘저 놈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 때 내 기분 나쁜 것 제쳐놓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삭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어쩌면 분해서 잠이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 분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 ‘저 놈이 나를 속이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뻔 했는데 저 녀석이 나를 속이는 바람에 이게 바로 잡혔구나!’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기 기분보다 우선해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일부는 이삭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몇 살일 때 그 일이 있었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다 자란 후의 일입니다. 열일곱이나 여덟, 그쯤 됩니다. 다 큰 청년입니다. 이삭이 열일곱, 열여덟이면 아버지는 백열일곱, 백여덟입니다. 백 살이나 많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솔직히 말하면 ‘바로 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았을 것 같아요? 발을 먼저 묶어요? 손을 먼저 묶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스물이 다 되어 가는 젊은 청년의 손을 묶으면 발이 가만히 있나요? 발을 묶으면 손이 가만히 있나요? 안 묶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삭아, 저것 봐라’ 하고 고개를 돌릴 때 뒤통수를 탁 때려서 기절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웃자고 한 얘기고, 이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칼 들고 묶으려고 덤비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곱게, “아,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시지요?” 이러면서 손 내밀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기분까지 접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이삭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아비가 죽이려고 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을 내미는 이런 순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찌끼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는데 말이 그렇고, 그것보다는 좀 낫지요? 우리끼리는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의 찌끼, 짐승이나 다름 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향하여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였던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삭의 삶에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만 잔피를 있는 대로 다 써 가면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차지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험한 삶이었습니다.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형님 만날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자식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울었어요? 그게 다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곰탱이같이 순종한 이삭은 무슨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쥐 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죠. 속이야 상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알아보도록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조금 고집 부리고 조금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할 건데 바보같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생 별로 안 하고 복은 다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사는 것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맥없이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야곱처럼 열심히 사세요. 잘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삭처럼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게 바보같이 저렇게 사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없어 보이는 이삭이 하나님 눈에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뭔가 그럴 듯한 일을 하거나 뭔가 뚜렷한 일을 해 놓은 것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위대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반주를 10년 한 사람에게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제가 위낙 역올한 일을 당해서 싸우러 갔다가 안 싸우고 돌아온 이유는 그 사람이 교회 반주를 10년 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런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큰 업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효자제일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치여서 '나는 뭐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능력있게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온 세상의 부러움을 다 받으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얼 하면서 살았는지 되돌아보세요. 참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그냥 열심히 살아 왔는데? 나도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별어 놓은 것도 없이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뭔가 별어 놓아야 하고 뭔가 이루어 놓아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싶고 때로는 성질을 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참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그리고 계십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의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삭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독 이삭에게 관심이 많았고 이런 이삭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남달라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다면 참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고, 남들은 그렇게 잘 하는데 '나는 뭐야?'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보기에 그럴 듯한 일도 없고 뒷전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한해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